



2

1983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3. 2호

(루게 424)



◆◆◆◆◆◆◆◆◆◆ 차 례 ◆◆◆◆◆◆◆◆◆◆

그 뉘에게 물어도	4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일을 축하합니다	5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드리는 시	5
위대한 어머니당을 우러러	6
아, 당이여	7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따르는 우리 인민의 장엄한 진군에 대한 자랑찬 송가.....	8
선아.....	12
당이여 영원히 그 손길 따르리	21
해방된 조국땅에 남기신 첫자욱이여	21
두만강기슭에서	22
월미도.....	23

우리 당이 제시한 문학예술활동의 대중화방침과 그 관철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	40
소조원 그대와 함께	43
첫 생활에서	44
당을 따르는 마음 (외 1 편).....	53
좋은 봄 좋은 철에	54
자랑하노라 3 대혁명소조원들을.....	55
우리의 세계	57
삶을 빛내이라	58
랭골에 핀 꽃	68
검덕의 광부들	75
다시 만난 관리위원장	76
앞장서가는 사람들	78

그 뉘에게 물어도

김봉문

이땅
그 뉘에게 물어도
사람들은 한목소리로 대답한다
이 세상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영광을 안고 산다고

탄부는 말하더라
땅속 깊이 천만갈래 뻗어나간 일터
그 어느 좁은 막장에도
흘러드는 공기 씻는듯 맑고
쉽없이 돌아가는 자동채탄기의 동음 정다운데
비행사처럼 대우는 또 얼마나 높은가
천만톤의 석탄을 캐낸 소식보다 먼저
언제나 건강부터 헤아려주시니
아, 지구의 석탄 몽땅 퍼올려도 못다할
아버이 그 사랑 그 은정
탄부들만 받는듯

용해공은 말하더라
사철 쇠물 끓는 용해장에서
언제나 땀을 모르는 자랑
산업텔레비죤화면에 비껴흐르는 붉은 쇠물
노을처럼 안아보는 기쁨
사랑의 정원 온실에서 손수 가꾼 꽃고추를
눈덮인 구내식당에서 받아안고
감격의 눈물에 목메였거니
아, 철의 흐름으로 대양을 메워도 못다할
아버이 그 사랑 그 은정
용해공들만 받는듯

말하더라
별에 탄 얼굴에 웃음도 한가득 기쁨도 한가득
가슴 시원토록 생명수 굽이치는 이 땅에서
기계농사 화학농사로-
해마다 흐뭇이 안아보는 만풍년의 기쁨
땅과 함께 마음도 젊어져
기계우에 앉아 모를 내면서도
보안경까지 또 받아안았으니
아, 하늘땅 가득 쌀로 채워도 못다할

아버이 그 사랑 그 은정
농민들만 받는듯

말하더라
두메산골
입학의 첫기쁨 꽃송이로 피어
통학렬차 타고 학교가는 소녀에게 물어도
안개낀 부두가의 이른새벽
배머리에 찾아오신 수령님을
한없는 감격속에 만나뵈온
그 어느 어로공에게 물어도
말하더라
먼 바다 섬마을 등대원도
머리 흰 장령도
유치원어린이도...
아, 우리 사는 이 땅
그 뉘에게 물어도
그 사랑 그 은정을

진정
한없이 넓고 파사로운
위대한 아버이 그 품이 있어
환희로운 삶이 기쁨으로 충만된 이 땅
단발머리치녀도 영웅으로
이름 높은 과학자로 박사로 자라고
그 사랑 그 은정으로 하여
사람마다 영생의 기쁨 안고
미래에로 달음치거니

그 뉘에게 물어도
오직 한목소리로
사람들은 뜨거움에 젖어
자랑차게 긍지높이 대답하더라
인류의 태양 **김일성**동지
그이를 모시고 이 땅에 사는
우리보다 더 큰 행복
더 큰 영광을 안고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 없다고
더는 없으리라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을 축하합니다

필리쁘 하도

혁명의 폭풍 휘몰아치는
백두성산에서 탄생하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위대한 부모님들로부터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교양을 받으시며
절세의 위인으로 성장하시었어라

당신은 혁명과 건설의 영재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생산도 학습도 생활로 항일유격대식으로!》
《속도전 앞으로!》
전투적구호를 높이 드시고
조선혁명을 승리로 인도하고계시여라

당신은 주체예술의 영재
문학예술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고
주체예술의 대화원을 활짝 꽃피우시여
조선은 예술의 나라로 빛나고있어라

인민의 탁월한 지도자 당신은
위대한 수령님의 고결한 품모를 따라
언제나 인민과 함께 계시며
인민에게 끝없는 행복을 주신다네

당신은 수령님의 혁명위업의 계승자
당신은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완벽하게 체현
하시교
끊임없이 발전풍부화시켜 나가시여라

아, **김정일**
그 이름 길이 빛나라
세계는 **김정일** 동지를
새로운 지도자로 높이 칭송하노라

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당신의 불멸의 공적 영원하리니
만민의 간절한 념원을 담아
조선은 당신께
공화국영웅칭호를 드리였어라

아, 공산주의의 위대한 태양이신
당신께서 영원한 청춘으로 젊어계시여
인류에게 평화와 행복을 안겨주시기를
삼가 축원하노라

(필자는 베닌 기자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시

불란야나 쏘노

비범하신 예지로 걸음걸음 빛내이시며
사람들을 일깨워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는분
여기 조선에 계시나니

우리는 당신을 모시고
자주시대에 사는 영예를 간직하며
당신께 절대적인 신뢰를 드리노라
조선과 세계가 해야 할 일을 밝혀주시는
당신께

만민의 흠모와 존경을 받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영원한 충성의 한마음으로
당신을 우러러모시옵니다

당신을 우러르며
여기 조선으로 달려온 우리
당신께서 높이 드신 향도의 손길따라
모두다 걸음맞춰 나아가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당신께선 위대한신 **김일성** 원수님의
높으신 뜻 이으시였거늘
당신께서 나아가시는 길우에 승리만이
빛날것입니다

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조선의 통일과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당신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필자는 남아프리카 아프리카민족대회
공보 및 선전부 부부장임)

위대한 어머니당을 우러러

유성옥

백번 불러 다정한 이름
천번 불러 변함있으랴
내 한생을 부르며 따르는
그대 어머니당이어!

인류수천년의 역사를 두고
낳아준 어머니를 외우며
그 사랑보다 더한것 모르던 사람들
그대를 어머니라 부르나니

나는 몰라라
내 한생을 하루와 같이
고이 안아주고 지켜주는
그대 사랑의 끝은 어딘지
생의 첫걸음 떼주던 때로부터
다 자라서 길을 가도
얼어질세라 가슴조이며
손길을 내밀고 함께 걷는 그대

뢰성벽력엔 끄떡하지 않아도
한가닥 아들의 거친 숨결소리엔
그만 소스라쳐 깨어나
대양의 한끝까지 마음 달리거니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삶도 운명도 한품에 안아주고
마를줄 모르는 젖줄기로
영생을 이어주는 그대의 은정
그대 수천수만의 아들딸들을
창조와 투쟁의 영웅으로
존엄높은 주체의 인간으로 빛내여주고
생의 환희를 안겨주어라

무엇인들 못주랴, 신성한 그대는
흘러간 세월들이 생각도 못했던
인간만세의 영광을 주고

자주의 온 세계를 주나니

당이어, 그대는 주체의 붉은 기폭을
영원한 해불로 높이 추켜들고
빛나는 새세기의 령마루우에
거연히 솟아오른 위대한 어머니!

해와 달과 별들을 머리에 이고
누리를 굽어살피는
그대의 정찬 눈빛아래 온 우주가
만시름 놓고 잠들고 꿈을 꾸어라

오, 그때문에 꽃봉오리 아이들도
백발의 로인들도 이 나라 어머니들도
한목소리로 긍지높이 부르는
당이어, 위대한 어머니당이어!

그래서 그 이름 소중하고
그 진리는 빛나는것이거니
그대의 아들로 충성을 다함은
둘도 없는 내 삶의 목적

남모르는 밤길을 홀로 가도
탐사의 산정에 홀로 있어도
그대 위해 바치는 억만의 땀방울
그 어느 한순간도 티가 없이 살리라

그대 부른다면 지구의 한끝까지도
웃으며 물불을 헤쳐갈 마음
내 순간인들 그대 믿음 저버리는
배은망덕은 없으리니

나는 살리라, 영광스러운 당이어!
그렇듯 신성하고 자애롭고 위대한 그대가
나의 어머니임을 자랑하며
내 영원히 그대를 받들어살리라

아, 당이여

리금녀

따사로운 빗발속에
만발한
나는 한송이 꽃

해빛아래
별빛아래
삶은 즐거워

노래의 첫구절
떼기도 전에
감사에 목매여
다만 한마디
아, 당이여

나의 꿈
마음껏 펼쳐주어
그대는 머리우에
푸른 하늘

달디단 열매를
해마다 익혀주는
그대는 은혜로운
어머니대지

내 피줄 거기 이어져
쉬는 숨결
내딛는 걸음
그대의것으로
끓고 활기로워

아, 바치는 마음
땀으로 땀히면
방울 방울을
보석인들 빛내여 주나니

당이여
따르는 생각
진정을 바치면
동지로 불러주고
믿음으로 안아주는

사랑의 품이며
순간이라
나날이라
고마움에 젖어
들먹이는 가슴
숲을 보아도
나를 반겨 설레고
내물을 보아도
나를 불러 노래하는가

폭풍의 언덕은
앞에서 막아주고
시련의 언덕은
떠밀어주기에

그대 바다라면
나는 그대 품에 안기는
시내물
그대 해빛이라면
나는 그 빗발아래 영그는
풍년나락

내 자랑찬
삶의 한순간도
그 한끝도
그대에게 있어

태어나
처음 부른 이름
한생을 다하도록
다함이 없어

당이여
그대를 우러러
그대만을 따르며
그 품에 천백번
다시 태여날

아,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품이여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따르는 우리 인민의 장엄한 진군에 대한 자랑찬 송가

-가사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에 대하여-

장정춘

시대를 안고 시대와 함께 숨쉬며 시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것은 혁명적가사문학의 근본특성이다.

노래를 들으면서 그 노래가 불리우던 당시의 사회력사적환경과 생활, 투쟁에 대하여 련상하며 깊은 감회를 가지고 돌이켜보게 되는것은 가사문학의 이러한 특성과 주로 관련되어있다.

우리 당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핌속에서 창작완성된 가사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가사의 생명력은 그가 얼마나 시대정신을 투철하게 반영하고있는가, 얼마나 해당 시대 인간들의 신념과 의지, 지향과 념원을 진실하게 반영하고있는가 하는데 의하여 담보된다.

시대정신은 시대와 생활의 기본지향을 반영한다.

가사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신념과 의지, 념원을 진실하게 형상함으로써 시대정신을 심오하게 체현한 가사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실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그려낸 사실주의적문예작품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습니다.》

이 가사는 시대와 생활의 기본지향, 우리 시대 인간들의 사상감정을 생동하고 심도있게 그려냄으로써 시대정신을 잘 구현하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는 가사로 되었다.

가사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아래 이 세상 끝까지 가고 또 가리라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혁명적신념과 의지, 전투적기상과 충성의 결의를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가사의 구절구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따라 천만리 먼 혁명의 로정을 걸어왔듯이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이 한길에서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고야 말리라는 불타는 충성의 맹세가 힘있게 울리고있다.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 걸어왔고 걸어가야 할 그 길, 준엄한 시련의 언덕들과 위훈의 봉우리들을 넘어왔고 또 넘어가야 할 그길, 그 길 천만리에 우리 혁명의 영광에 찬 파

가 있었고 승승장구하는 조선혁명의 오늘과 보다 찬란한 래일이 있다.

바로 그 길에서 우리 인민은 조국의 통일도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도 이룩할것이며 제국주의아성을 짓부시고 자주화된 새세계도 건설할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 가사가 주장하는 사상정서적핵이다.

가사는 이러한 사상감정을 우리 혁명의 력사적로정에 대한 심오한 예술적일반화를 통하여 감명깊게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눈보라세찬 만리광야에 대한 표상으로 부터 시작하여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달려가는 천만심장들에 대한 숭엄한 화폭으로까지 그 시적감정을 승화시키면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뿌리와 그것이 대를 이어 계승되는 오늘의 벽찬 현실을 높은 시대적감정으로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그것은 우리 인민의 장엄한 진군에 대한 행진곡이다. 이 행진곡에서는 조선혁명의 력사적로정에서 터득된 귀중한 혁명의 진리들, 신념의 목소리들이 힘있게 울리고있다.

1. 만리광야에 눈보라 세웠네
모진 시련도 혈전도 많았네
장군별을 우리려 떠 나온 길
향도성을 우리려 이어가네
수령님을 따라서 천만리
우리 당을 따라서 천만리

저 수난의 세월 암흑을 밀어내며 이 땅에 밝아 오기 시작한 조선혁명의 려명기. 참으로 그 시기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눈보라세찬 행군도, 시련도, 혈전도 많았다. 눈보라, 만리광야의 눈보라,

그것은 투사들의 의지를 강철로 버리였고 죽으면 죽을지언정 혁명에 다진 그 맹세는 번치 않겠다는 신념을 더욱 굳건히 하였다. 그것은 항일투사들의 불굴의 기상과 정신의 상징인듯하였다.

어둠을 불사르며 한점 불꽃인양 광야에 타오른 《E. C》의 횡불. 그때로부터 우리 혁명은 너무도 생소한 초행길을, 너무도 모진 시련을 이겨내며 헤쳐오지 않으면 안되었다.

간악무쌍한 일제의 파썸적폭압과 종파사대주의

자들의 악랄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혁명이 위기에 처한 때는 몇번이었으며 장설덮인 밀림을 헤쳐 나가던 간고한 행군길에서 적들과 치열한 혈전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런 때는 또 얼마였던가!

혁명의 길은 순탄한 대로가 아니다. 그 길에는 시련도 혈전도 있고 때로는 가슴아픈 희생도 있다.

비바람, 눈보라 휘몰아쳐도 굴함없이 나아간 불패의 대오의 진두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서계시었다.

어제날 같길 몰라 방황하던 열혈청년들이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겨 불굴의 투사로 천위전사로 자라났다.

태양, 봄, 사랑, 그 온갖 따사로움속에서 피어나는 만물의 소생과 같이 제나름의 신조가 있고 주의주장이 다른 각이한 계층의 사람들이 그이의 품속에서 재생의 길을 걸을수 있게 되었고 삶의 빛발을 받아안게 되었다.

그 품은 따뜻한 봄날의 대기, 그 품은 태양이었다. 한번 그 품에 안기면 비판하던 사람들은 밝은 미래를 안은 사람들로 되었고 연약하던 사람들은 가장 강毅한 사람들로 되었다.

갈림길에서 동요하던 사람들은 그 품에서 억년 드높지 않는 신념을 지니었다.

그 신념 지닌 사람들은 불속에서도 타지 않았고 철창속에서도 꺾이지 않았으며 포연탄우속에서도 죽지 않았다.

열번 쓰러지면 백번 천번을 다시 일어나 성스러운 혁명의 붉은기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불사신과 같이 나아간 사람들, 그들의 충성의 대오가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먼 혁명의 길을 걸어왔으며 오늘도 변함없이 항도성을 우러러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이어가고있다.

2. 북만원정을 헤쳐온 투사도
험한 락동강 넘어온 전사도
당중앙 받들어가는 길
걸음마다 승리로 빛내가네
수령님을 따라서 천만리
우리 당을 따라서 천만리

가사의 이 구절에서는 준엄한 항일전쟁의 불길속에서 북만원정과 고난의 행군을 비롯한 수많은 투쟁의 로정들을 헤쳐온 미더운 전위들의 모습이 집약적으로 형상되고있다. 가사는 또한 산과들이 불타던 전화의 나날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조국의 한치땅을 피로써 지킨 이 나라의 수많은 영웅전사들의 위훈을 험한 락동강을 헤쳐온 전사들의 기상을 통하여 밝혀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시대의 봉우리들에 충성의 자국들을 찍어가며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한 빛나는 력사의 년대들을 넘어 오늘로 달려온 투사들, 그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당중앙을 따라서 혁명의 길을 가고있다. 북만원정때의 그 불의 심장들을 그대로 지니고 불타는 락동강을 건널때의 그 강철의 의지를 그대로 간직하고 오늘도 래일도 수령님을 따라서, 당을 따라서 천만리 먼 혁명의 길을 가고 또 같것이다.

오늘 이 땅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긍지높은 우리 인민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주체의 조국에서 당중앙이 펼쳐준 인민의 락원에서 우리의 복반은 세대들이 자라나고있다. 하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가사는 이에 대하여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있다.

3. 우리 수령님 찾아준 조국에
우리 당중앙 펼쳐준 락원에
투쟁속에 세대는 바뀌어도
성스러운 붉은기 지켜가네
수령님을 따라서 천만리
우리 당을 따라서 천만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는 바뀌어도 혁명의 과녁은 변하지 않았다. 투쟁은 계속되며 우리 혁명은 장기성과 간고성을 띤다. 멀고 험난한 혁명의 길에서 신념으로 간직된 투사들의 맹세는 새세대들의 가슴가슴에서 더욱 세차게 불타오르고 성스러운 붉은기는 새세대들의 손에서 손으로 옮겨져 더욱 힘차게 펄럭인다.

계속하여 가사는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있다.

4. 백두밀영에 타오른 그 불빛
우리 당중앙창가에 빛나네
온 세상에 찬란한 그 빛발은
인민들이 나아갈 길 밝혀주네
수령님을 따라서 천만리
우리 당을 따라서 천만리

눈내리는 수림속에서 나아온 전령병이 총잡고 지켜섰던 백두밀영의 불빛, 그 불빛아래서 위대한 장군님 밝히신 밤은 몇천몇만밤이던가. 일제를 격멸할 위대한 작전이 거기서 구상되고 조선의 미래가 거기서 밝아왔다.

가사는 백두밀영에 타오르던 그 불빛이 우리 당중앙창가에 빛나고있다고 노래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이 오늘

우리 당의 현명한 정도에 의하여 더욱 빛나게 실현되어나가고있는 현실을 형상적으로 힘있게 화인하고있다.

은 세상에 찬란한 당중앙창가의 그 불빛, 참으로 그것은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혁명의 등대이며 투쟁의 기치이다. 그 빛발아래 인민의 락원이 일떠서고 주체조선의 위용이 온 세상에 과시되며 그 빛발 찬란한 곳에 자주화의 세찬 흐름 대하처럼 굽이치고 인민들은 그 불빛 우러러 충성의 맹세를 심장깊이 새긴다.

이것이 이 가사의 4절에 반영된 심오한 사상정서이다.

우리는 보다 승화된 가사의 이러한 사상감정을 안고 5절의 내용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 시적감정은 더 고조되며 위대한 진군의 발구름소리는 더욱 우람차게 하늘땅을 진감한다. 수령님을 따라서 천만리 우리 당을 따라서 천만리 그 준엄하고 영광에 찬 혁명의 길에서 우리의 대오는 백배천배 강력해진다.

5. 당의 의지로 폭풍을 헤치며
백전백승의 대오는 나간다
제국주의아성을 짓부시며
투쟁속에 새시대 개척한다.
수령님을 따라서 천만리
우리 당을 따라서 천만리

우리 인민이 지닌 힘의 불패성, 우리 인민이 간직한 창조적 지혜와 열정 그 위력, 그 높이는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담대한 우리 당의 신념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당의 의지로 혁명의 폭풍을 헤쳐나가는 거기에 있다.

수령님과 당과 인민의 꿋을래야 꿋을수 없는 혈연적련계, 수령과 당과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의 장엄한 시위, 이 힘, 이 위대한 진군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이 불패의 통일단결, 이 위대한 진군앞에는 극복 못할 난관이 없고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세계의 모든 대륙들에서는 식민주의철폐가 부서져나가고 밀뿌리채 뒤흔들리기 시작한 제국주의세계는 아우성친다. 바야흐로 자주화된 새세계가 도래하고있다.

가사는 이와 같이 주체시대,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새시대가 다름아닌 우리 당의 신념, 우리 당의 의지에 의하여 개척되고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인하고있다.

6. 가는 앞길엔 노을이 불타고
천만심장엔 충성이 불타네

우리 당을 따라서 천만리
대를 이어 따라갈 천만리

가사의 마감절인 6절에서는 주체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장엄한 진군의 앞길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며 노을이 불타는 공산주의 불언덕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인민의 천만심장들엔 충성의 일념만이 불타고있다는것을 높은 시적형상으로 감명깊게 노래하고있다.

세월이 흐르고 하늘땅 변해도 이 세상의 끝까지 우리 당을 따라서 대를 이어 영원히 가고 또 가리라는 우리 인민의 충성의 결의가 참으로 격조높이 노래되고있다.

수령님을 따라서 천만리 우리 당을 따라서 천만리 실로 그것은 혁명의 천만리, 영광의 천만리, 충성의 천만리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시대 인간들의 정신세계에서 그 정수를 이루는 사상감정을 높은 형상으로 시화한 이 가사의 커다란 성과가 있다.

총체적으로 이 가사의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향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장엄한 진군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혁명의 어떤 로정들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가, 당의 정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혁명의 앞길은 또 얼마나 락관적이고 양양한가 하는것을 뜨거운 열정과 높은 시형상으로 밝혀낸데 있다.

우리 당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핌속에서 창작완성된 가사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는 그가 달성한 높은 사상예술적성과로 하여 우리 가사문학발전에서 귀중한 창작적경험을 주고있다.

이 가사의 사상예술적특징에서 중요한것은 시적형상으로 안받침된 그의 높은 정치성에 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가르친바와 같이 예술은 정치에 복종되어야 한다.

혁명을 더 잘하고 건설을 더 잘하도록 사람들을 조직동원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이 우리 문학예술의 사명이다.

이러한 정치적사명을 달성하여야 할 우리 문학예술에서 정치성을 높이는것은 필수적이다.

가사는 무엇보다 우리 인민들에게 혁명적수령관을 세워주는데 힘있게 이바지함으로써 그들이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높은 정치적자각과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가사의 정치적영향력은 또한 수령과 당과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의 위력을 깊이있게 형상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정도를 받으며 혁명하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잘 보여준데서 높이 발휘되고있다.

이러한 사상정치적내용의 풍부성으로 하여 가사는 시적이면서도 사상적내용이 풍부하게 되어야 한다는 주체적문예리론의 요구를 원만히 구현하고있는 작품으로 될수 있었다.

가사가 이룩한 중요한 사상예술적성과의 하나는 또한 그것이 하나의 훌륭한 시로 되고있는데 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가사를 시화한다는것은 세련된 시형상속에서 생활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정서가 풍부하게 흘러넘치게 한다는것을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가사를 시로 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시인의 뜨거운 열정과 정서에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 가사의 생명은 시인의 뜨거운 열정에 의하여 담보되고있다. 그 열정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따라 천만리 먼길을 가리라는 우리 인민의 높은 시대적감정과 혁명적기백을 자기의것으로 체험하고 받아들이고 호흡한 시인자신의 립장과 자세로부터 흘러나온것이다.

가사를 포함한 모든 시문학창작에서는 시인의 이러한 립장과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것을 떠나서는 시가 자기의 고유한 사명을 다할수 없다.

아무리 현란한 시적표현도, 시어의 아름다움도 그 열정과 정신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설사 정치적표현을 쓴다 해도 시인의 열정이 뜨거우면 그것이 오히려 은을 낼수 있다. 정치적표현을 피하는것으로써 시형상을 높히려는것은 시의 본질을 모르는데서 오는것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이 가르치고있는바와 같이 정치적표현을 써도 그속에 시인의 열정이 담겨져있고 형상이 시적으로 되었을 때에는 강한 정치적호소성과 설득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다. 이 가사가 시로 되게 된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가사의 사상예술적특성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가사가 사상감정이 뚜렷하고 표현이 간결하면서도 뜻이 깊게 된것이다.

이 가사는 우리 혁명의 역사적로정들을 설명하고 라렬하지는 않으면서도 모든 풍부하고 다양한 생활적내용들을 다 감수하고 받아들일수 있도록 짧은 형식속에 뜻이 깊게 형상하고있다.

여기에는 우리 혁명의 려명기로부터 시작하여 주체위업수행의 빛나는 래일에 이르기까지 혁명발전의 각이한 단계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시대적 특징들이 심오하게 일반화되어있다.

이러한 사정은 이 가사로 하여금 그 내용을 6개의 절에 나누어 담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가사의 내용을 3개의 절이 아니라 6개의 절에 나누

어 담은것이야말로 그 내용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형식, 가장 적합한 절구성을 탐구선택한 것으로 된다.

가사에 반영된 우리 인민의 위대한 진군의 력사는 3개의 절이 아니라 6개의 절에 담을것을 필요로 하였다.

바로 여기에 이 가사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수있는 비결이 있다.

가사를 간결하게 쓰려면 절구성을 잘 짜는것과 함께 말하려는 사상의 핵을 틀어쥐고 대를 똑바로 세우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이 가사에서 말하려는 사상의 핵은 후렴구로 쓰인 《수령님을 따라서 천만리 우리 당을 따라서 천만리》라는 구절속에 집약적으로 체현되어있다.

가사는 이 후렴구를 매 절의 마감에 반복하여 씌으로써 가사의 대를 똑바로 세우고 작품내용의 사상적지향성을 뚜렷이 하였다. 이 후렴구를 반복하여씌으로써 노래의 성격을 살리고 우리 인민의 장엄한 진군의 력사를 높은 예술적형상속에서 정서적으로 받아들일수 있게 하였다.

이 가사는 표현수법의 리용에서도 우수한 점들을 보여주고있다.

특히 대구의 수법을 옹계 리용한것은 이 가사의 예술적품위를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다.

장군별을 우리러 떠나온 길
향도성을 우리러 이어가네

.....

우리 수령님 찾아준 조국에
우리 당중앙 펼쳐준 락원에

이러한 실례들에서 볼수 있는것처럼 이 가사에 쓰인 대구법들의 특징은 그것이 단순히 해당 시행의 뜻을 명백히 하거나 운동을 조성하기 위한 형식적필요로써만 쓰인것이 아니라 철저히 시적내용의 요구에 의하여 그 내용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된데 있다.

이상에서 보는것처럼 가사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는 사상적내용이 심오할뿐아니라 예술적형상에서 높은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을 훌륭히 구현한 명가사로 될수 있었다.

가사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는 그가 이룩한 높은 사상예술적성파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해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할것이다.

선아

최상순

축축한 눈이 내리는 날이었다. 평양교외의 검스레한 들과 키낮은 나무숲과 진펄들은 얼룩덜룩 흰눈에 덮여있다. 들 한가운데에 난 한적한 큰길로 두 녀인이 시내쪽을 향하여 걸어오고있었다.

외가닥머리를 길게 땅아늘인 처녀와 젊은 부인이었다. 처녀는 무슨 노래인지 지방색이 짙은 경쾌하고 명랑한 노래를 불렀다. 노래를 설적이면 이야기를 속삭였고 이야기를 하다가는 어느새 깔깔거리며 웃었다. 이따금 짧게 한마디씩 웅대하며 걷는 녀인의 부드러운 얼굴에는 은은한 미소가 어리었다. 조국에 금방 개선하신 김정숙어머니께서 교외의 농촌리에 지도사업 나가셨다가 들어오는 길이었다. 처녀는 김정숙동지께서 데리고 나가시여 연설도 시키고 노래보급도 하계 하신 동녀맹에서 일하는 동무였다. 김정숙동지께서 문득 처녀에게 나직이 속삭이시었다.

《영애동무,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신음소리같은...》

처녀는 멈춰서서 사위를 둘러보았다. 축축히 흰눈이 녹으면서 내릴뿐 들은 고요하였다. 처녀는 상글거리며 웃었다. 그들은 그대로 걸었다. 걸으면서도 김정숙동지께서는 무엇인가 귀기울이시었다. 그러면 영애는 저만치 앞서가 뒤돌아서서 빨리 따라오시라고 밝게 소리쳤다. 시간이 귀하신 김정숙동지께서 영애를 쫓아 바빠 걸으시었다. 도시를 에돌아 흘러간 보통강하류의 작은 나무다리를 건넜다.

(또 들리지 않는가, 이상한 소리가...)

김정숙동지께서는 끝내 길우에 멎어서시었다. 눈에 덮인 들과 강반을 더듬어보시다가 그이께서는 강변으로 내려가셨다. 강은 얼어붙어있었고 드문드문 흰눈에 덮여있다. 사방을 눈여겨보시며 강웃쪽으로 올라가시다가 되돌아서서 이번에는 강아래쪽으로 걸어내려오셨다. 내려가시다가는 멎어서서 그 무슨 소리를 가려내려는듯 귀기울여보군하시었다. 분명히 신음이나 비명같은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멈춰서시었다. 물흐르는 소리가 났다. 언덕진 아래에서 강폭이 넓어졌는데 여기서 물은 얼지 않고 알릴듯말듯 안개같은 김을 피워올리며 흘렀다. 지난해에 피었던 개버들가지가 물에 늘어져있었다. 지금도 줄기는 물을 머금고있는듯하였다. 물가에 처녀 하나가 쪼그리고 앉아 얼굴을 씻고있었다. 처녀는 처질대로 처진 람루한 옷을 입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마에는 피가 말라붙었다. 허리를 굽혀 물속을 들여다보며 한손으로 이마에 말라붙은 피자국을 씻는것이였다. 몹시 아픈듯 얼굴을 다 칠적마다 마음껏 소리를 쳤다. 제 혼자인줄로 알고 거침없이 소리치는것이 분명했다. 쪼그리고 앉은 처녀의 한쪽옆에는 군대밥통 하나가 놓여있었다. 멀찌감치 벗어나서 찬찬히 처녀를 바라보고서신 김정숙동지의 얼굴에 짙은 그늘이 어리었다. 처녀의 주제가 말할나위없이 처참했던것이다.

축축한 눈길로 더듬어보시던 김정숙동지께서 처녀가 놀라지 말라고 조심히 인기척을 내시었다. 혼자인줄로 알고있던 처녀는 와뜰 놀라 손을 떨구고 일어섰다. 이쪽저쪽을 살펴보다가 강반에 서있는 녀인을 발견하고는 뚫어지게 쏘아보는것이였다.

《동무!》

마침내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심히 다가가 불쌍한 처녀를 품에 안으려고 하시었다. 뚫어지게 쳐다보는 처녀의 눈에는 불안과 공포가 짙어가고있었다. 처녀는 뻣 몸을 돌리더니 어느새 군대밥통을 쥐고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힘껏 뛰어갔다.

《동무! 아이 동무! 일없어요, 이리 오세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좀 당황하여 부드러운 음성으로 소리쳤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던 처녀는 갑자기 무엇에 걸렸는지 풀썩 주저앉았다. 처녀를 달래려고 따라가며 소리치시던 김정숙동지께서도 그만 《저런!》 하고 외마디소리를 중얼거리며 멎어서시었다. 주저앉은 처녀는 곱지 않은 눈길로 녀인을 쳐다보더니 다시 뛰기 시작하였다. 군대밥통 떨군것은 줏지도 않고 달려갔다.

《동무, 이리 오세요! 그런게 아니예요. 이리 오란데두...》

처녀를 부르시던 김정숙동지의 안타까운 음성으로 혼자소리처럼 잦아들고말았다. 처녀는 필사적으로 달려갔다. 한껏 달려가다가 뒤흔 돌아서서 잘 따라오지 못하는 녀인을 잠시 쳐다보고는 좀 천천히 달려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처녀가 버리고 간 밥통을 떨리는 손으로 쥐어드시었다. 처녀는 벌써 도시의 거리쪽으로 사라져갔다. 큰길우에서서 바쁘신 김정숙동지를 기다리던 영애는 그이를 찾아내려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영애를 보시고도 물끄러미 군대밥통을 내려다보실뿐 말쑥이 없으시었다.

《왜 그러세요? 그건 뭐예요?》

《허름한 옷을 입은 처녀가 어디서 돌에 맞았는지, 강물에 얼굴을 씻고있었어요...》

《그래요?...》

김정숙동지의 나직한 말썬에 영애는 눈을 내리깔았다.

《불쌍한 처녀가 나를 무서워하며 정신없이 도망쳤어요. ... 동무또래같애.》

김정숙동지께서는 놓쳐버린 처녀의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계시었다. 노래를 부르며 밝게 소리치던 영애의 얼굴에도 그늘이 비꼈다.

《이젠 가십시다. 저녁때가 되여웁니다.》

영애가 김정숙동지께 권하였다. 그이께서는 처녀가 버리고간 군대밥통을 손에 쥐고 강변을 걸어 나오셨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따금 한쪽발을 절었다. 처녀를 뒤쫓아 뒤흔적에 접질리운것 같았다. 성기게 내리던 축축한 눈은 어느때부터인가 멎고 서쪽의 아득한 재빛 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하였다. 거리에 들어섰다.

《영애동무. 동무도 혹시 그 처녀를 본적 있을가. 동무처럼 머리태가 길고 키가 훨씬하고... 얼굴이 무척 아름다운 처녀예요.》

뜻밖에도 김정숙동지께서는 지금까지도 놓쳐버린 처녀의 일을 생각하고계신것이였다. 영애는 잘 모르겠다고 조심스럽게 대답하였다.

《그럴수 있지. 이 넓은 평양바다에...》

김정숙동지의 음성은 시름겹게 들리었다.

...저택에 돌아오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오늘 교외의 농촌리에 나가 인민들의 생활형편도 알아보시고 녀맹사업도 지도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으로 총화해보시었다. 책상앞으로 다가가시던 김정숙동지께서 갑자기 발목이 시큰하여 주저앉으시었다. 처녀를 따르시다가 발목을 접질렀던 것이다. 저를 해할가봐 불찌같은 눈으로 바라보던 허름한 옷을 입은 처녀의 모습이 다시금 진하게 떠올랐다. 처녀가 얼마나 수모를 받고 마음이 이지러졌으면 저를 동정하는 사람조차 멀리했으랴싶은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래일 일하셔야 할 일정을 더듬어보시었다.

.....

3. 방직공장탁아소를 해별이 잘 드는곳으로 옮겼는가 다시 나가볼것.

4. 연극단배우들을 찾아가볼것.

5. 로야령에서 회생된 최동무의 아들을 찾는 문제 추진시킬것.

6. 경위대원들의 실탄사격을 위한 예비훈련조직을 했는가 알아볼것.

.....

래일도 계획하신 일이 많으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오늘 보통강가에서 만났던 처녀를 시급히 찾아보시기 위해 되도록 빨리 시간을 짜보시려고 골똘히 생각을 더듬으시었다. 이름도 주소도 모르니 이 넓은 도시에서 처녀를 찾으려면 무척

많은 품이 들리라는 생각이 드셨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사업을 다그치셨다.

✕

아침에 김정숙동지께서는 시너맹에서 요사이 녀맹원들을 받아들이는데 편향이 생긴것 같아 거기에 가보시려고 일찌기 저택을 나서시었다. 바람은 그리 세차지 않았으나 추운 날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작은 언덕을 내려 단층집과 자그마한 2층집들이 어우러져 랑옆으로 늘어선 큰 길에 이르시었다. 길 건너편쪽에 무슨 일이 있는지 총각아이들이 시시덕거리며 모여들고있었다. 그들보다 좀 더 앞쪽에 한 처녀가 고개를 수그리고 걸어갔다. 처녀는 아무데도 바라보지 않고 그저 부지런히 걸었다. 총각아이들이 혹시 그 처녀를 돌려주느라고 그러는지 몰랐다. 처녀는 사내아이들과 맞다들리기전에 자연스럽게 멀어지려고 초조히 서두르는것 같았다. 아이들은 점점 처녀가가이로 다가갔다. 가면서 저희들끼리 뭐라고 가만가만 소리치고 웃고 하였다. 갑자기 처녀가 꺾 돌아서서 고개를 소곳한채 사내아이들을 바라보다가 아무말 없이 다시 돌아서 걸어갔다. 그러자 아이들은 더욱 성수가 난 듯 처녀의 뒤에서 저희들끼리 밀려왔다 밀려갔다 하면서 여전히 뭐라고 소리치고 웃고 하였다. 처녀는 모르는척하고 걸어갔다. 아이들은 떨어지지 않고 그냥 따라가며 시끄럽게 굴었다. 다시금 처녀가 꺾 돌아서더니 이번에는 어찌자고 총각아이들이 따라오는 방향으로 맞받아 걸어갔다. 고개를 들고 독을 풍기며 아이들의 한복판으로 서서히 걸어오는것이였다. 아이들이 무춤거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마주오는 처녀를 자세히 바라보시었다. 홀쏘 패인 키에 다 해진 옷을 입고 사납게 곧추 걸어오는 처녀는 김정숙동지께서 그리도 안타까이 찾으시던 바로 그 처녀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가슴이 뛰는것을 느끼시며 황황히 길을 건너가기 시작하시었다. 어디에선가 한 총각아가 처녀의 앞으로 돌덩이처럼 달려와 멎어섰다. 처녀가 멈춰서서 그 애를 마주보았다. 총각아이는 그리 큰축은 아니였으나 눈꼬리가 들리고 박달같이 생긴 아이였다. 그 애는 처녀앞에 두손에 모두어쥔 무릎을 내밀었다. 받으라는것이였다. 처녀는 입을 꼭 다물고 그대로 그 애를 바라보았다.

《자! 받으세요!》

천연스러운 총각의 얼굴표정은 그것이 틀림없는 진심으로 보였다. 처녀의 눈앞에는 웬일인지 끼니를 굶은채 꼬박이 기다리고있을 어머니의 불쌍한 모습이 진하게 떠올랐다. 처녀는 눈을 꼭 감았다.

《자요! 어서!!》

총각아가 재촉하였다. 눈을 뜬 처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을뿐 여전히 손을 내밀지 않았다.

아이들이 다가오고있었다. 얼굴을 바라보기만 하던 처녀는 끝내 눈앞에 내민 손은 거들떠보지 않고 콧코이 지나갔다. 순간 총각은 손에 쥐고있던것을 걸어가는 처녀의 발밑에 꽂 던졌다. 처녀의 발치에서 거뒀한 무엇이 확 헤어져뿌려졌다. 삶은 고구마껍질이었다. 처녀는 가던채로 잠시 멎어섰다가 무엇이 묻기라도 했을가봐 그러듯 허름한 옷의 아래도리를 탁탁 털었다. 그리고 곧장 걸어갔다. 처녀의 등뒤에서 불시에 총각의 웃음소리가 높이 돌리었다. 처녀의 얼굴은 수치에 빨갛게 불타던 나머지 까맣게 변해버리었다. 처녀는 그대로 걸어가다가 그래도 그냥 갈수 없는듯 돌아서서 사내아이들을 쏘아보았다. 싸늘한 땀기를 풍기는 표표한 그 얼굴에는 독한것이 스며있었다. 사내아이들은 잠시 아무 소리없이 신비하기라도 한듯 처녀의 얼굴을 바라만 보았다. 처녀는 입을 꼭 다물고 돌아서서 천천히 거리로 걸어갔다. 등뒤에서는 다시금 총각아이들의 높은 웃음소리가 들리었다. 까만 두루마기에 은백색의 목도리를 두른 어떤 중년녀자가 마주 걸어오다가 처녀를 보고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며 멀리서부터 피해갔다. 이것들은 잠시사이의 일이었다.

김정숙동지께서 뒤설레는 마음을 자제하시며 길건너에 이르시였다. 멀어져가는 처녀와 웃어대던 총각아이들을 번갈아 바라보시던 김정숙동지께서 처녀를 찾으시려던 생각은 다 잊으신듯 아이들쪽으로 가시였다. 땅바닥에서 총각아가이 뿌려던진 고구마껍질을 보신 김정숙동지의 안색은 대번에 엄하게 흐려지시였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냥 처녀를 줄줄 따라가며 온 거리가 들리도록 거지라고 큰소리로 놀려주지않는가.

(저 애들이!...)

김정숙동지께서 좀 당황하시고 참을수 없으시여 아이들을 소리쳐부르시였다. 그러나 그 애들은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고 떠들었다. 아이들의 소리가 높아지자 처녀는 그만 천천히, 더욱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하였다. 지곳은 아이들의 놀림소리는 듣지도 못한듯 태연히 걸어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짓밟히우는 존엄을 지켜보려고 간신히 퍼들거리는 가냘픈 뒀을 보는것만 같으시여 가슴이 찢기는듯 괴로우셨다. 억이 막혀 바라보고서신 김정숙동지의 얼굴에서 슬픔인지 분기인지 아니면 그것들을 함한것인지 알길없는 깊은 마음이 내비치여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았다.

김정숙동지께서 흐트러진 마음을 건잡기 힘들어하시며 다시금 총각아이들을 부르시였다.

멀리 간 처녀가 흘금 돌아서서 아이들과 녀인을 잠시 눈여겨보다가 저쪽 끝목으로 사라져갔다.

눈내리는 날에 집을 찾아 걸으시느라고 신발이 다 젖은 김정숙동지께서 처녀의 오두막앞에 이르시였다. 주인을 찾았으나 안에서는 빈집처럼 대답이 없었다. 다시 찾으셨을 때에야 겨우 알아듣게 가냘픈 대답소리가 들리었다. 환자가 있는 거라고 직감하시며 김정숙동지께서 문을 열고 들어갔다. 머리가 파뿌리같은 체소한 로인이 아래목에 누워있었다. 로인은 우리 집에는 몇년이 가도 찾아오는 사람하나 없는 집인데 누군지 잘못 찾아온거라고 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름을 모르시니 가지고오신 처녀의 군대밥통을 내뒀었다. 그제야 로인이 일어나 앉았다.

《어머니, 거리에서 맥의 따님을 보았겠습니까. 어떻게 사시는지 보고도싶고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을가 해서 찾아왔습니다.》

로인은 김정숙동지의 모습을 이윽히 바라보더니 아래목으로 자리를 권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 로인을 자리에 눕게 하시였으나 어쩐지 로인은 어려워하면서 눕지 않았다. 김정숙동지께서 살이 빠진 로인의 손을 쥐여보시며 물으시였다.

《어머니, 어디가 편치않으십니까?》

《...그저 마음이 아파서 그러지요... 시름시름 않습니다.》

어머니는 알릴듯말듯 채머리를 흔들었다. 설명없이도 오두막안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충분히 말해주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측은한 눈길로 로인의 모습을 더듬으시였다.

《어머니,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자책에 잠기신듯한 녀인의 나직한 말씀에 어머니는 어린애처럼 마음이 해퍼져 아무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였다.

《어머니, 고향이 어디십니까?》

김정숙동지께서는 로인의 손을 잡으신채 물으시였다. 로인은 젊은 녀인이 하도 인자하시고 다정하시여 인츰 마음을 터놓고싶어졌다.

《원래 강원도 통천에서 살았습니다. 돈벌러 간다고 평양으로 떠난 내 아들이 해가 바뀌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슬하에 하나뿐인 아들을 찾아 먼길을 왔더니 생때같은 내아들은 왜놈건설관에서 사고가 나서 먼저 가버렸습니다. 난 미친년같이 정처없이 거리를 떠돌아다녔지요. 어떤 날은 온종일 우두커니 대동강가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었습니다... 선아가 나를 불쌍히 여겨 돌봐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미 내 아들을 따라 가버렸을겁니다...》

로인은 질척한 눈곱을 훔치였다.

《아, 그렇게 사시는 사이군요...》

김정숙동지께서 혼자말씀을 하시였다.

《남이래도 선아는 내 아들보다 낫습니다. 고운 체내가 나때문에 별별 고생을 다하지요... 밥도 빌구. 수모두 반구, 힘한눔한테 속아두 보구...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기라도 했으면...》

로인은 그만 서러워져서 목이 메어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 로인을 자리에 누우시라고 권했으나 종시 눕지 않았다. 오랜만에 마음을 나눌수 있는 이가 생긴것이 그저 좋은 모양이었다.

《선아는 마음이 비단같은 처녀입니다. ... 어쩌다 돈이 생기면 내 약값으로 다 쓰고 저는 굶고... 체네가 하도 굶고 순직하니까 어떤때는 나쁜놈들이 동정을 하며 도와주겠다고 속여서 데리고가지요. 고마와서 따라갔다가 문가에서 도망쳐와서는 슬피슬피 울니다. 그래서 선아는 남을 잘 믿지 않습니다. 동정하는 사람은 더구나 믿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심부터 한답니다. 고운 체네가...》

로인의 이야기를 듣고있는 김정숙동지의 얼굴에 짙은늘이 어리었다. 그리고 안타까이 찾으셔도 달아만 나던 처녀의 일이 이해가 되시여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로인은 처음 만나기는 했으나 인정을 나누고싶은 녀인에게 생각나는대로 이 얘기 저 얘기를 자주 하였다.

《굶은 체네가 밥을 비는것이 안되어서 하루는 내가 거리에 나섰드랬습니다. 거리에서 아이놈들이 줄줄 따라오며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선아가 네거리에서 이팔을 보고 달려와 내 팔을 붙잡아 끌고 집으로 와서는 다시는 거리에 나를 내놓지 않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듣기가 고통스러우시었다. 거리에 나선 처녀가 불쌍하다고만 생각했더니 어질고 착한 이들에게 안겨진 불행은 몇배로 더 큰 것이었다. 가슴은 무엇에 얻어맞은것처럼 무거우셨다. 인민의 나라를 세우자고 피흘려 싸웠건만 아직도 이 거리에 지난 사회의 흔적이 남아있어 김정숙동지의 가슴을 무척 아프게 하였다.

《처녀는 고향이 어디입니까?》

김정숙동지께서 다시 물으시었다.

《원래 평양근방에서 살았답니다. 중국 어딘가로 쫓겨갔는데 거기서 부모를 다 잃었다고 합니다.》

《부모를 잃은 처녀였군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불쌍한 처녀의 생각에 잠기시며 혼자 말씀을 하시었다. 선아가 부득불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되게 된 모든 사연이 심분 리해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서시여 부엌으로 나가시었다. 자그마한 가마안은 음식을 끓인 흔적이 없이 싸늘했다. 벌써 몇번째 끼니를 건넜는지 알길이 없었다. 그릇들이 한두개 있는것마저도 싸늘하였고 그것들은 가난에 어울리지 않게 깨끗이 거두어져있었다. 밖으로 나와보셨다. 오두막을 감싸줄만한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뜻밖에도 구석구석에 처녀의 마음이 기울어져있어 그것이 김정숙동지의 눈부리를 아프게 찔렀다. 부엌문앞에는 자그마한 장독대가

있는데 어디에서 주어왔는지 새알처럼 곱게 생긴 깨끗한 차돌들을 깔았고 그밑에 바싹 돌아가면서 키낮은 작은 꽃을 심었던 흔적이 서글프게 남아있는것이였다. 찢어지는 가난속에서도 깨끗한 마음만은 아주 숨겨버리지 않고 남모르게 피곤했다고 생각하니 그것이 더욱 가슴피로우시었다.

(누가 이런 처녀를 거지라고 함부로 수모하는가...)

김정숙동지께서는 방에 들어오시여 급히 작은 종이쪽지에 주소를 적으시었다. 나라가 해방되었으니 이제 잘살게 된다고 로인을 위로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바빠서 처녀가 돌아오기를 더 기다리지 못하고 가신다고 하시면서 선아가 들어오면 꼭 이 주소로 찾아오게 전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남기시었다. 그리고 잊을수 없는 오두막에 마음을 남기신채 떠나시었다.

저녁에 오두막으로 돌아온 처녀는 선뜻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당가에 멎어섰다. 빈손으로 돌아온것이였다. 어머니에게 죄를 진것 같아 어스러진 밖에 그저 서있으려니 안에서 로인이 소리쳤다.

《선아 왔나?》

몹시도 반기는 음성이다. 온종일 기다리다가 밥을 가져왔으려니 하여 저리도 반가와하리라 생각하니 가슴이 미여지는것 같았다.

《추운데 어서 들어오지 않구.》

선아는 미안한 마음을 안고 시름에 잠겨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가 오늘은 눕지도 않고 앉아 기다리고있었다.

《어머니, 빈손이에요.》

선아는 사죄하듯 어머니곁에 살뜰히 가앉았다. 어머니는 선아의 손을 더듬어 꼭 쥐었다. 그러는 로인의 눈빛이 빛났다. 선아를 위로하느라고 그러는 모양이다.

《어머니...》

살뜰히 불러놓고도 선아는 말을 못했다. 어머니는 선아의 부름소리는 듣는지마는지 제말을 했다.

《오늘 우리 집에 귀인이 오셨댔다. 어떻게나 다정하신분이신지... 내 손이랑 등이랑 다 만져보시더라.》

선아는 쳐다보지 않고도 어머니의 질적한 눈곱에 눈물이 맺힌것을 알았다.

《선아를 기다리며 앉았다 가셨다.》

(나를요?)

선아는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어머니는 녀인을 집을 찾아 애쓰느라고 신발이 다 젖으셨더라고 했다.

선아의 얼굴에 의혹이 짙어갔다.

《거리에서 선아를 보셨다고 해. 도와주시겠다 하더구나. 선아가 돌아오면 꼭 보내라고 하셨다.》

어머니 얼굴은 여전히 밝았다. 선아는 입술을 꼭 다물고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강변에서 만났던 그 녀인이 틀림없었다.

《선아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더라. 어떻게 지내왔는가.》

그 녀인이 대체 누구인데 집까지 찾아 따라다니는지 알길이 없었다. 어쩐지 가슴이 어수선했다.

《그래서 어땀어요?》

《다 말해줬어.》

《건 왜 다 말해줘요.》

《친절히 물으시더라.》

어머니는 선아가 좋아하지 않으니 혹시 자신이 잘못하지나 않았는가 싶어 시무룩해졌다. 선아는 방바닥을 내려다보며 오래도록 잠자코 앉아있었다. 의혹만 짙어갔다. 모든것이 싫었다. 갑자기 생각난듯 어머니는 품에서 착착 꺾어접은 종이 쪽지를 찾아서 선아에게 주었다. 그 녀인이 집주 소라고 하면서 적어주고 가겠다고 했다. 꼭 거기로 찾아오라고 당부하고 가겠다고 했다. 선아는 착잡한 마음으로 그것을 풀어보았다. 푸른색 잉크로 짙게 두줄을 썼다. 쉬운 글자들을 대충 알고 있는 선아는 한참을 걸려 그것들을 읽어보았다. 평범한 주소에 평범한 이름일뿐이었다. 선아는 종이쪽지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그것을 한쪽으로 밀어버렸다. 온종일 밖에서 언 몸이 녹는지 추웠다. 그는 아궁앞으로 내려가 군불을 때기 시작하였다. 웬일인지 잊으려고 해도 그 녀인에 대한 생각이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아니다.

이 세상에 불행하고 약한 사람을 제일처럼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 있었든가. 어디에 진실이 있다고. 찾아가지 않을테다.)

선아는 이튿날에도 그 이튿날에도 찾아가지 않았다. 묵묵히 거리로 나갔다가 들어오군하는 처녀의 얼굴에는 시름만 짙어갔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날을 해종일 아무데도 나가지 않았다. 그러면 측은히 바라보던 어머니가 조심히 권고하였다.

《그이를 찾아가보지 않으려? 거짓말을 할 사람같지는 않던데...》

어머니는 선아의 마음이 돌아서기를 바래 많은 생각을 하다가 간절히 말하는것이였다. 선아도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있었다. 하지만 제마음과 다른 소리로 어머니를 위로할수는 없었다.

《어머니, 세상일이 어디 그렇던가요. 우리는 겪을대로 겪어왔지요. 이제 더 내발로 찾아다니며 가슴아픈 일을 당하고싶지 않아요.》

선아가 고집을 쓰니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선아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선아는 자기가 어머니에게 너무도 가혹한 소리를 한것은 아닐까 생각되어 가슴이 쓰리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권고를 받아들일수 없었다.

×

아침에 선아는 어머니의 숨결이 들리지 않는데 놀라 일어났다. 떨리는 손길로 황황히 어머니의 가슴을 풀어헤치고 뺨뺨 마른 심장에 귀를 대었다. 가냘픈 박동소리가 가슴을 허벼냈다. 선아는 입술을 사려물고 거리로 나섰다. 사람들이 자주 쳐다보았다. 그는 눈을 내리깔고 서둘러 거리로 걸어갔다. 무엇이든 좀 바빠 구해야 했다. 초조한 마음으로 경황없이 걷던 처녀는 문득 어느 길목에 이르러 몸을 부르르 떨었다. 아이들이 뽕겨나와 소리치며 놀려주던 길목이다. 허둥지둥 떠난 것이 그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왔다. 처녀는 그 무엇이 발목을 그러당기기라도 한듯 떴어서 다시금 몸을 떨었다. 어데선가 금시 아이들의 웨침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같아 가슴이 옥죄여들었다. 그는 불안스러운 마음을 안고 눈살이 찡뻛해져서 어서 이 거리를 벗어나고싶은 마음에 바빠 걷기 시작하였다. 기다렸던 아이들이 따라왔다. 선아는 몸서리를 쳤다. 쏘아보는 처녀의 눈에서 불씨가 튀어나왔다. 그런데 아이들은 소리치지도 도망치지도 않고 가까이 따라왔다. 처녀는 독을 뿜으며 모르는척하고 걸었다. 어떤 일인지 아이들이 더욱 가까이 따라오고있다. 처녀는 길우에 떴어서서 아이들을 맞받아보았다. 한 아이가 매섭게 구는 처녀를 타하지 않고 불쑥 소리쳐물었다.

《아지미. 집이 어디야요?》

(집은 무슨 생똥같은 집인가. 오늘은 별일 다보겠구나.)

처녀는 아무 대답없이 그대로 쏘아보았다. 또 다른 아이가 처녀의 곁에 가까이 왔다. 순간 처녀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다. 고구마껍질을 던지던 눈꼬리가 올라간 총각아이였다.

《그 어머니 만났됐어요? 어떤 어머니가 아지미네 집 찾았됐어요.》

부드러운 소리였다. 처녀는 말을 걸어오는 그 애가 어처구니없었다.

《.....》

《우리가 아지미 만났나해서 저녁마다 우리한테 그 어머니가 오시됐어요. 아지미 못찾아서 막 안타까와하셨어요.》

처음의 아이였다. 마음속에 뜨끈한것이 퍼지였다. 그래도 처녀는 대답을 않고 아이들을 쏘아보기만 하였다. 가슴에 뻗었던 패썹한 마음이 너무 커서였던지 말을 할수가 없었다.

아이들은 끝내 거지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다. 오늘은 아이들이 웬일인지 알수 없다. 강변에서부터 따라다니던 그 녀인이 드세찬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놓은것 같다. 어쩐지 오늘 처음으로 녀인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생활에 그 어떤 전환이 일어날것만 같은것이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처녀는 가

던 길을 되돌아섰다. 밥을 빌어야 한다는 생각은 가망게 잊어버리고 어머니에게로 가는 것이었다. 걸음보다 마음이 앞서달리었다. 선아는 밖에서부터 어머니를 소리쳐부르며 뛰어들어갔다.

어머니도 선아를 기다리고있었다. 방 한가운데는 낫선 쌀자루와 자그마한 보꾸레미 하나가 놓여있었다. 보자기안에는 선아의 몸에 맞을만한 옷 한벌이 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 선아가 찾아오지 않으니 기다리며 걱정하시다가 정 바쁘시니 자신을 대신하여 영애를 보내셨던 것이다. 선아는 한동안이나 물끄러미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마음속에 잔물결이 일었다. 그 여인을 만나봐야 할것만 같았다. 선아는 시름겹게 중얼거리었다.

《어머니, 그때 우리 집에 찾아오셨던 여인이 써주고 간 종이쪽지 있었지요?》

《주소말이나?》

《예. 난 어쩌면 좋아요. 제가 그걸 어쨌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선아는 후회와 실망에 잠겨 중얼거리었다.

《이걸말이나?》

뜻밖에도 어머니는 품에서 여인이 써주고간 그 종이쪽지를 꺼냈다. 종이는 여인이 처음 꺾었던 자리 그대로 두번 접혀져있었다. 어둡던 선아의 얼굴에 방시레 미소가 피어났다.

《어머닌 어떻게...?》

《글쎄... 버리고싶지 않더구나.》

선아는 어머니가 고마왔다. 다급히 그 종이를 펼쳐서 푸른색 잉크로 짧게 두줄을 쓴 글자들을 한자한자 다시 들여다보았다. 변함없이 평범한 주소에 평범한 이름이다. 하지만 마음은 진정하지 못하고 뒤설레었다.

《어머니! 어쩐지 좀 이상하지요? 나 인츰 좀 나갔다오겠어요.》

처녀는 손안에 종이쪽지를 꼭 그러쥐고 거리로 뛰쳐나갔다. 밖에는 눈발이 펄펄 날리고있었다. 선아는 바삐 걸어가면서 지나가고 지나오는 사람들을 가늠해보았다. 종이쪽지의 내용을 알려줄만한 사람을 고르는 것이었다. 미덥지 못한 사람에게 묻고싶지도 않았다. 술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 보냈다. 한사람을 골라잡고 부탁하였다. 그 사람은 더듬더듬 읽기는 하였으나 선아가 알고싶어 하는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처녀는 부질없이 그 사람을 불만해하며 바삐 거리로 지나갔다. 기어코 시원한 대답을 듣고싶었던 것이다. 연한 채빛외투를 단정히 입은 로인이 생각에 잠기여 천천히 마주 걸어오고있었다. 처녀는 길을 막아서서 손에 꼭 감싸쥐었던 종이쪽지를 펼쳐보였다. 그것을 들고 읽어보는 로인의 손이 알릴듯말듯 떨리었다. 그 사람은 처녀를 일별하고 다시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이윽고 그 사람은 다 해진 보잘것 없는 옷을 입은 처녀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이게 어디서 났느냐고 조용히 물었

다. 처녀는 이 쪽지를 그 여인이 직접 써주었으며 자기를 거기로 찾아오라 했다고 대답하였다. 로인은 선뜻 말을 못했다. 선아의 가슴은 두근거리었다. 마침내 로인은 모자를 벗어들었다.

《이분은 왜놈들과 싸우신 김정숙어머님이시다!

너장군이시고 신이 통한 명사수이시다!》

선아는 자기가 무슨 말을 듣고있는지 몰랐다. 하늘땅이 뒤바뀌고 가슴속에서는 우뢰가 울었다.

(그런분이시었구나! 그런분이시었구나!)

소리치는 처녀의 눈에 굵은 눈물이 맺혔다. 모자를 벗어든 로인의 머리에서 은발이 흘날렸다. 로인은 종이에 쓴 주소는 김정숙동지께서 계시는 저택이고 아무데 아무데 있으니 어떻게 어떻게 찾아가라고 자세히 일러주었다. 처녀는 로인이 자기결을 어떻게 떠나갔으며 지금 자기가 어디에 서있는지도 몰랐다. 그는 어뎡가로 달려가고있었다. (어머니, 우리 집에 오셨던 그이가 글쎄 김정숙어머님이시래요!)

처녀는 달려가면서 마음속으로 크게 웨쳤다. 그런데 발걸음은 어머니에게로가 아니라 채빛 외투로인이 가르쳐주던 김정숙동지의 저택쪽으로 가고있었다....

그때로부터 김정숙어머님의 저택 주변에는 늘 허름한 옷을 입은 처녀가 멀찌감치에서 감돌곤하였다. 눈이 펄펄 내리는 날은 고스란히 눈을 맞으면서 왔다갔다했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적으로는 어뎡가로 피해갔다가 조용해지면 또 나타나곤 하였다. 품에는 김정숙동지께서 써주신 필적이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되어있었다.

×

아침에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경위대원들의 실탄 사격장에 지도나가시기전에 선아의 집에 다녀오실 생각이었다. 하루도 잊지 못하고 기다리는 선아가 아직도 오지 않으니 어서 찾아가 만나봐야 겠다고 생각하신 것이었다. 더구나 엇저녁 한 경위대원이 허름한 옷을 입은 처녀가 얼마전부터 저택 정문밖멀리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곤한다는 말을 했는데 혹시 그 처녀가 선아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신 것이었다. 처녀가 아직도 기를 펴지 못하고 숙명처럼 짓눌리운채로 살고있는 것이 분명했다. 처녀에게 가슴이 열리도록 정신적인 힘을 주고싶으시었다. 그리고 한시바삐 새생활을 개척해가는 사람들의 벽찬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처녀를 세우고싶으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 금방 저택의 프락을 나서시었다. 정원의 거무튀튀한 나무가지들우에 흰눈이 내리어 녹으며 말며 했다. 허름한 옷을 입고 고개를 수그린채 축축히 내리는 눈발속으로 하염없는 생각에 잠기여 저택쪽으로 걸어오는 처녀가 있었다. 바쁜길을 가시려던 김정숙동지께서 프락에 몇어서시여 마주오는 처녀를 찬찬히 눈여겨보

시였다. 무슨 생각에 잠기었는지 처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저택쪽을 향하여 발가는대로 걷고있었다. 선아가 틀림없었다. 김정숙동지께서 처녀를 향하여 마주달려나가기였다. 무슨 룡감이 있었던지 처녀는 정문보초소앞에서 문득 벗어나서 고개를 들었다. 첫순간 본능과도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처녀의 얼굴에 비끼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여기까지 온것이 분명했다. 처녀의 얼굴에 점차 진정하지 못하는 마음의 설레임이 보이었다.

《선아!》

김정숙동지께서 소리치셨다. 이쪽을 바라본 처녀의 얼굴이 한순간 밝아졌다가 어느새 서글픔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감각도 지능도 다 잃어버린듯 물끄러미 김정숙동지를 바라보고있었다.

(김정숙어머니!...)

처녀는 갑자기 고개를 떨구고 가늘게 어깨를 떨며 흐느끼기 시작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 서둘러 가까이 다가가셨다. 처녀의 허름한 옷과 가냘픈 어깨와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김정숙동지의 가슴을 허벼내었다.

《선아. 네가 이제야 왔구나...》

김정숙동지의 나직한 음성은 젖어있었다. 처녀는 갑자기 몸을 지탱할수 없는듯 두손에 얼굴을 묻고 땅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쉴게 쉴게 울었다. 김정숙동지께서도 잠시 아무 말씀도 못하시였다. 처녀는 오래오래 쉴게 울었다.

《이젠 일어 나거라. 선아, 고개를 들어라.》

김정숙동지께서 애뒀한 정은 모두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시고 엄한 어머니처럼 이르시였다. 처녀는 일어서서도 울음을 그치지 못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선아를 달랠수 없으시여 잠시 묵묵히 내려다보시였다. 절기를 가리지 못하는 다쳐진 허름한 옷, 세월과 함께 버릇이 되어버린듯 번듯 들지를 못하는 얼굴... 이것은 김정숙동지께서 그리도 안타까이 보시고싶고 기다리시던 모습은 아니였다. 하지만 찾아와준것이 반갑고 고마우셨다.

경위대원들이 달려와서 김정숙동지께 시간이 늦는다고 어서 사격장에 가시자고 서둘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여 선아를 바라보시다가 뒤따라가시겠다고 먼저들 떠나라고 하시였다. 그들은 허름한 옷을 입은 처녀를 눈여겨보다가 갔다.

김정숙동지께서 선아에게 오늘은 나하고 같이 있자고하시며 얼른 저택에 들어갔다가 총쏘는 구경도 할겸 사격장에 같이 가자고 하시였다.

선뜻 가려고 안하는 선아를 김정숙동지께서 달려 데리고 떠나셨다. 눈은 그냥 내리였다.

사격장으로 가시는 길에서 그이께서는 선아의 이야기를 듣고 계셨다.

처녀는 김정숙동지께 정신없이 산속으로 쏘다

니며 꽃을 꺾고 새들을 쫓던 어린시절의 이야기며 아버지를 따라 두만강을 건드던 일, 어린 나이에 때이르게 이국땅 지주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일들을 말씀드리였다. 그러다가는 서러워져서 자주 이야기를 끊었다. 그러면 김정숙동지께서는 가끔 어머니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시며 또 다른 이야기를 재촉하셨다. 선아가 왜놈의 《대토벌》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던 이야기를 할적에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세히 귀기울이시며 생각에 잠기시였다.

《그게 어디서 있는 일이나? 1939년이 아닌가?》

김정숙동지께서는 알릴듯말듯 엄하게 물으시였다.

《그렇습니다. 그때 저는 양가촌에 있었습니니다.》

선아는 김정숙동지께서 그때 일을 알고계시는 데 놀라며 더 자세히 말씀드리였다. 김정숙동지의 얼굴에 준엄한 추억의 빛이 어리였다. ... 홀날리는 재가루, 먼 산아예까지 숨배여 오래도록 가셔지지 않은 생명체가 불에 타는 냄새... 김정숙동지의 기억에 의하면 그때 마을에서는 단 한사람도 주민이 살아남지 않은것으로 알고계셨다...

《그게 아마 마에다부대놈들이였다. 악착한놈들이였지... 선아가 용케 살아났구나...》

김정숙동지께서도 잊을수 없으신듯 추억에서 깨어나지 못하시며 혼자말씀을 하시였다. 처녀는 자기를 리해해주시는 김정숙동지앞에서 가슴속에 맺히고 쌓였던 설움과 고통을 다 터쳐놓았다. 아직은 어데에 대고 마음대로 호소할데도 울어볼데도 없던 선아였다. 홀로 조국땅으로 걸어나오던 이야기, 직업을 구할수 없어 방랑하던 이야기, 동정하는 사람에게 속아서 쫓아갔던 이야기도 다 말씀드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처녀가 때이르게 겪은 수난의 이야기들을 듣기 힘드시였다.

《잘사는 집들에서 <거지>라고 수모할적엔 죽어버리고싶었습니다.》 처녀의 피로운 호소가 김정숙동지의 가슴을 그냥 두드리고 있었다.

(선아 누가 어린 너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부모가 살아있었으면 너를 이렇게까지 처참히 짓밟히우도록 내뒹굴려했느냐...

누가 너의 부모를 빼앗아갔느냐...)

혼자서 마음속에 물어보고 대답하시며 분노에 차서 걸으시는 김정숙동지의 모습은 엄엄하시였다. 인간의 준엄과 순결하고 아름다운 녀를 무참히 짓밟고 마음에 상처를 입혀 죽음으로 떠밀어가는 계급사회의 온갖 죄악을 추호도 용납할수 없으신듯 김정숙동지의 모습은 무척 준엄하시였다. 걸음이 빨라지셨다. 눈발이 더욱 굵어져 자욱히 내리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고개를 숙이신채 얼굴앞으로 엇비스듬히 다가드는 세찬 눈발을 맞으시며 엄숙하게 걸으시였다. 어떤 일인지 김

정숙동지의 눈앞에는 눈보라치는 만주광야와 백두산의 험한 골짜기마다를 헤치고 넘으며 이런 처녀들의 미래를 지켜 먼저 간 투사들의 잇을수 없는 모습이 선히 떠올랐다. 지금도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할 귀중한 사람들이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사심없이 생명을 바치였다.

지금 김정숙동지에게는 그들이 준엄한 시련의 언덕을 넘으며 쓰러지고 피흘리면서도 소리높이 부르던 《자유가》의 억센 선율이 눈보라 자욱한 이 땅과 이 하늘을 가득히 채우며 퍼덕이는것 같으셨다. 죽어서도 못잊을 다정한 전우들의 모습이 너무도 생생히 기억에 살아있었다. 애석하게도 그들과 함께 오지는 못했어도 그들이 못다이 루고간 소원이 가슴속에 간직되어있어 마음 피로우신 김정숙동지이시였다.

이윽하여 김정숙동지께서 먼 앞을 바라보시면서 혼자 말씀을 하시였다.

《선아, 넌 왜 이제야 찾아왔느냐.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못오지. 왜 몇몇이 찾아오지 못하느냐. 네가 무슨 거지이기라도 하느냐...》

격하게 찢기던 김정숙동지의 음성은 그만 탁 흐려지고말았다. 성을 내시는 김정숙동지의 말씀이 마음을 혼드는것이여서 처녀는 고개를 폭 숙이였다. 뜨거운것이 얼굴로 젖어내렸다. 김정숙동지께서 처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말없이 걸으시였다.

...사격장에는 경위대원들로 들끓었다. 김정숙동지를 따라 먼길을 온 처녀가 다시금 머뭇머뭇하며 그들앞에 가기를 주저하였다. 경위대원들은 처음 보는 사민처녀를 그리고 김정숙동지께서 사격장에 오실적에만 아껴입으시던 보위색솜옷을 입혀 곁에 데리고 오신 처녀를 멀리서 자주 쳐다보았다. 그럴수록 처녀는 어쩔줄 몰라하였다. 주접이 들어 고개를 못들며 말을 안듣는 처녀를 김정숙동지께서는 묵묵히 내려다보시였다. 처녀는 종시 사람들앞에 가려고 안했다.

(이 처녀가 어쩌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태우는가...)

《선아, 고개를 들어요! 선아곁에 내가 있지않나!》

김정숙동지의 음성은 높지 않았으나 한없이 엄하게 들리였다. 선아는 놀라서 김정숙동지를 쳐다보았다. 노여움을 쓰시는 김정숙동지의 눈에 물빛이 어려있지 않는가. 선아는 고개를 숙이고 김정숙동지를 따라섰다.

김정숙동지께서 자리에 앉으시고 자신의 곁에 의자 하나를 더 바싹 당겨놓고 선아를 앉으라고 하셨다. 선아는 김정숙동지께서 앉으신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앉았다. 경위대원들은 자주 사격장 관람석 높은곳에 김정숙동지와 함께 앉은 처녀를 이상하다는듯이 눈여겨보았다. 그리고 수군수군 하였다.

사격이 시작되고 붉은 기발들이 날리고 사람들이 꽃송이를 안고뛰고 사격장은 흥성거리기 시작하였다. 경위대원 몇사람이 자주 김정숙동지께 달려와서 무슨 말씀인가 듣고가곤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 망원경을 들고 사격목표를 바라보시다가 그것을 선아에게 돌려주시며 보라고 하셨다. 사격결과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하여서도 말씀해주셨다.

사격은 오후의 한낮이 지나서야 끝이 났다. 경위대원 몇사람이 김정숙동지께서 계시는곳으로 다가와 사정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 총쏘시는것을 한번 보게 해달라는것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 부드러운 미소를 띄우시였다.

《다들 왔는데 나도 한번 쏘보겠어요. 오늘 나도 쏘고싶었답니다!》

...나는 선아의 뒤편으로 쏘겠어요.》

김정숙어머님께서 마침내 밝은 미소를 지으시고 일어서시였다. 경위대원은 좋아서 무슨 총을 준비시키라나 물었다. 김정숙동지께서 권총을 쓰시겠다고 하셨다. 그들이 달려간쪽에서 높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였다. 김정숙동지께서 사격위치로 가시였다. 권총을 꺼내주시고 탄력있는 몸에 탄장들을 차시였다. 저쪽에서 누군가 목표판을 새것으로 갈아놓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면서도 빠르게 권총에 탄알을 채우시였다. 그리고 곧추 편 허리에 왼손을 짚으시고

눈을 조프리시더니 권총을 쥐신 오른손을 천천히 추켜드시였다. 방금전까지도 웃으시던 미소는 씻은듯 가셔지고 얼굴에는 준엄한 빛갈이 진하게 어리였다. 천천히 들리던 김정숙동지의 팔이 어느 한순간에 뗏으면서 《땡!》 하고 야무진 첫 총성이 울리였다. 뒤이어 《땡! 땡! 땡! 따땡!》 하고 련이어 울리는 사격소리가 세차게 울려퍼졌다. 첫 탄창이 다 풀리자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느새 두번째탄창을 갈아끼우시고 또 쏘기 시작하셨다. 그 동작은 순식간의것이여서 사격소리는 아무런 공간도 없이 련이어 울리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가슴속에 서리고 영킨 분노와 피로움을 폭발이라도 해버리시듯 연거퍼 세번째 네번째탄창을 다 풀어버리시였다. 사격소리는 하늘땅을 흔들어 깨우며 힘차게 울려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새로 태어나는 누군가의 생의 노래라도 들으시듯 총소리의 여운에 잠시 귀기울이시다가 아직도 총구에 서려드는 연기를 조용히 불어날리시였다. 권총을 총집에 꽂아넣으신 김정숙동지께서 돌아서시여 방긋 미소하시였다. 총을 다 쏘고나신 김정숙동지의 온몸에는 어떤 걱정과 양양된 감정이 어려있었다. 선아는 황홀하게 아름다운 김정숙동지의 모습을 취한듯 바라보고있었다. 사람들이 목표판을 향하여 와 달려가기 시작하였다.

그제야 펄쩍 정신이 든 선아는 김정숙동지께서 쏜 목표판을 보려고 서둘러 망원경을 눈에 가

저다대였다. 선아의 몫으로 쏜신다던 김정숙동지의 말씀이 생각키우면서 처녀는 그 사격이 꼭 자기 운명의 앞길에 무엇을 알리는것만 같아 더구나 초조히 보고싶었던것이다. 그러나 이미 목표판앞에는 사람들이 짙 막아서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김정숙동지께서 선아곁으로 다가오시었다. 목표판쪽에서는 모든 경위대원들이 모여서서 한동안이나 웅성웅성하였다. 갑자기 그들이 김정숙동지께서 계시는 쪽을 향하여 웅얼인지 엄숙히들 정렬해섰다. 누가 시킨것도 아니건만 그들은 저절로 그렇게 선것이였다. 그들의 맨앞 한가운데에서 누군가 목표판을 쳐들었다. 김정숙동지께서 잠시 보시더니 선아에게 보라고 망원경을 주시였다. 목표판을 눈여겨보던 선아는 무엇인가 믿어지지 않는듯 얼굴에서 망원경을 떼었다가 또 열른 가져다대였다. 처녀의 애리애리하고 알팍한 입술사이로 《자-유-》 하고 떠듬거리며 읽는 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선아의 얼굴에 경련과도 같은것이 스치고 지나갔다. 뒤이어 숙연한 사색이 깃들었다. 사람들의 대렬앞에 높이 쳐들린 목표판에는 뜻밖에도 《자유》라는 두 글자가 새겨졌던것이다. 선아는 아직 그 글의 참뜻을, 그리고 김정숙동지께서 왜 그런 글을 총으로 쏘아새겼는지를 속속들이 리해할수는 없었지만 자기가 어떤 숭엄한 세계의 경지로 솟아오르는것만 같은 느낌을 받으며 총으로 쏘아새긴 두 글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보면 볼수록 그 글에는 김정숙동지의 분노와 간절한 기대와 포성과도 같은 웨침이 있었다. 그리고 김정숙동지께서 안겨주시는 천만금의 재물에 비할바 아니게 값있고 귀중하고 크나큰 무엇이 있는것만 같았다. 선아는 고개를 들고 목표판의 글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무엇인지 알수 없게 부푸는 가슴은 빠근하였다. 처녀의 얼굴에서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고개를 든채 손등으로 눈앞을 씻고 또 그것을 바라보았다. 선아를 보시는 김정숙동지의 마음속에도 말로서는 다 전할수 없는 엄숙하고도 간절한 하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선아, 너는 지금 무엇인가 감득하고있지만 아직은 우리의 마음을 다는 모를게다. 저 말이 간직하고있는 뜻의 깊이도 그리고 우리가 이 자유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것을 바쳐왔는지도 모를것이다. 얼마나 많은 피를 바쳤으며 얼마나 아름다운 청춘시절의 사랑을 바쳤으며 얼마나 준엄한

결사전의 불마당을 헤쳐왔는지를 모를것이다.

하지만 너는 선렬들이 찾아준 자유의 세상에서 살게 될것이며 후일에는 그 모든것을 깨달으며 네가 바로 그것을 지켜가야 할것이다...

선아. 너는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너희들의 미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사람들에게 대하여 생각해본적 있느냐. 자유. 그것은 너무나 값높은것이다. 그것은 가장 신성한 사랑이나 남을 위한 희생성에 비할바 아니게 성스럽고 크나큰것이다. 그래서 억압받는 사람들이 생명과 바꾸며 지켜온것이 아니겠느냐...)

선아가 눈을 습벅이며 김정숙동지의 곁으로 바투 다가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선아가 어렴풋이나마 김정숙동지의 마음과 기대를 깨닫고있는것이 기쁘셨다. 김정숙동지께서 처녀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혼자소리처럼 속삭이시였다.

《선아, 난 오늘 어쩐지 잃었던 선아를 다시 찾은것 같아...》

선아는 김정숙동지께서 자기 운명의 전환을 두고 그리도 기뻐하신다는것을 온몸으로 느끼고있었다.

모든것을 알아차린 경위대원들이 와 흠어져 이쪽으로 달려왔다. 선아를 보고싶고 축복해주고싶어서였다. 그들이 다가왔을적에 선아는 김정숙동지께서 어깨에 몸을 기대고 생그레 웃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처녀의 그 웃음이 한없이 좋았다. 하지만 이 순간에 처녀와 함께 웃으시지 못하시였다. 이 순간에 부드러운 웃음을 위하여 너무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어왔다는 저릿한 생각에 가슴이 몽클해지면서 눈앞이 뜨끈해왔던것이다.

우리의 젊으신 어머니께서 인민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 손에서 총을 놓을새 없이 얼마나 중중첩첩 간고한 투쟁의 길을 헤쳐오시였던가.

누군가 제가슴에 달았던 꽃송이를 떼어 처녀의 손에 쥐여주었다. 선아는 열결에 꽃을 쥐고 어쩔줄 몰라하며 김정숙동지의 품에 확 안겨들었다.

《동무들, 나는 오늘 참 좋아요.》

김정숙동지께서 조용히 속삭이시며 처녀의 등을 다정히 쓰다듬으시였다. 처녀의 흘러간 생애와 이제 시작될 소중한 생의 환희를 한꺼번에 생각하시며...

가사

당이어 영원히 그 손길 따르리

전병구

저 하늘 해빛처럼 빛을 뿌리고
저 하늘 별빛처럼 찬란하여라
아 어머니당이어, 아 은혜론 당이어
이 강산을 그 언제나 밝게도 비치네

비바람 헤칠 때도 함께 있었고
어두운 밤길에도 곁에 있어라

아 어머니당이어, 아 은혜론 당이어
자애로운 그 품에 우리는 산다네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충성의 한길에로 인도해주네
아 어머니당이어, 아 은혜론 당이어
영원히 그 손길 따르오리라

해방된 조국땅에 남기신 첫자욱이어

김정호

평양으로, 평양으로
출렁이는 동해의 푸른 물결도
열차를 받들어주는가
백두밀림의 풀냄새 배인 군복을 입으시고
승엄히 차창가에 앉아계시는
김정숙어머님

차창가에 스치는 조국산천
따라오는 계곡의 푸른 물
기쁨과 환희가 늘어나는 길처럼
가슴에 사무치는 전우들생각
해방된 땅을 밟으면 밟을수록
못견디게 가슴에 저머오는
잊지 못할 그 얼굴들

정든 조국산천도
이날의 감격에 설레이고
가없이 맑은 하늘도 환희를 부르는
이 강산, 이 해빛을 받으시며
어머님의 눈가엔 맑은 이슬 피어흘러

노래를 부르신다, 조용히
위대한 장군님 모시고
기어이 조국으로 가자면

그 전우들과 같이 못오시는 안타까운 마음
눈보라속에서, 총탄속에서 함께 부르시던
그날의 노래
목메여 부르고 또 부르신다

노래여, 노래여
장군님 백두의 해빛 안으시고 높이 서계시는
개선의 광장으로, 해방된 조국으로
어서 가자고
함께 가자고
밀영의 하늘가로 메아리쳐가는 노래여

이팔숲에 달이 둥근 밤
한뜸 두뜸 군복을 지으며
안아보고 뽀아보던
애틀한 꿈이 어린 땅이어서
이리도 좋은것인가
어머님께서 부르시는
노래의 빛에 싸여
강산은 밝은것인가

언뜻언뜻 안겨오는
푸른 산발 정든 초가지붕들
새납불고 복을 두드리며

밝은 얼굴들이 흐르는 마을의 동구길
이 길로 혼자 오시자고
어머님 생의 고초를 헤치셨던가

타는듯 불붙는 어머님의 마음
사랑하는 부모처자와 고향을 다 버리고
혁명전에 한몫 바치며
오늘에도 달려온 전우들
하나하나 세워주신다
그렇게도 오고싶던 해방된 이 조국땅
새납소리 흥겨운 저 동구길가에
밝은 얼굴들이 맞아주는 술푸른 언덕같이

렬차는 평양의 하늘을 향해 기적을 울리고
어머님의 노래
백두의 밀림으로 날은다
죽어서라도 조국에 오고싶다던 전우들
거기 싸움의 전구에 고이 잠들어-

아, 어머님께서 부르시는 그 노래

그 사랑에 생을 이어
살아 조국으로 돌아오는 투사들이여
혈전의 나날 헤여졌다
해방된 강산에서 다시 만나는
포옹보다 뜨겁고 열렬한
영원한 상봉의 렬차여

렬차는 가고있구나
위대한 사랑의 송가 굽이쳐흐르는 궤도우로-
영생의 삶을 안은 투사들
어머님께서 불러주시여
자애로운 그 품에 모두 안기여
아버이장군님 개선하신 평양으로

노래여, 노래가 흘러가는 천리길이어
아, 김정숙어머님께서
해방된 조국땅에 남기신 첫자욱
그 첫자욱우에
영생하는 전우들의 빛나는 모습을 새기셨구나

두만강기슭에서

신운호

달빛아래 속삭이는 물결과 더불어
정깊은 북변의 가을밤을 내 거니노라

두만강의 달밤은 아름다와
달빛안고 은물결 구슬지는 소리

기슭따라 불밝은 창가마다엔
행복의 웃음소리 울리어오네

바람결에 그윽한 꽃향기 풍겨오고
사람들 감격에 잠못들어라

그 어느 위성에 극락이 있다고 한들
유서깊은 예를 떠나 그 어델 가랴

이 좋은 락원을 안겨주시고

우리결을 떠나가신 김정숙어머님

밀림의 달밤에 부르신 노래
은물결 금물결에 실리어오는듯...

날이여, 날이여, 락원의 밤 꺼짐없는 등불이어
네 그리도, 네 그리도 고운 빛발 뿌리어준

수령님 모셔온 길에 꽃을 피우신
어머님의 밝은 미소 어려서이나!

달빛푸른 강변길로 어머님 나오실듯...
정겨운 발자욱소리 꽃숲에서 울려오네

어머님의 그 미소, 그 손길에 끌리어
내 한생 밤모르는 충성의 열정에 살리라!

월미도

리진우

저녁노을이 피빛으로 붉게 타는 수평선을 배경으로 월미도의 그림자가 우련히 솟아있다.

어둠속에 잠긴 백사장을 치는 파도, 파도, 붉게 편 해당화.

수평선위로 갈매기만 소리없이 날뿐 사방은 고요하다.

설화자의 목소리.

《월미도!

물가의 조약돌마저도 우리 인민군병사들의 위훈을 이야기하는 불멸의 섬 월미도!

섬이 불타던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멀리 왔어도 사람들의 기억속에 언제나 그 이름 사라지지 않는 조국의 섬 월미도!

조국에 크나큰 위험이 닥쳐오던 1950년 9월, 인천앞바다에 기여든 5만대군의 미제침략자들을 단 네문의 포로 막아나선 월미도영웅들의 이야기는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이 무엇을 그렸고 무엇을 위하여 자기의 귀중한 청춘을 바쳤는가?

사람들이여! 우리 이제 그때를 더듬어보자!

해안을 순찰하는 해병복을 입은 군인들이 천천히 지나간다.

섬을 배경으로 제명이 솟아오른다.

《월 미 도》

병실 희미한 등불에 잠든 해안포병들의 모습이 보인다.

아직은 포성도 울리지 않는 고요한 밤이다.

흰 취사복을 입은 해안포병 하나가 등불을 쳐들고 소리없이 걸어들어온다.

매사람의 얼굴마다를 들여다보던 그가 한 전사는 조심히 흔들어 깨운다.

《웅백이! 웅백동무! 날세, 종섭이야.》

눈을 번쩍뜨고 일어나려던 웅백이가 그를 알아보더니 눈을 찡그리며 도로 눕는다.

《왜 또 성화요? 잠도 못자게斯里.》

《좀 일어나라구. 나가자구! 일이 있네.》

《일은 무슨 일, 또 불피우게 휘발유를 달라는 소리겠지.》

면구스러운듯 뒤더수기를 굶던 취사원이 다시 입을 연다.

《글쎄 휘발유는 휘발유지만... 이번에 사정이 좀 다르다니까.》

《다르건 안다르건 안되우다.》

모포를 다시 뒤집어쓰고 눕는 웅백.

《이사람 웅백이! 내 말 좀 들어라구.》

구석에서 누구인가 소리친다.

《거기서 떠드는게 누구요?》

급히 불을 끄고 주저앉는 취사원. 그가 끈덕지게 웅백을 잡아당긴다.

《아이?!》

《쉬! 나가자구!》

《제길! 나갑시다!》

견디지 못한 웅백이가 침상에서 내린다.

히죽 웃으며 그를 따라나가는 종섭.

비내리는 취사장

웅백이가 담배를 말면서 시답지 않은 어조로 묻는다.

《그 다르다는게 뭐요?》

《내말 좀 들어보라구. 래일 우리 중대장동무가 소환돼서 포병려단 참모장으로 승급되어가게 된 단말이야.》

《포병참모장으로 간담니까?》

《그럼, 섭섭한 마음을 참을수 없거던. 그래서 내 송별식사경 특식을 만드는중인데 순대국을 할라니 나무가 온통 비에 젖질 않았겠나. 그러니 한 두어서너리터만 좀 달라구...》

《저 마사진 별장마루를 뜯어때구려.》

놀란듯 일어서는 취사원.

《허허 큰일날 소리! 전번에 몇장 뜯어냈다가 중대장동무한테 혼이 났어. 미국놈들이 파괴하는 것만도 모자라서 아바이까지 뜯어내는가구 펄펄 뛰더구만. 다시 한번 그런짓을 했다면 군사재판에 넘기겠다네...》

그가 곁에 다가앉으며 능글맞게 이야기한다.

《자 어서!》

《포차휘발유를 뽑아쓰는건 군법에 걸리지 않는 줄 압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기동명령이 내리면 어떻게 하겠소?》

히죽이 웃는 취사원.

《흥, 기동명령은 무슨 기동명령! 전선은 저 락동강에 있네. 보라구 문화부중대장동무도 병원에 가고 없는데 중대장동무까지 소환해가는걸...》

웅백이가 벌떡 일어선다.
《어쨌든 휘발유는 꿈도 꾸지 마슈.》
《이사람 웅백이! 정 이러긴가?》
《자꾸 이러면 중대장동무에게 다 보고하겠수다.》
순간 바다쪽에서 총성이 울린다.

별장건물에 전개한 중대지휘부

한 해안포병과 이야기를 하고있던 중대장 리태훈이가 총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선다.
《런락병!》
문을 가리운 비웃휘장을 들치고 나타나는 어린 런락병 윤식.
《엣!》
《무슨 총소리인가 알아보오!》
《알았습니다.》 그가 사라진다.
다시 돌아서는 태운의 리지가 어린 얼굴, 구석에 놓인 배낭과 전투가방. 떠날 준비가 된것이다.
그와 마주앉아서 마라초를 마는 중년의 해안포병-그가 중대의 당분조장인 3포장 민국이다.
《내가 가면 나를 도와주듯이 지휘소대장을 잘 도와주시오. 중대장도 문화부중대장도 없는 데...》
《예, 알겠습니다. 근심말고 가십시오.》
급히 들어서는 윤식.
《중대장동지! 순찰병들이 바다에서 해염처 들어온 두사람을 단속해왔습니다.》
《뭐요?》
태운이가 옷을 바로잡더니 민국과 함께 나간다.

어두운 교통호로 순찰병들이 다가온다.
그들속에 섞여있는 해군사썸바람의 두 젊은이 극도로 피로한 얼굴들이다.
그들을 눈여겨보던 민국이가 앞에 선 나이트 해병을 알아보고 반가와한다.
《아니, 군관동지! 사령부에서 만났던...》
《아! 아바이요?》
민국이가 태운에게 돌아선다.
《중대장동무! 기뢰부설조성원들입니다.》
《그렇소.》
거수경례를 하는 태운.
《중대장 리태운이요.》
《기뢰부설조장 현철이요. 조용히 할 이야기가 있소.》

홀끔 병사들을 돌아보던 태운이가 말없이 안쪽을 가리킨다. 피로한 눈길로 두 군관의 모습을 바라보던 기뢰부설조원이 기진한듯 벽에 몸을 기대었다.

중대부

긴장과 근심이 어린 현철의 리지적인 얼굴. 무엇인가 불안을 예감한 태운의 눈길이 잠시 교차된다.

이윽고 현철이가 나직이 입을 연다.
《중대장동무! 준비해야겠소. 놈들의 함대가 앞 바다에 와있소.》
긴장된 침묵.
《얼마나 되오?》

《바다를 꼭 메웠소... 그놈들때문에 우리 조가 발견되고 네명이나 희생됐소.》
두사람은 잠시 말이 없다.
《담배 없소?》 현철이가 묻는다.
《난 피우지 않소.》
또다시 서로 일이 없다. 너무나도 엄청난 소식인것이다. 이윽고 찢어진 셔츠를 여미던 현철이가 입을 연다.

《그럼 난 가겠소. 저 우리 대원은 떨구겠소.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뢰원을 감시해야 하나까. 최석준이라고 정찰병출신인데 영어를 잘하오. 잘돌봐주오.》

잠시 머뭇거리던 그가 태운에게 바싹 다가서더니 간절한 어조로 속삭인다.

《이것 보오. 중대장! 놈들이 인천에 상륙하면 락동강전선이 어떻게 된다는것을 알겠지? 놈들은 평양으로 가려는거네. 이젠 이 위험을 피하기가 늦었어. 하지만 많은것이 동무들에게 달려있네. 많은것이...》

묵묵히 생각에 잠겨있던 태운이가 나직이 대답한다.

《알겠네. 우린 사실 정황이 이렇게 갑자기 급변할줄은 미처 몰랐네.》

새벽, 먼동이 트는 수평선

풀잎이 허리까지 치는 월미산마루에 선 태운. 그가 먼바다를 묵묵히 바라보고있다.

단 네문의 포와 수백척의 함선들!

닥쳐오는 전투는 그 어느 력사도 기록하지 못한 치열한것으로 될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월미도가 평화의 고요속에 잠들어있다.

풀잎을 잘근거리며 먼 수평선을 바라보는 젊은 태운의 예지가 어린 얼굴.

폭풍전야의 정적이었다.

음악이 울린다.

태운은 무엇을 보는가, 그는 이 긴장한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고있는가.

음악이 끝없이 울린다.

별장마당 식당

취사원이 기분이 좋아 음식을 만든다.

그를 재촉하는 웅백.

《아바이! 빨리 하라요. 중대장동지가 올 때가

했는데.》

《넌려 말게. 어련히...》 그가 생각난듯이 웅백을 돌아보며 눈을 부릅뜬다.

《무슨 참견이야. 휘발유 한방울 안주면서. 임잔 순대국을 먹지 말라!》

《이 아바이 봐라! 다른 사람들은 휘발유를 쥐서 국을 먹습니까?》

말문이 막힌 취사원을 보며 웃는 해안포병들.

로천식당

태운이가 군관들과 같이 들어선다.

민음어린 태운의 얼굴.

지휘소대장이 일어선다. 식탁곁에 앉아서 그를 바라보는 해안포병들.

《동무들! 우리는 오늘 중대장동무와 작별하게 됩니다. 중대가 조직되던 지난 3월부터 룡강에서 월미도까지 우리는 언제나 같이 걸어왔습니다. 중대장동무의 피타는 노력으로 우리 4중대는 항상련대의 모범이었습니다.

중대장동무! 우리는 언제나 이 영예를 고수할 것입니다.》

박수를 치는 해안포병들.

이윽고 태운이가 일어선다.

《고맙소. 동무들! ... 하지만 난 중대를 떠나지 않기로 했소.》

번쩍 머리를 드는 해안포병들. 그들의 선망에 찬 눈길.

태운의 얼굴이 격해진다.

《지금 저 안개덮인 수평선 뒤에서 원썩놈들이 여기로 몰려오고있소. 동무들! 조국은 위협에 처해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해안포병들. 그들의 얼굴에 어린 준엄한 감정들.

태운이가 계속한다.

《아직은 이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명백한것은 어떤 경우에도 중대가 월미도를 고수해야 한다는것ियो. 우리 뒤에는 사랑하는 부모형제가 있으며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평양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걱정어린 해안포병들의 눈동자들.

《만약 우리가 여기서 물러선다면 저 락동강전선에 있는 우리 동지들은 포위속에 들것이며 사랑하는 부모형제가 사는 고향마을은 또다시 무서운 참화속에 들것입니다. 이 엄숙한 시각에 나는 중대장의 임무를 다시 수행할것을 상급에 제기했습니다. 동무들! 뼈가 가루가 되는 한이 있어도 월미도를 사수합시다!》

주먹을 쳐들고 부르짖는 해안포병들.

《사수하자! 사수하자!》

포진지

해안포병들이 포를 진지에 진입시킨다.

포진지앞을 걸어가며 지휘관들에게 전투임무를 주는 태운.

《이 시각부터 중대는 전투태세에 들어갑니다. 포진지와 은폐호들을 다시 한번 검열하시오.》

《알았습니다.》

《제1소대는 월미산 동남쪽에 허위포진지를 굴설하시오.》

《예.》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포탄을 절약하는것ियो. 월미도와 인천을 련결하는 방파제는 어느 순간에 끊어질지 모르오.》

그가 정연한 포장들앞에 선다.

《1포!》

《엏!》

《철갑탄보유량 22발, 맞소?》

《맞습니다.》

《제2포, 19발!》

《그렇습니다.》

《동무들! 철갑탄을 아껴쓰시오. 그러자면 놈들을 될수록 가까이 접근시켜 단발에 명중시켜야 하오. 유선통신이 끊어지면 나는 2포에 위치하겠소. 나의 대리인은 지휘소대장동무요.》

《항공!》 하는 고탄소리.

《모두 자기 위치로!》 급히 헤어지는 지휘관들. 수평선을 덮으며 밀려오는 적기들.

치솟는 불길.

섬은 불속에 들어 몸부림친다.

흙을 뒤집어쓰는 해안포병들. 그들이 포연속에서 비행기를 사격한다.

지휘소

화력도를 보고있던 태운이 들썩워지는 흙모래에 덮인다.

그가 격분을 참을수 없어 경기관총을 들더니 밖으로 달려나간다. 교통호에 선채로 적기에 긴 사격을 퍼붓는 태운.

폭발!

급히 달려들며 소리치는 민국.

《얼드리시오!》

민국이가 태운을 짊고 얼드린다.

치솟는 불길, 화염에 덮인 진지.

지휘소

검댕이가 묻고 흙투성이된 태운이가 전화를 하고있다.

《한시간내로 파괴된 진지를 보수해야겠소. 물을 극력 아껴야겠소. 그렇소. 수도당은 완전히 끊어지고 우물은 메워졌소.》

수화기를 놓은 그가 돌아선다.

《지휘소대장동무!》

《옛!》
 《부상자들은 어떻게 했소?》
 《위생지도원 동무가 인천으로 다 후송했습니다.》
 《진지보수가 끝나면 곧 식사조식을 하시오.》
 《알았습니다.》
 《아니 저기선 왜 저렇게 떠드는거요?》

교통호

흰 해병복을 입은 어린 처녀가 걸어온다.
 땀해서 일손을 멈추고 그를 보는 해안포병들.
 지휘소에서 나오던 태운이도 놀란듯 서있다.
 불타는 섬, 온통 그슬리고 찢기운 사람들속에
 한떨기의 해당화마냥 나타난 처녀로 하여 사람들은
 눈이 부신듯하였다.
 귀엽게 미소하며 경례하는 처녀해병
 《중대장동지! 런던무전수 박영옥 중대에 배속
 되어왔음을 보고합니다.》
 《동무가!》
 얼없이 그를 바라보던 태운이가 어이없다는듯
 이 묻는다.
 《몇살이요?》
 《열일곱살입니다.》
 눈을 내려갈때 조용히 대답하는 영옥.
 그를 지켜보던 해안포병들의 얼굴에 저도 모르
 게 미소가 어린다.
 《훈련은 얼마나 받았소?》
 《전 체신전문학교를 다니다 나왔습니다. 2급무
 전수입니다.》
 《난 모르겠소. 왜 하필 동무를 여기에 보냈는
 지... 이 월미도가 아직도 유원지인줄 아는게 아
 니요?》
 잠시 그대로 서있던 영옥이가 조용히 입을 연
 다.
 《전 그걸 모릅니다. 지휘부에서는 맥아더가 5
 만대군을 끌고왔다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월미도
 를 15일까지 3일동안 교수하라는 명령입니다.》
 긴장하는 태운의 얼굴. 해안포병들이 서로 마
 주본다.
 입술을 악무는 태운.
 《3일동안이란 말이지... 연락병! 무전수를 안내
 하시오.》
 《알았습니다.》 기뻐하며 영옥의 무선기를 돌려
 메는 윤식. 《갑시다.》
 영옥 《네.》

교통호

영옥이가 윤식과 같이 걸어간다.
 《중대장동지가 무섭구만요.》
 《아니 속은 그렇지 않소. 해군군관학교 최우등
 졸업생이요. 어렸을 때부터 철도일을 했고 일본

에 가서 로동도 해왔고 나이는 젊지만 고생을 많
 이 한 분이요. 참 동문 고향이 어데요?》
 《강원도 통천이에요. 가봤어요?》
 《못가봤소. 허지만 전쟁이 끝나면 가보겠소.》
 《왜요?》
 우뚝 멈추어서며 땀해서 대답하는 윤식.
 《왜라니?... 그거야...》
 서로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리는 두사람. 커다
 란 가마를 머리위에 이고 오던 취사원이 버럭 소
 리를 지른다.
 《비키라구요! ... 아유 이게 누구야 어랍쇼. 처
 녀군대로그만.》
 무게에 눌려 간신히 머리를 들어보이며 감탄한
 듯이 혀를 차는 취사원.
 《아바이! 새로 배치되어온 무전수예요. 이따가
 한턱 쓰라요.》
 《암 쓰구말구. 동무도 뺑국을 좋아하냐?》
 《좋아해요, 아바이!》
 《그럼 됐구만. 이따 식당을 다시 전개하면 오
 라구. 특식을 대접할테니. 아마 어머니생각도 다
 잊어버릴게요.》
 짐이 무거워 숨도 제대로 못쉬면서 너스레를
 떠는 취사원이 우스워 영옥이가 깔깔거린다.
 《아 윤식이! 요것!》
 윤식은 취사원의 주머니에서 사과 두알을 꺼내
 다.
 《아이구 목이 떨어지는것 같구만.》
 황급히 달려가는 취사원.
 《취사원아바인가요?》
 《그렇소. 희극쟁이요, 뺑포쟁이구... 언젠가 우
 리 중대가 룡강에 있을 때는 탁배기예다 오이뺑
 국을 풀어먹이는통에 온 중대가 취해넘어진 일이
 있소.》
 웃는 영옥.
 《아니 어떻게요?》
 《글쎄 저 아바이가 더위를 이겨내는 새형의 음
 식이라고 대포를 놓는통에 모두 먹고는 그렇게
 됐지... 헌데 마침 런던장동무가 검열을 오게 됐
 단말이요. 우리 중대장동지는 너무 급해맞아 온
 중대를 강속에 몰아서 두시간동안이나 오리새끼
 처럼 물속을 쏘다니고서야 겨우 대렬을 지었거
 던.》
 《그래요?! 아이 참!》
 깔깔거리며 웃는 영옥.

지휘소

사색에 잠겨 방안을 거니는 태운.
 독백
 《이제 만조시간이 다가오면 맥아더의 5만대군
 이 우리에게로 달려들것이다. 전투는 가혹할것이
 다. 첫 전투를 겪는 대원들을 데리고 단 네대문

의 포로 과연 적의 공격을 이겨낼수 있을까? 이
기자면 무엇이 필요한가. 증원부대? 아니 부대에
서는 줄수있는것을 다 주었다. 하지만 너무 적
어...》

불현듯 먼 손풍금소리와 함께 부드러운 녀성의
노래소리가 포연이 감도는 월미도에 울려 퍼진
다.

놀란 얼굴로 귀를 기울이는 태운.

그가 급히 지휘소를 나선다.

산기슭

석준의 손풍금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영옥.
은 중대가 그의 노래를 듣고있다.

봄이면 사과꽃이 하얗게 피어나고
가을엔 황금이삭 물결치는곳
아 내 고향 푸른 들 한줌의 흙이
목숨보다 귀중한줄 나는 나는 알았네

그윽한 추억에 잠겨 노래를 듣는 병사들, 박수.
태운의 호령소리가 울린다.

《이건 뭐요?》

벌떡 뛰어일어나는 전사들. 영옥이가 겁에 질
려 민국의 뒤에 숨는다.

《어쨌서 중대가 허락도 없이 한군데 모여있었
소? 항공이나 함포사격을 받으면 어쩌자는거
요?》

묵묵히 서있는 해안포병들.

《중대 자기 위치로!》

모두들 급히 헤쳐간다.

《무전수동문 흰 군복을 벗소!》

《알았습니다.》

전사들을 지켜보던 태운이가 나직이 지시한다.

《3포장동문 좀 남으시오!》

민국이와 둘이 남는다.

땅우에 앉으며 입을 여는 태운.

《글쎄 다른 동무들이 그러는건 그렇다해도 당
분조장인 아바이까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폭격에 손실을 날수 있다는걸 미처 생각못했
습니다.》

《생각해야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린 수가
너무 적단말입니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민국이가 머리를 끄덕인
다.

《적지요. 적은 비할바없이 많구요. 중대장동무,
그것때문에 지금 모든 동무들이 긴장되어있습니
다. 처음으로 겪는 전투가 아닙니까 혹 떨리기도
할겁니다. 이들이 지금 저 어린 영옥의 노래에
서 고향에 두고온 어머니와 안해, 어린 동생들을
보고있다는걸 이해해주십시오.》

심각한 눈길로 그를 보는 태운. 민국이가 조용

히 계속한다.

《순결한 영옥이가 중대에 큰 힘이 될수 있습니
다. 사람들이 눈부신 그 웃음을 거울삼아 자신을
비쳐보고있거든요. 그를 통해 보이는 부모처자
들앞에서 더 용감하려고 애를 쓴단말입니다. 이
걸 어떻게 불러야 할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이 마
음이 없으면 맥아더의 5만대군과 싸울수 없다고
봅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태운의 얼굴. 이윽고 그
가 입을 연다.

《한데 주오.》

그에게 담배불을 붙여주는 민국.

태운이가 연기를 한모금 깊이 빨더니 묻는다.

《아바인 어느 학교를 다녔소?》

《학교는 무슨 학교입니까. 어려운 때 사람들의
정신을 보라는건 **김일성** 장군님의 말씀입니다.
해방직후 장군님께서서 우리 광산에 찾아오셨을 때
일부 간부들이 광산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
면서 국가파제를 수행하기 힘들다고 말씀올린 일
이 있지요. 그때 장군님께서서 우리 광산 당원들
앞에서 로동계급을 불러일으키면 이 세상에 못해
낼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설비보다 먼저 사람을
보라고, 그러면 반드시 해낼수 있다고 말씀하시
더군요.》

생각깊은 눈으로 그를 주시하는 태운.

일어서며 경례를 붙이는 민국.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예.》

교통호로 사라지는 그의 뒤모습을 생각에 잠긴
눈길로 바라보는 태운.

무전실

창턱에 놓인 해당화꽃병. 영옥이가 꽃을 가꾸
고있다.

《들어갈수 있습니까?》

《네.》

밥그릇을 들고 방안에 들어선 취사원이 능청스
럽게 경례를 붙인다.

《상등병 동지, 전사 김중섭이 식사를 가져왔습
니다.》

《야! 아바이두 참!》

그의 식사그릇을 받으며 곱게 눈을 흘기는 영
옥.

《이제 가려든 참인데.》

《식사야 제때에 해야지.》

《앉으세요.》

《어서 먹으라구. 땡국은 못가져왔어. 물이 있어
야지. 하지만 내 영옥이한테야 인심을 쓸수가 있
지.》

그가 물통에서 물을 한고뿌정도 부어준다. 고
뿌를 받아들고 해당화에 물을 주는 영옥. 땡해서

그를 보던 취사원이 머리를 끄덕인다.
 《어서!》
 식사하는 그를 대견스럽게 바라보는 취사원.
 《그런데 영육인 어떻게 돼서 열일곱살에 벌써 군대에 나왔나?》
 《저만 나왔나요? 우리 학급이 모두 동원부에 가서 한주일동안 울었더니 시끄러운지 보내주더군요.》
 절절거리며 웃는 취사원.
 《그것 참 괜찮구만. 그런데 아까 부르던 노래는 어디서 배웠지?》
 《전선으로 떠날 때 군대동무들한테서 배운 노래예요.》
 《그 노래 날 좀 배워줄수 없을까?》
 《어마나! 노래요?》
 《그럼, 내가 이래봐두 우리 중대합창에서 단단히 한몫하는 사람이야. 우리 중대장동무가 그러는데 내 목청이 아주 좋다구 하더구만. 나를 닮아서 그런지 우리 집 딸애도 군학생씨클에서 매년 1등을 했다니까... 보겠어?》
 《예.》
 취사원이 주머니에서 딸의 사진을 꺼내보인다.
 《보라구.》
 《아이 고와라.》
 《똑똑하긴 또 얼마나 똑똑하더구. 난 우리 영희를 크게 믿네. 장군님을 모시고 우리 농민들의 자식들도 한번 활짝 날아봐야 할게 아닌가.》
 딸애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흠뻑하여 웃는 취사원.
 밖을 지나던 태운이가 그들의 목소리에 멈추어 선다.
 창문밖으로 울려나오는 나직한 노래소리. 취사원이 노래를 배우고있는것이다.
 그들의 노래소리를 듣고있는 태운의 생각에 잠긴 일곱.
 안에서 취사원이 만족하여 이야기한다.
 《노래가 참 좋구만. 우리 애 얼굴이 선히 떠오른단말이야. 젠장 그 애앞에 부끄럽지 않아야겠는데.》
 《아바인 밥이나 계속하면 언제 싸워보겠어요.》
 《무슨 소릴. 이게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불속에서 중대의 식사를 보장하겠나. 몸이 찢겨 가루가 되는 한이 있어도 난 내 임무를 끝까지 해내고야말겠어.》
 불현듯 총성이 울린다.
 《적기 발견!》
 태운이가 픽 바다쪽을 바라본다.
 하늘을 덮고 밀려드는 적기편대. 월미도는 또 다시 불속에서 몸부림친다.

지휘소

태운이가 나직이 지시한다.
 《중대전투준비!》
 해안포병들이 포진지를 차지한다.
 해일처럼 밀려드는 적의 대함대. 시작도 끝도 없는 적의 함선들.
 적을 주시하는 태운의 긴장한 눈길. 뒤에서 전화수가 부른다.
 《중대장동지! 1포가 부릅니다.》
 《덤비지 말라구!》
 그가 수화기를 바꾸어지더니 엄격하게 명령한다.
 《최대한으로 접근시킬것!》
 석준이가 달려들어 온다.
 《중대장동지! 저도 싸우게 해주십시오!》
 《2포로 가오!》
 《알겠습니다.》
 쏘아지는 불비들. 포연이 감시구를 가리운다.

섬익측의 바다가

기슭으로 뛰어내리던 윤식이가 놀라 소리친다.
 《아바이, 거기서 뭘합니까?》
 그물주머니를 들고 물속에 서있는 취사원이 그를 돌아보더니 히죽 웃는다.
 《오 윤식인가? 고기잡이를 하고있네.》
 《고기잡이라니요?》
 《저기 바위밑을 좀 보라구. 폭탄에 얼이 나간 놈들이 뚱뚱 떠다니는게 보이지?》
 윤식이가 어이없어 그를 바라본다.
 《아바이 정신있어요? 이 폭탄속에 앉아서...》
 여전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꾸하는 취사원.
 《남이야 앉든서든 제가 무슨 상관인고? 나한테 내 할 임무가 있단말이야, 옳지 한개 떨어진다. 옆드렛!》
 그들이 급히 바위밑에 엎드린다.
 치솟는 불기둥.

사격하는 적함들

포진지안에서 불길이 인다.
 폭풍에 쓰러지는 전사들. 1포장이 다급히 수화기를 든다.
 《중대장동무! 어서 사격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예?!》

지휘소

모든것을 잊은듯 적들을 쏘아보는 태운의 거뼉게 그슬린 얼굴. 그가 나직이 입을 연다.
 《조금 더 접근시킬것!》
 그의 명령을 되풀이하는 전화수.
 《조금 더 접근시킬것!》

다른 포진지

포탄이 터진다.

또한 포연속에서 민국이가 흙속에 파묻힌 전화기를 파내 발전자를 돌린다.

《중대장동무! 적들이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사격하십니까? 예? 중대장동무!》

여전히 적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태운. 그가 조용히 지시한다.

《조금 더...》

전화수가 그의 명령을 반복한다.

《조금 더 접근시킬것!》

4포진지가 무너져앉는다.

가슴을 그러쥐고 쓰러지는 전사. 4포장이 수화에 대고 소리친다.

《중대장동무! 중대장동무! 왜 사격명령을 안내립니까? 중대장동무!》

그의 수화기를 빼앗아쥐고 소리치는 소대장.

《중대장동무!》

여전히 변함없이 되뇌이는 태운의 말소리.

《조금 더...》

《조금만 더 접근시킬것!》

대지는 지진한 뒤 태동한다. 태운의 모자에 흙비가 쏟아진다. 폭발 또 폭발.

더는 참을수 없어 그의 옷자락을 잡아흔드는 윤식,

《중대장동지! 이젠 쏘시다.》

《중대장동지!》

섬팡이 번뜩인다.

이윽고 태운이가 천천히 신호총을 뽑아든다. 중대사격을 알리는 총성.

《췌!》장쾌한 해안포병의 음악속에 월미도가 노호한다.

《췌!》하는 구령소리들.

《발사.》

참고 참았던 분노가 터지듯 시뻘건 불줄기들이 연이어 적함으로 날아간다.

바다가 끓고 대지가 몸부림친다.

《췌!》

《췌!》

적함들이 연이어 불벼락을 들쓴다.

포연자욱한 지휘소

전투의 희열로 하얗게 된 태운의 얼굴. 그가 부르짖는다.

《지휘소대장동무! 3포로 가시오.》

《알았습니다.》

《선두에서 두번째놈을 갈기시오. 그놈이 기함이요.》

《알았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전화수는 전화를 가지고 은폐호로 갈것! 난 2포로 가겠소. 연락병! 날따랏!》

《알았습니다.》

그들이 달려나간다.

3포진지

포탄이 터진다. 폭발. 다시 뒤흔들어나 포에 달라붙는 해안포병들.

불현듯 민국이가 흠칫한다. 그의 옆구리에 붉게 물들이는 피.

《포장동지! 아니 피가...》

《일없소... 자기 위치를! 계속 쏘시오.》

《알았습니다.》

피발이 선 눈을 무섭게 번뜩이며 부르짖는 민국. 포성. 민국이가 쓰러진다. 지휘소대장이 달려와 그를 붙잡는다.

산기슭을 내달리는 태운과 윤식.

그들이 불길을 헤치고 달려간다. 포탄구멍이어서 달려나가려는 윤식을 붙드는 태운.

《윤식이!》

폭발.

위생지도원이 부상병을 업고 온다.

《누구요?》

《3포조준수입니다.》

《은폐호로 가시오.》

《알았습니다.》

그들이 2포진지에 뛰어든다.

《동무들, 기운을 내오. 선두 구축함을 요정내야겠소.》

《알았습니다.》

그가 포사격을 지휘한다.

《포사격! 앞에 나타난 적구축함. 철갑탄!》

《조준 끝.》

《미제침략자들에게 죽음을 주라. 췌!》

불을 토하는 포. 적함이 불속에 휘감겨들어간다.

환성을 올리는 전사들.

《맞았다!》

《동무들!》

어지간히 흥이 난 태운이가 소리친다.

《좋소, 계속 쏘시오. 자기 위치를!》

사격 또 사격! 명중.

《또 맞았다!》

서로 얼싸안고 환성을 올리는 전사들.

바다가

물고기를 잡던 취사원도 만세를 부른다.

《만세! 잘한다, 잘해!》

버치에 물고기를 담고있는 취사원. 그는 물고기가 가득 담긴 버치를 옆에 끼고 기쁨에 차서 물가로 걸어온다. 불현듯 그의 등뒤에서 포탄이 폭발한다.

굳어지는 취사원의 얼굴, 순식간에 그의 등을

붉게 물들이는 피자옥, 아직도 모든것이 믿어지지 않는듯 입술을 움직이는 취사원의 선량한 얼굴.

그의 손에서 버치가 힘없이 떨어진다.

포진지

태운이가 사격을 중지하라는 신호총을 쏜다. 사격을 멈추는 포들. 포성이 몇자 바다쪽에서 어지러운 총소리와 싸이렌소리가 들려온다.

석준이가 의아해서 묻는다.

《저자식들이 왜 저래? 돌지들 않았어?》

《좁은 수로에서 서로 달아날길을 비켜달라는거요.》

적함들이 몰려돌아가는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하는 태운.

《야 포탄만 있으면 저놈들을 그저…》

《비겁한놈들, 도망치는구나!》

웃는 해안포병들. 갈기갈기 찢어진 해안포병복 포연에 그슬려 이발만 반짝이건만 모두들 승리의 기쁨에 차있다. 그들이 진지안으로 들어온다.

《중대장동지, 출출한데요.》

《나도 출출하오.》 웃으며 대답하는 태운.

《점 심때 취사원아바이가 생선국을 약속했는데…》

《그게 정말이요?》

《웁습니다.》

취사장

알뜰한 취사원의 솜씨가 알리는 식기들.

가마가 끓고있다.

무전실

구석에 누운 취사원이 눈물이 글썽해서 그를 지켜보고있는 영옥이에게 애써 웃음을 지어보인다.

《우나? … 울지 말라구… 난 이제 일어나게 될거야. 전투가 끝나면 중대장동무랑 모두 식사를 시켜야겠는데 이렇게 누워있을수가 없거든…》

《아바이! 힘든데… 말씀하지 마세요.》

《일없어… 영옥이, 이 다음에 우리 고향마을에 가보자구, 노래에서 나오는것처럼 강기슭에 있는 마을이야… 아마 지금쯤 벼가율이 시작되었을걸세. 강아래쪽으로 우리 집 논벌이 있네. 장군님께서 머슴군이었던 이 김종섭에게 주신 땅이라네…》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취사원. 영옥이가 겁에 질린 눈길 그를 지켜본다.

《내 백번죽어도 그 은혜를 다 못갚는다는건 아네만 그래도 성의만은 다하려고 했네. 우리 집 마누라도 알거야. 그게 우리 영희를 잘 키워서 내대신 장군님의 은혜에 보답하도록 해야겠는

데…》

오열을 삼키며 그의 말을 듣고있는 영옥.

《후에 그들을 만나면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를 꼭 이야기해달라구.》

《아바이!》

《…중대장동무랑… 다 무사한지… 아 목이 마르군…》

《잠간만 기다리세요.》

급히 물을 떠오던 영옥이가 흠칫 놀라 멈춰선다.

고개를 떨구고 굳어진 취사원의 얼굴.

영옥이의 손에서 물고뿌가 떨어진다. 《아바이!》 하는 그의 목메인 흐느낌소리.

지휘소

영옥이가 슬픔을 목새기며 묵묵히 밥통에 생선국을 퍼담고있다.

그의 눈물에 젖은 얼굴을 바라본 태운의 얼굴이 해쓱해진다.

취사장

부글부글 끓는 가마. 문턱에 앉아서 그 모든것을 돌아보고있는 태운의 비애에 찬 얼굴.

그에게 다가서는 지휘소대장. 그가 나직이 입을 연다.

《중대장동무! 손실이 큼니다. 1포와 3포는 직탄을 맞고 많은 동무들이 그만…》

여전히 묵묵히 앉아있는 태운.

《그리고 민국동무는 의식을 잃은채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뭐요?》

머리를 숙이는 지휘소대장.

태운이가 비분에 찬 얼굴로 바다길을 걸어간다.

그의 뒤를 따르는 지휘소대장. 한참동안 걸던 태운이가 바위결에 멈추어서더니 갈린 목소리로 입을 연다.

《중대가 전우들과 영결하도록 합시다.》

《알았습니다.》

무전실

영옥이가 눈물을 삼키며 무전을 치고있다.

《중대는 적구축함 2척, 대소함정 6척 격침. 격파. 2문의 포가 파괴되고 많은 인원을 잃었음. 철갑탄을 보내라. 무엇보다 포탄이 필요하다.》

밤, 절벽밑바위

이끼를 뜯어낸 그우에 지휘소대장이 붓으로 글을 쓰고있다.

《전사한 영웅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소대장 서충은,

포수 정광옥, 포수 변태범, 방의서, 취사원 김 종섭…》

비분에 찬 눈길로 그를 지켜보는 태운과 해안 포병들. 소리없이 흐느끼는 영옥. 태운이가 증오와 복수의 념원으로 번뜩이는 얼굴을 든다.

《동무들! 오늘 우리는…가장 가까왔던 우리 동지들과 영원히 작별합니다. 잊지 맙시다. 이들이 무엇을 그렸으며 무엇때문에 목숨을 바쳤는가를! 먼 후날 우리의 후대들은 월미도에서 싸운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할것입니다. 그들은 장군님께서 찾아주신 고마운 조국을 위해서 마지막 피한 방울까지 바쳐 싸웠다고… 우리는 결코 이들이 흘린 피를 헛되이 하지 않을것입니다!》

태운이가 바위쪽에 거수경례를 올리며 속삭이듯 이야기한다. 《잘 가시오!》

일제사격으로 울리는 조총소리, 조총소리.

바람이 우수수 불어온다.

깊은 밤. 포탄상자를 메고 여울목을 넘어오는 대대장과 몇명의 해안포병들.

지휘소

책상곁에 홀로 앉아있던 태운이가 방안에 들어서는 대대장을 보자 일어선다.

《태운동무!》

그를 와락 껴안는 대대장.

《수고했소. 태운동무! 잘 싸웠소. 정말 잘 싸웠소.》 울분과 슬픔을 하소할길없이 홀로 목새기고 있던 태운의 눈가에서 눈물이 번뜩인다.

《대대장동지!… 중대의 반수를… 잃었습니다.》

하는 그의 목멘 부르짖음. 대대장도 뜨거운것을 삼킨다.

《알고있소, 알고있소.》

《대대는 뒤에서 뭘합니까. 전사들은 철갑탄이 없어서 가슴을 치는데 증원을 못보내면 포탄이라도 보내주어야 할게 아닙니까 예?》

《진정하오. 동무는 지휘관이 아니요? 밖에서 전사들이 들겠소. 참소.》

이윽고 태운이가 진정한다.

《미안합니다. 대대장동지!》 하는 그의 속삭임소리.

《리해 해주오. 적들의 화력때문에 섬에 들어오기가 매우 힘이 드오. 태운이, 놈들이 방파제를 봉쇄했소.》

묵묵히 대대장을 바라보는 태운.

《그래 포탄 네상자밖에 가져오지 못했소. 이 포탄때문에 몇동무가 목숨을 바쳤소. 태운동무! 앞으로 여기로 지원이 못오는 경우에도 이틀동안은 더 견지해야겠소. 어떻소?》

상우에 놓인 등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하는 태운.

《해야지요.》

《고맙소. 그러리라고 믿었소.》

대대장이 의자에 앉으며 계속한다.

《시흥에 있는 6중대를 불렀는데 믿기 어렵게 됐소. 시흥계선의 정황도 몹시 긴장되었소. 동무들이 쟁취한 한시간한시간이 지금 락동강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우리 전사들의 생명과 바꾸는것으로 되오.》

말없이 심각한 생각에 잠겨있는 태운. 대대장이 기분을 돌리려는듯 그의 손을 툭 친다.

《태운이! 서해안지구 썰결경연대회에서 1등을 하고 손퐁금을 받던 일이 생각나나?》

미소하며 머리를 끄덕이는 태운.

《예.》

《그때 동무네 중대가 조국을 위해서 한목숨 바치겠다고 노래부르던 일이 눈에 선하오.》

감회가 깊은듯 생각에 잠기는 태운.

《조국! 난 전쟁전에 어떤 외국책을 한권 읽었는데 조국에 대해서 이렇게 썼더구만. 아득한 옛적부터 선조들이 살아오던곳, 아버지의 뼈가 묻힌 고향산천. 들판에서 종달새가 우짖는곳, 그 정든곳이 바로 내 조국이라고말이요. 어떻소?》

《글쎄요. 무엇인가 좀 부족한데가 있는것 같은데요.》

《웁소. 나도 그렇게 생각되오. 우리 선조들도 아득한 옛적부터 이 땅에서 살았고 그때도 종달새는 울었소. 하지만 장군님께서 우리에게 조국을 찾아주시기전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단말이요? 난 그 종달새가 우짖는곳에서 왜놈의 채찍 밑에 뼈가 휘도록 고역살이를 했소. 동무도 그랬지? 그러니 우리에게 조국이란 무엇이겠소? 조국이란 바로 우리의 장군님이시오… 난 .그렇게 생각하오.》

승연한 감정에 싸여 대답하는 태운.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국을 위해 한목숨 바친다는 것이 무엇이겠소. 장군님을 위하여 한목숨 바친다는 말이 아니겠소.》

태운이! 우리 비록 몸은 장군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장군님을 호위하는 심정으로 이 섬을 사수하자구.》

《알겠습니다. 대대장동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평양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다.》

대대장이 태운의 손을 힘있게 잡는다.

어두운 바다가

태운이가 대대장과 작별하고있다.

대대장을 돌아보며 이야기하는 태운.

《참 돌아가시면 군의소에 들려 우리 민국아바이를 좀 찾아봐주십시오. 의식을 잃은채 갔는데 걱정이 됩니다. 일이 힘드니까 로당원들의 방조

가 그림습니다.》

《알겠소. 내 꼭 가보겠소. 그리고 또 요구할것은 없소?》

《없습니다.》

《믿고 가오.》

잠시 태운을 바라보던 대대장이 그를 와락 포옹한다.

떠나는 대대장을 묵묵히 바라보는 태운의 얼굴 위에 독백이 울린다.

《그렇다. 오늘은 비록 네상자의 포란을 받았지만 매일부터는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할수도 있다. 이제부터 48시간... 중대는 자기 힘으로 이틀동안을 더 견지해야 한다. 하지만 포란은 부족하고 전사들은 지쳤다. 어떻게 할것인가?》

은폐호

누워있는 부상병들. 휴식하고있는 해안포병들! 모두들 극도로 피로한 얼굴들이다. 먼 포성속에서 월미도의 밤은 불안스럽게 깊어만간다.

부상병들을 간호하는 영옥.

한 해안포병이 깊은 생각에 잠겨 앉아있다.

나직한 소리로 묻는 영옥.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고향생각을 좀 해봤네...》

출입구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던 태운이가 발자욱소리에 시선을 돌린다.

석준이가 들어선다.

《석준동무요?!》

《예.》

《어떻게 된 일이요?》

《기뢰 하나가 파도에 밀려들어왔기에 안전한곳에 숨겨놓고 오는길입니다.》

태운의 곁에 앉은 석준.

《이젠 기뢰병의 사명이 끝났으니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소?》

히죽 웃는 석준.

《전투가 끝난 뒤에 가지요. 바다싸움에서 이 기뢰병이 꼭 필요할 때가 있을겁니다.》

서글프게 미소하는 태운. 그가 힘없이 앉아있는 대원들을 돌아보더니 갑자기 나직이 속삭인다.

《이것 보오 기뢰병, 우린 앞으로 이틀동안 이 섬을 더 지켜야 하오.》

《예? 그러니까 오늘 전투까지 3일간을...》

《그렇소, 매일 두번째 전투는 더 치열할거요. 이것 보오. 지금 우리 동무들에게 음악이 요구되오. 손풍금을 좀 타오.》

의아해서 그를 보는 석준.

《아니 전사들이 다 자지 않습니까?》

《자지 않소. 생각들을 하고있소. 너무 지쳤거든...》

한참동안 태운을 묵묵히 바라보던 석준이가 그가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리해한듯 머리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해군모자를 제껴쓰고 손풍금을 떼는 석준.

《무슨 노래를 탈가요?》

《어제 영옥이가 부르던 노래가 있지 않소.》

《예.》

첫 선물이 울린다. 그들을 돌아보는 해안포병들. 영옥이도 놀란듯 석준을 돌아본다.

전주를 반복하면서 그에게 속삭이는 석준.

《부르라구.》

주저하며 중대장을 돌아보는 영옥, 태운이 역시 미소하며 머리를 끄덕여보인다.

이윽고 영옥이가 노래한다.

봄이면 사과꽃이 하얗게 피어나고
가을엔 황금이삭 물결치는곳
아 내 고향 푸른 들 한줌의 흙이
목숨보다 귀중한줄 나는 나는 알았네

그의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월미도의 밤하늘에 울려퍼진다. 그를 바라보는 병사들.

나이드는 중년의 해안포병이 풍년벼단을 한가슴 가득 안고 서있던 지난날을 추억한다.

계속되는 노래소리.

불타는 전호가에 노을이 비껴오면
가슴에 못잇어서 그려보는곳
아 내 고향 들꽃피는 그 언덕이
둘도 없는 조국인줄 나는 나는 알았네

노래하는 영옥의 눈앞에 평화스러운 날 동생과 함께 들꽃이 깔린 벌판에서 덩굴던 행복스러운 지난날의 추억이 흘러간다.

노래가 계속된다.

살아도 그 품속에 죽어도 그 품속에
언제나 사무치게 불러보는곳
아 어머니라 부르는 나의 조국이
장군님의 그 품인줄 나는 나는 알았네

묵묵히 노래를 듣고있는 태운에게도 추억하고 싶은 지난날이 있었다.

안개자욱한 공원.

빨간 원피스를 입은 처녀와 호수가를 거니는 태운의 행복한 얼굴. 먼 옛날의 일도 아니였다.

회상에서 깨어나는 태운. 그가 먼 하늘로 시선을 돌린다.

인천군의소

흰 위생복을 입은 처녀군의가 복도를 걸어온다.

태운과 같이 걷던 그 녀대학생이었다.

침대에 누운 민국의 앞에 와 서는 녀군의. 그가 민국에게 나직이 묻는다.

《저 월미도에서 오셨는지요?》

의아한 눈길로 그를 보는 민국.

《예.》

《한가지 묻고싶은것이 있는데...》

《뭔데요?》

《월미도 중대장이... 리태운동무가 맞습니까?》

놀란듯 눈을 치뜨는 민국.

《예... 그분을 아시는가요?》

잠시 말을 못하고 옷자락만 꾸기고있던 녀군의가 머리를 끄덕인다.

《네, 전쟁전부터 아는 사이였습니다.》

민국이가 심각한 눈길로 그를 본다.

《아니 그럼 혹시... 의학대학을 다녔다는...》

처녀가 놀라서 그를 본다.

《چه 이야기를 했습니까?》

《했지요.》

녀군의가 머리를 숙이며 나직이 묻는다.

《아마... 욕을 했겠지요?》

《아니요. 그는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격적약점때문에 한 처녀한테서 거절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의 성격이 거칠다고 했다면서요?》

《.....》

《물론 전 두분의 관계가 어떤 사이였다는걸 다는 모릅니다. 하지만 군의동무는 우리 중대장동무의 성격이 왜 거칠어졌는가를 아셔야 했습니다.》

그는 9살때부터 왜놈의 채찍을 맞아가며 짐수레를 끌었고 14살때부터는 소년화부로 기관차화구 앞에서 해를 보낸 사람입니다. 그는 남들처럼 어머니의 품에서가 아니라 못된 세상풍파속에서 소년시절을 보냈습니다. 왜 이걸 리해하지 못합니까?》

녀군의가 묵묵히 등불을 바라본다.

폭격소리.

민국이가 계속한다.

《중대장동무는 깨끗한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 불속에서 견디어냈을까?》

녀군의가 나직이 묻는다.

《그가... 상하지 않았나요?》

《넌려마시우. 순금은 불속에서도 타지 않는 법이랍니다.》

간호원이 다가온다.

《군의동무, 찾습니다.》

《예.》

잠시 그대로 움직이지 않던 녀군의가 뜨겁게

속삭인다.

《아바이,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셔서... 고마와요. 정말 고맙습니다.》

묵묵히 그의 뒤모습을 바라보는 민국의 수염이 꺼칠한 얼굴.

월미도의 밤 중대부

홀로 앉아 상의를 껴매고있는 태운의 사색어린 얼굴.

같은 시각

섬을 향하여 한척의 고무보트가 은밀히 접근하고있다.

선수에 앉은 날카로운 눈길로 해안을 주시하는 미국장교. 이윽고 그들이 백사장에 상륙한다. 조심스럽게 전진하는 적병들.

바위기슭을 돌아나오던 적들이 샘물터에서 물을 받고있는 영옥을 발견하고 급히 몸을 숨긴다. 물을 받은 밭통을 들고 걸어오는 영옥을 덮치는 적들.

영옥이가 결사적으로 놈들은 뿌리치며 소리친다.

《적...이다!》

취사장에서 불을 지피던 윤식이가 그 소리에 놀라 벌떡 총을 쥐고 뛰어일어난다.

달려나가며 긴 련발사격을 퍼붓는 윤식. 적들이 쓰러진다. 나무를 안고오던 석준이가 총소리에 놀라 달려온다.

적들의 손에서 벗어난 영옥이가 자동총으로 사격한다.

비명을 울리며 나딩구는 적. 갈밭에 숨어있던 적장교가 영옥을 겨눈다. 석준이가 그를 덮친다.

《스텐답! (일어섯!)》

윤식과 영옥이가 달려온다.

《손들엇!》

손을 들고 천천히 일어서는 포로.

지휘소

태운이가 포로를 심문하고있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해안포병들.

석준이가 통역한다.

《소속과 이름을 대라.》

《미해병 1사 본부정찰장교 제임스 크로비소좌요.》

《여긴 무엇때문에 왔소?》

《정보기관은 월미도에 한개 해안포중대밖에 없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의 방대한 무력이 상륙을 성공하지 못했소. 그래서 나는 당신들의 무력을 재확인하려고 왔소.》

서로 마주보며 웃는 해안포병들. 태운이도 싱

국 웃는다.

비웃음이 어린 눈길로 그들을 돌아보는 제임스.

《웃을건 아무것도 없소. 중위!》

《계속하오.》

《래일 함대의 선두에는 최신에 구축함 <크크>호가 서게 돼있소. 함장은 솔로몬해전에서 명성을 떨친 앤드류대좌요. 그는 오늘아침 맥아더원수앞에서 월미도를 단숨에 점령하겠다고 맹세했소. 승패는 뻔하오. 투항하기를 권고하오. 생명은 담보하겠소.》

조소에 찬 눈길로 그를 보는 태운.

《당신은 어떻게 조선에 왔소?》

《난 북조선의 침략을 막으라는 명령을 받고왔소. 그래서 난 임무를 끝까지 수행할 결심이요.》

격분을 참지 못해 일어서는 해안포병들.

석준이가 부르짖는다.

《닥쳐라! 도적이 매를 든다더니 이놈아, 바다를 건너와서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놈들이 누굴 보고 침략자라는거냐?》

기가 꺾이며 나직이 대답하는 제임스.

《우린 그렇게 상급의 지시를 받았소. 그외는 난 모르오. 알 필요도 없고...》

태운이가 빙긋 웃으며 묻는다.

《그렇다면 한가지 더 물겠소. 당신은 참새로리를 좋아하지 않소? 서양에서는 그것이 유행이었는데...》

얼떠름해서 그를 보는 제임스.

《즐거하오. 한데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아오?》

《당신이 참새처럼 짹짹거리는데 내가 그걸 왜 모르겠소.》

전사들이 와- 하고 웃음을 터뜨린다.

태운이가 일어나며 이야기한다.

《저자에게 말하오. 룝지에 호송할 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맥아더의 상관을 후려갈기는가 하는것을 실컷 구경하라고 하시오.》

어깨를 으쓱하는 제임스.

다음날

또다시 대지는 몸부림치며 신음한다. 쏟아져내리는 폭탄과 포탄.

방파제가 끊어져나간다.

지휘소

영옥이가 달려들어온다.

《중대장동지! 절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무전기는 파괴됐지만 전 여기서 전화통신도 보장하고 식사도 보장하겠습니다.》

그의 간절한 말소리. 태운이가 입술을 깨문다. 일부러 그를 돌아보지 않고 무뚝뚝하게 대답하는 태운.

《무전기가 없는 무전수가 누구에게 필요하단 말이요. 가오!》

《중대장동지! 아바이 대신 저도 여기서 복수를 해야 할게 아닙니까?》

슬그머니 머리를 돌리는 윤식. 태운이가 거칠게 자른다.

《우린 자기들의 복수를 남에게 부탁하지 않소.》

《남이라니요. 제가요?》

놀라서 부르짖는 영옥.

《그렇소. 폭격이 멎으면 곧 섬에서 떠나시오.》

영옥이가 애원하다싶이 이야기한다.

《중대장동지! 전 중대동무들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지금 온 중대가 죽음을...》

그를 휩 돌아보는 태운.

《누가 죽는다고 했소? 누가? 이 월미도에는 그걸 바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소. 우리는 더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싸운단말이요... 빨리 가오. 난 바쁘오!》

태운이가 돌아서서 쌍안경을 든다.

침묵. 한참동안 그의 뒤등을 바라보던 영옥이가 흑! 하고 흐느끼더니 얼굴을 감싸쥐고 달려나간다.

그의 옆모습을 지켜보던 윤식.

그가 피로운 기색으로 돌아서다가 태운의 시선과 마주치자 급히 외면한다.

역시 아픈 심정으로 그걸 바라보는 태운.

태운이가 애절한 목소리로 그를 부른다.

《윤식이!》

《옛!》

그의 곁에 다가서는 태운.

《일없어. 전투가 끝난 다음 우리 중대명단에 영옥이의 이름을 기록해넣자구. 어떤 일이 있어도 빼앗아와야지. 하지만 지금은 보내야 돼. 내 말의 뜻을 알겠지? 그를 바래주라구.》

《알았습니다.》

바다가를 걸어가는 영옥. 윤식이가 그를 따라간다.

《영옥동무!》

그를 돌아보는 영옥.

《영옥동무! 중대장동지를 나쁘게 생각마오.》

《전 아무도 나쁘게 생각하는거 없어요.》

새침해서 대답하는 영옥.

《성이 났어?》

《중대장동지가 무엇때문에 나를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미워한다구?》

《물론 그가 훌륭한 지휘관이요 애국자라는건 나도 알아요. 하지만 중대장동지에겐 뜨거운것이 없어요.》

획 돌아서며 사나운 기세로 그의 앞을 가로막는 윤식.

《동무가 우리 중대장에 대해서 무엇을 안단말이요? 뜻내기 같은게… 중대장동지는 누구보다도 동무를 아껴오던 사람이요. 우리 중대의 명단에 동무이름을 써놓고 전투가 끝나면 강제로라도 빼앗아오겠다는 사람이 바로 중대장동지란말이요.》

얼없이 그를 보는 영옥.

《그가 동무를 미워서 가라고 한줄 아오? 왜 그 뜨거운 마음을 이해못하오?》

격하여 부르짖는 윤식.

《이 윤식이에 대해서는 아무렇게나 이야기해도 좋소. 하지만 우리 중대장동지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만 가지고 가오, 좋은 생각만! 잘 가시오.》

돌아서 가는 윤식.

화석처럼 굳어진 영옥.

지휘소

포탄이 가까운곳에서 터진다.

쌍안경을 들고 적함을 감시하던 태운이가 뒤를 돌아본다.

《석준동무! 포로를 데려왔소?》

《왔습시다.》

그의 곁으로 끌려오는 제임스.

《소좌! <커크>호가 어느지요?》

한참 포대경을 들여다보던 제임스가 머리를 흔든다.

《없소. <커크>호는 729호요.》

《그럼 <커크>호는 어데 갔소?》

《난 앤드류대좌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를 했을 뿐이요.》

폭발. 폭풍이 밀려든다. 또다시 폭발.

바다가

걸어가던 영옥이가 불바다가 된 화력진지를 돌아본다.

해풍에 날리는 머리칼. 그가 다시 오던길을 되돌아 달려간다.

지휘소

격전이 한창이다. 《쫓! 쫓!》

태운이가 포소리에 지지 않으려고 소리를 지른다.

《왜 4포가 조용하오? 계속 쏘라고 하시오.》

발전자를 돌리며 4포를 찾는 전화수. 피투성이 된 지휘소대장이 비틀거리며 들어선다.

《중대장동무! 익측… 익측해안을 따라… 구축함이 우회하고… 있습니다.》

그가 쓰러진다. 그를 부축하는 태운.

《위생지도원! 위생지도원 없소?》

부상자를 넘겨받는 대원을 본 태운이가 눈을 치 뜬다.

영옥이었다.

거칠게 부르짖는 태운.

《동문 왜 또 왔소?》

영옥은 아무 말없이 부상병을 처치한다.

그 광경을 겁에 질려 바라보는 제임스. 윤식이 달려들어오더니 기쁨에 찬 어조로 묻는다.

《영옥동무! 왜 돌아왔소?》

역시 말없이 붕대를 감는 영옥.

태운이가 익측으로 쌍안경을 돌린다.

바다가를 따라 뒤로부터 은밀히 접근하고있는 적 구축함 729호.

《교활한놈 드디어 나타났구나, 전화수! 4포를 찿소!》

《알았습시다.》

급히 4포를 호출하는 전화수.

태운이가 적함을 계속 감시하며 지시한다.

《4포! 뒤를 보라! <커크>호가 나타났다.》

《4포? 4포!》 안타깝게 부르짖는 전화수.

《4포!… 중대장동지, 제가 보선하겠습니다.》

《빨리 하오.》

《알았습시다.》

달려가던 전화수가 입구에서 쓰러진다. 뒤를 이어 뛰어나가면 전사도 불속으로 사라진다.

런이어 불기둥이 치솟는다.

전화기를 들고 목이 쉬도록 4포를 부르는 태운.

그를 오래동안 바라보던 영옥이가 누구도 모르게 슬그머니 지휘소를 빠져나간다.

통신선을 따라 불속을 달리는 영옥.

쓰러진 전화수를 넘어 불사신처럼 폭풍을 뚫고 달리고 또 달리는 영옥의 모습이 포연에 가리워진다.

다시 지휘소

윤식이가 기쁨에 차서 소리지른다.

《중대장동지! 4포가 나왔습시다.》

급히 수화기를 바꾸어주는 태운.

《4포요? 동무네 익측후방으로 적구축함이 접근하고있소. 포를 돌려 직사로 갈기시오. 알겠소?》

급히 포를 끌어내는 4포성원들.

함포탄이 폭발한다. 쓰러지는 소대장. 있는 힘을 다하여 포를 돌려대는 해안포병들.

《쫓!》

불을 토하는 해안포. 적함이 단번에 불탄다.

지휘소

《명중이다!》 환성을 올리는 태운과 해안포병들.

《쫓!》
《만세!》
전투는 끝났다.
힘겨운듯 홍장우에 앉은 태운에게 윤식이가 이야기한다.
《중대장동지! 영옥동무가 돌아왔습니다.》
《나도 봤소. 그런데 그가 왜 보이지 않소?》
《영옥동무!》
윤식이가 소리친다. 그러나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불안에 휩싸여 사방을 돌아보는 태운.
《영옥동무!》
모두들 벌떡 일어난다.
아직도 불길히 타오르는 산기슭을 헤매며 영옥을 찾는 태운과 해안포병들.
《영옥동무!》
《영옥이!》
포연속에서 울리는 그들의 처절한 부름소리.
정신없이 헤매던 태운이가 화석처럼 굳어진다.
눈앞에 있는 포탄구멍이속에 전화선을 랑손에 감아쥐고 잠든듯이 누워있는 영옥이의 모습을 본 것이다.
아름다운 노래처럼 맑은 웃음이 그대로 굳어진 영옥이의 청초한 얼굴. 방금이라도 손을 내밀면 웃으며 일어설듯.
태운이가 그앞에 무릎을 꿇는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길로 그의 손에서 전화선을 풀어주는 태운.
그가 끝없는 비분에 못이겨 영옥이의 머리칼을 쓸어준다. 모여선 해안포병들의 억센 눈동자들엔 물기가 어린다.
석준이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울음을 터뜨리는 윤식.
《영옥아!》 하는 태운의 목메인 부르짖음.

대대지휘부

급히 총계를 내려서는 대대장에게 한 군관이 다가선다.
《대대장동지, 전화입니다.》
수화기를 받아드는 대대장.
《대대장이 전화받습니다... 6중대가 좌절됐다고? 항공습격에...》
그가 힘없이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피로움에 찬 얼굴.
그가 불타는 월미도를 오래동안 바라본다. 폭격소리.

월미도

땅우에 누워있는 해안포병들.
담벽에 의지하여 간신히 몸을 일으키는 태운.
《내가 이래서는 안되겠는데... 마지막 3일전투

를 앞에 두고 쓰러지다니... 일어나야 한다. 전사들이 보고있다... 아 물! 시원한 땀수라도 있었으면...》

그가 전사들을 바라본다.
중년의 해안포병이 무엇인가 쓰고있는것을 본 태운이가 그에게 다가서며 나직이 묻는다.
《뭘하오?》
잠시 머뭇거리던 해안포병이 조용히 대답한다.
《고향에다 편지를 쓰겠습니다.》
《편지?!》
《보내지 못한다는걸 뻔히 알면서두...》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있는 해안포병들.

잠시 그들을 둘러보던 태운이가 나직하게 힘있는 어조로 이야기한다.

《왜 보내지 못하겠소? 다들 편지를 쓰시오. 모두 조국에 바치는 우리의 심정을 담아 편지를 씹시다.》

누워있던 전사들이 일어선다.

태운이가 계속한다.

《동무들! 이제 우리에게 포가 한문밖에 남지 않았소. 포탄은 열여섯발. 하지만 우린 래일까지 이 월미도를 사수해야 하오. 나의 결심은 이렇소. 포를 저 개활지대로 끌어냅시다. 그래서 전체 동무들이 다 나가 쏘지 말고 결사조를 무어 두사람씩 나가쏘시다. 한조가 쓰러지면 다음 조가 나갑시다!》

《알았습니다!》

힘있게 대답하는 전사들.

석준이가 나선다.

《중대장동무! 전 기뢰병입니다. 그래서 전 포를 잘 모릅니다. 그대신 저한테 한사람만 주십시오. 그럼 내 폐목을 무어서 기뢰를 싣고 저 미국놈들의 군함을 찾아가겠습니다.》

《석준이!》 그의 손을 와락 움켜쥐는 태운.

《중대장동지!》

한 해안포병이 앞에 나선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마다 나서는 전사들.

이슬이 번뜩이는 눈길로 그들을 둘러보던 태운이가 힘껏 끌어안는다. 한덩어리로 뭉치는 억센 사나이들의 심장들과 심장들.

《고맙소, 동무들!》

태운이가 감격에 겨워 속삭인다.

불현듯 출입구에서 민국의 목소리가 우뢰처럼 울린다.

《동무들!》

그쪽을 돌아보는 태운과 전사들.

찢기우고 기진한 민국이가 비틀거리며 들어선다.

《중대장동무!》

태운의 얼굴이 놀람으로 해쓱해진다.

《민국아바이가?》

민국을 꺼안고 얼굴을 비비는 태운.

《아니 어떻게 된 일지요?》

《중대장동지!》

석준이가 민국을 끌어안는다.

《몸은 좀 어떻습니까?》

《괜찮소, 타박상을 좀 입었었습니다.》

서로 포옹하며 인사하는 해안포병들.

태운이가 민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놀란 어조로 묻는다.

《아니 그 몸으로 어떻게 왔소? 온통 불바다인데 어제 방파제가 끓어진 다음부터는 부대와 연락도 끊어지고 아직은 누구도 들어온 사람이 없소.》

싱긋 웃는 민국.

《정말 나도 못보는줄 알았습니다. 쪽배를 타고 팔미도쪽으로 나가서 놈들의 경계를 뚫고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뭐요? 아니 그 위험한 길을 왜 부디 찾아온단 말이지요? 여기 정황이야 아바이가 잘 알지 않소?》

머리를 끄덕이는 민국.

《알지요. 그래서 왔습니다. 저야 당원이 아닙니까?》

가슴에서 치미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말없이 그의 손을 잡는 태운.

민국이가 동무들을 돌아보며 웃는다.

《동무들 잘들 있었소? 아니 영옥이랑 왜 다 보이지 않습니까?》

순간 모두들 조용해진다. 슬그머니 머리를 돌리는 전사들.

《취사원은 어데 갔소?》하는 그의 나직한 물음소리.

그러나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전우들의 넋이 잠든 바위. 비가 온다.

해불에 비친 글자들.

《전사한 영웅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소대장 서충은

포수 방익서... 취사원 김종섭. 무전수 박영옥...》

그앞에 묵묵히 서있는 민국.

파도소리 파도소리.

바다가

기뢰를 싣고 출렁이는 쪽배.

태운이가 기뢰조와 작별하고있다.

어둠속에서 웃는 석준.

《그럼 떠나겠습니까.》

그 아름답고 깨끗한 웃음에 눈이 부신듯 말없이 서있던 태운이가 묻는다.

《뭘 남길 말이 없소?》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전 한이 없습니다. 혹시 전할길이 있으면 해군중사 최석준이가 장군님의 안녕을 축원하면서 나갔다는것을 전해주시시오.》

《석준이!》

포옹, 음악이 터진다.

손을 흔들며 부르짖는 석준.

《안녕히 계십시오. 중대장동무!》

그들의 쪽배가 어둠속으로 떠나간다. 밝은 웃음을 남기고 떠나가는 결사대를 묵묵히 바래우는 태운과 해안포병들.

바다

기뢰를 싣은 쪽배가 간다. 힘차게 노를 저어가는 해안포병.

수면을 활으며 지나가는 탐조등광선들.

파도를 타고 퍼붓는 비속을 전진하는 쪽배.

휘몰아치는 폭풍우. 적의 포탄이 물위에 떨어진다.

높이 치솟는 물기둥. 바다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한다.

노를 젓던 해안포병이 불현듯 가슴을 그러쥐고 물위에 넘어진다.

목청껏 그를 부르는 석준.

폭발, 쪽배가 뒤집어진다.

기뢰를 밀고 헤엄쳐나가는 석준. 그의 주변에서 물기둥이 치솟는다.

눈앞에 다가오는 적함의 거대한 선체. 있는 힘을 다하여 파도를 넘어가는 석준의 숭엄한 얼굴.

여기에 함창이 울린다.

이 땅에 기여든 날강도무리

침략자 미제는 철천지원쭈

동무여 한놈도 용서치 말라

조국의 이름으로

수령님 위하여 당을 위하여

한목숨 바치자 결사전 앞으로 원썩을 치자

그 어떤 원썩이 덤벼들어도

우리를 굶힐자 세상에 없다

동무여 미제를 때려부시자

정의의 이름으로

수령님 위하여 당을 위하여

한목숨바치자 결사전 앞으로 원썩을 치자

드디어 바다가 들썩하는 폭발이 일어난다.

퍼붓는 비속에서 포를 개활지대로 끌어내던 태운과 해안포병들이 화광이 충천한 먼바다를 굽어본다.

은폐호

공포에 질린 제임스가 부르짖는다.

《무서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그가 비틀거리며 벽 밑에 주저앉더니 떨리는 손길로 수첩을 꺼내 글을 쓴다.

해설로 올리는 그의 편지

《나의 친근한 벗 로벨트! 나는 자네가 쓴 함포탄에 맞아 심한 증상을 입고 지금 운명직전에 이 글을 쓰네.

로벨트! 나는 이 불타는 섬에서 3일동안 이들을 지켜보았네. 맥아더는 우리들에게 이들은 침략자이며 인간이 아니라고 설교했지. 그것은 거짓이었어. 침략자는 바로 맥아더자신이며 우리 미국이네. 난 이들처럼 그렇게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진실한 인간들을 아직 본 일이 없네.

그 누구도 이런 사람들을 이길수는 없을걸세. 미국은 전투에서는 승리할수 있어도 전쟁에서는 승리할수 없네.

맥아더는 이 전투의 패배를 두고 일생토록 수치를 느껴야 할거네. 맥아더에게 저주가 있으라.》

그가 축 늘어진다. 증상과 심한 발작으로 죽는 것이다.

지휘소

태운이가 묵묵히 수류탄을 만들고있다. 그의 곁에 다가왔는 민국.

《중대장동무! 내 미쳐 중대한 소식을 전하지 못했었습니다. 떠나올 때 그 녀동무를 만났습니다.》

놀라서 그를 돌아보는 태운.

《아니 그 녀동무라니?》

《언젠가 이야기한…》

태운이가 점차 긴장해진다.

《어디서요?》

《인천에서 부상병들을 후송하더군요. 군의로 일하고있습디다.》

《그가?》

믿어지지 않는듯 반문하는 태운.

《중대장동무를 일생토록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가슴속에는 항상 중대장동무생각뿐이라고 하면서 만약 잘못되었다는 소식을 들어도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중대장동무가 전선으로 나올 때 역전에 나가지 못한것은 대학에서 전선탄원사업이 있었기때문이었다고 사죄하더군요.》

행복감에 싸인 태운. 그가 흥분을 억제하지 못하며 입을 연다.

《고맙소. 아바이… 한대 주오.》

민국이가 그의 담배에 불을 붙여주며 나직이 대꾸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녀성들입니다.》

한참동안 담배를 피우던 태운이가 희열에 찬 어조로 이야기한다.

《아바이, 전 생을 떠난다고 해도 아쉬운것이 없습니다. 행복을 누리는것보다 그 행복을 이룩하는데 바쳐진 생이 더 아름답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난 유감스러운것이 없습니다. 그래야 조국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말할수 있거던요. 영육이의 노래가 생각되는군요.》

그가 조용히 입속으로 불려본다.

《…나는… 나는 알았네.》

그가 높은 궁지를 안고 먼바다를 바라보며 입을 연다.

《아바이, 우린 결국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의 곁에 다가서서 감시구를 내려다보며 대답하는 민국.

《이겼지요. 이기구말구요. 50년동안 전쟁에서 이겼다는 5성장군 맥아더가 인민군 한 중위에게 3일동안 되게 얻어맞지 않았습니까? 두뺨이 얼얼할겁니다.》

서로 마주보며 호당하게 웃는 두사람.

감시병의 고향소리 《거리 6,000!》

민국이가 생각난듯이 태운을 돌아본다.

《참 중대장동무! 편지는 누굴 보내겠습니까?》

《내 생각엔 윤식동무를 보냈으면 합니다.》

《련락병이야 중대장의 곁을 떠날수 없지 않습니까?》

《윤식인 우리 중대에서 제일 어린 동무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도록 합시다.》

불길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산기슭을 내달려오는 어린 련락병- 윤식.

지휘소

《련락병-》

윤식이가 울상이 되어 뒤걸음질 친다.

《전… 못가겠습니다. 모두들 결사전을 하는데 편지때문에…》

엄하게 그의 말을 막는 태운.

《왜 편지라고만 생각하오? 이젠 조국에 바치는 우리 중대의 마지막 인사요. 가지고 가오!》

그가 자기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며 지시한다.

《그리고 이젠 대대장동무에게 전달하고 동문 그곳에서 대대장동무의 지시를 받소.》

오래동안 말없이 서있는 윤식이가 거수경례를 불린다.

《갔다오겠습니다. 제가…중대를 떠나면 …어데로 갑니까?… 꼭 오겠습니다.》

돌아서려던 그가 목이 메여 이야기한다.

《손수건은 빨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제가 늦

게 오면 해당화에 물을 주십시오.》

역시 뜨겁게 솟아나는 감정에 가슴이 그득해진 태운이가 머리를 끄덕인다.

《알겠소! 가요!》

너무도 아픈 리별이었다. 손을 들어 어서 가라고 내짚는 태운의 무거운 얼굴. 윤식이가 달려나간다.

진지에 있던 해안포병들이 그에게 편지를 전하며 뜨겁게 작별한다.

죽음이란 마치 없는듯 롱담과 밝은 웃음만이 빛나고있다.

구령소리 《결사대 전투준비!》

결전장으로 달려나가는 전우들을 바라보는 윤식의 가슴아픈 눈길.

지휘소

입구에서 다가오는 적함을 주시하던 민국이가 담배불을 끈다. 그가 곁에 앉은 태운에게 미소하며 이야기한다.

《이젠 작별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마져 태우고 나가지요.》

《중대장동무!》

《그동안 잘못된것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빙긔 웃는 민국.

《아니요. 난 이런 최후의 순간에 중대장동무 같은분과 함께 있었다는게 정말 기쁩니다.》

웅백이가 다가온다. 그역시 민국과 같이 나가게 된것이다.

《중대장동무!》

태운이가 그와 민국의 손을 굳게 잡는다. 민국이가 일어선다.

《중대장동무! 그럼 1조 날따라 앞으로!》

1조가 달려나간다. 힘찬 《해안포병의 노래》의 선율이 울린다.

포사격을 하는 1조.

《쫓!》 포성이 울부짖는다.

포진지에서 불기둥이 치솟는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태운이가 나직이 명령한다.

《2조 출발!》

《알았습니다. 중대장동무!》 중대장과 굳게 포옹하고 달려나가는 2조의 결사대원들

그들이 희생된 전우들의 시체를 안아내리고 사격한다.

두눈을 잃은 민국이가 손더듬으로 포탄을 쥐어섬긴다.

《쫓!》, 《발사!》

시뻘건 불줄기가 바다로 뻗는다.

박산이 나는 적 상륙정들.

반땅크수류탄뭉음을 쥐고 앉아있던 태운이가 벌떡 일어서더니 포결으로 달려내려간다.

《쫓!》

포가 불을 토한다. 포진지에 들쭉쭉이는 함포탄.

해안포병이 쓰러진다. 이제는 혼자 남았다. 포탄을 장탄하고 적함에 복수탄을 안기는 태운.

《발사!》

포성이 울부짖는다. 화염이 타래치는 적경비함. 이제는 포탄마저 떨어졌다. 적들을 쏘아보는 태운의 얼굴에 비장한 기색이 어린다.

바다

떼를 몰아 바다를 건너가던 윤식이가 급강하는 적기를 맞받아 자동총사격을 퍼붓는다.

그의 주위에서는 바다가 끓고있다.

불현듯 그가 가슴을 움켜쥔다. 고통에 이그러지는 그의 얼굴. 이윽고 그가 떼목우에 넘어진다. 편지들이 흩어진다.

태운이의 편지가 그의 목소리로 읽히운다.

《대대장동지! 중대에는 지금 한문의 포와 12명의 전사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명령대로 3일 동안 조국의 섬을 사수하였습니다. 이제 몇분후이면 놈들은 또다시 월미도로 밀려들것입니다. 만약 월미도에서 포성이 끊어지면 우리에게 사격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김일성** 장군 만세! 조국여여! 번영하라!》

포진지

뒤집혀진 포, 쓰러진 해안포병들.

반땅크수류탄을 든 태운이가 불사신처럼 일어선다. 마지막으로 남은 두 해안포병이 그를 옹위하여 나아간다.

태운이의 승엄한 빛이 어린 얼굴.

활활 타오르는 월미도를 배경으로 원썬들을 맞아 천천히 걸어나가는 태운과 해안포병들의 영웅적군상.

태운이가 반땅크수류탄을 높이 추켜든다. 타래치는 붉은 화염이 그들을 감싼다.

피빛으로 불타는 바다에 아침해가 솟는다.

그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아로새긴 자막이 상승한다.

《월미도해안포병들이 잘 싸웠습니다. 그들은 최고사령부의 명령대로 인민군대의 전략적후퇴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지막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결사적으로 싸워 3일동안이나 적들의 상륙을 막아냈습니다. 우리는 월미도용사들의 영웅적위훈을 잊을수 없습니다.》

김일성

진하게 타오르는 새벽노을.

끝

우리 당이 제시한 문학예술활동의 대중화방침과 그 관철에서 이룩한 자랑스러운 성과

리동원

오늘 우리 문학예술은 인민대중의 창조적지혜의 예술적재능에 의거하여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높은 발전을 이룩하고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우리 당에서는 주체의 문학예술이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 활동을 대중화하여 온 나라의 예술화를 실현할데 대한 웅대한 문예강령을 펼쳐줌으로써 군중문학 예술을 더욱 개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진로를 뚜렷이 밝혀주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인민대중은 문화와 예술의 창조자이며 향유자입니다.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하여 근로자들의 창작열의와 예술적재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며 문학예술이 인민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할데 대한 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문학예술의 창조와 향유에서 완전한 주인이 되게 할뿐아니라 사회주의문학예술을 대중자신의 창조적 재능과 힘으로 발전시켜 온 나라의 예술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있다.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하는것은 주권을 잡은 노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문학예술을 건설하는데서 일관하게 틀어쥐고 나가야 할 문화건설의 기본방향이며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문화와 예술을 건설하는 기본 전략적방침이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이 하는 사업이며 인민대중의 창조적 재능과 힘을 적극 발동하는것은 노동계급의 당의 일관한 령도방법이며 혁명적군중로선의 구현이다.

우리 당은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하는것을 일관한 방침으로 내세우고 대중의 재능과 창조력을 끝없이 발양시킴으로써 문학예술을 창조하고 향유하는데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을뿐아니라 현실속에서 군중문학예술이 활짝 꽃피나도록

현명하게 이끌었다.

우리 당의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할데 대한 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근로인민대중에 의거하여 발전시킴으로써 온 나라의 예술화를 빨리 실현할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방침이다.

당에서 밝힌바와 같이 문학예술을 대중화한다는것은 노동자, 농민, 병사들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을 문학예술활동에 널리 참가시켜 대중의 지혜와 힘으로 문학예술은 창조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문학예술을 마음껏 즐길수 있게 한다는것을 말한다.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하여야 현실속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을 생동하게 반영한 특색있는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 우리 문학예술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문학예술을 통한 대중교양을 가장 효과있게 실현할수 있다.

군중은 생산자인 동시에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실과 사건의 목격자이며 생활의 체험자이다. 따라서 대중이 문학예술활동에 광범히 참가하면 진실로 대중의 요구와 념원을 문학예술에 제때에 정확히 반영할수 있으며 생활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려낼수 있는것이다.

또한 대중속에서 군중문학창작을 적극 벌리며 창작과정을 통하여 그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문학예술의 대중화와 대중자신의 혁명화과정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그것은 근로자들 자신이 직접 형상창조에 참가하여 주인공의 높은 사상정신세계에서 배우게 되며 심각한 생활체험과 함께 사상수양을 쌓게 되기 때문이다.

실로 우리 당의 문학예술활동에 대한 대중화방침은 우리 문학예술을 현실속에서 나온 다양하고 특색있는 문학예술로 빨리 발전시키며 대중의 혁명화도 다그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더욱 힘있게 수행해나갈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방침이다.

하기에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문학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그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일관한 방침으로 제기하고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문화건설분야에서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

였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온 나라의 예술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귀중한 밑천을 마련하였다.

우리 당이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하는 과정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은 첫째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군중문학예술활동을 널리 벌리도록 적극 장려하고 조장시킴으로써 주체예술의 대전성기의 요구에 맞게 대중속에서 문학과 예술이 활짝 꽃피어나도록 한것이며 군중문학예술사업에 대한 정연한 체계를 확고히 세워놓은것이다.

우리 당은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하는 사업을 일관한 문예방침으로 내세우고 이 사업에 대한 정연한 체계를 세움으로써 광범한 대중속에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훌륭한 문학예술작품들이 창작되어 주체예술의 대전성기를 더욱 빛내이도록 하였다.

오늘 대중속에서 벌어지는 군중문학예술활동은 생산활동과 밀접히 결부되어 완전히 생활적인것으로 되었고 문학예술의 대중화정도는 비상이 높은 경지에 이르렀으며 온 나라의 예술화를 실현하는 새로운 진군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대중의 창작열의가 비상이 높아짐으로써 매해 진행되는 문학작품현상모집에 들고나오는 작품만하여도 내용과 형식, 사상예술적수준에서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고있으며 군중문학창작의 훌륭한 결실을 자랑차게 과시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0돐과 당창건 30돐, 공화국창건 30돐기념 문학작품현상모집에 응모한 문학통신원들만 하여도 3만여명을 헤아리며 그들이 여기에 가지고 참가한 작품은 4만여편이나 된다. 이 한가지 사실만 놓고보아도 문학창작의 군중화정도가 얼마나 높은 수준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오늘 군중문학예술은 단편이나 소품, 단막들의 영역을 벗어나 장중편소설들 그것도 대중적인 범위에서 왕성하게 창작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우리당 제5차대회가 있는 때로부터 그 이후시기에 이르는 창작성과만 놓고보아도 그것을 충분히 알수 있다. 장편소설들로서 《행군길》, 《사랑의 이야기》, 《남해로 가는 길》, 《청춘》과 같은 우수한 작품들이 수많은 창작되었으며 군중문학작품들을 단행본으로 출판한것만 하여도 《심장의 노래》, 《새 령마루에로》, 《혁명의 북소리》, 《희망찬 앞날》.

《영원한 불빛》, 《붉은 노을 비껴온다》, 《대오는 전진한다》, 《생활속에서》, 《미더운 세대》. 《빛나는 초소》 등 수십종에 이른다.

그밖에 《희천의 봉화》, 《강선의 백양나무》 등 도별로 혹은 공장, 기업소별로 독자적으로 묶어낸 작품집들도 왕성한 대중창작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특히는 군중문학창작의 발표무대라고

할수 있는 잡지 《청년문학》을 비롯한 여러 출판물들과 지면을 통하여 실현되는 대중창작은 생신하고 특색있는것으로 하여 더욱 이목을 집중시킨다.

군중문학의 이와 같은 전면적인 개화는 군중문학예술이 오늘에 이르러 얼마나 높은 발전을 이룩하였는가를 잘 말해주고있다.

실로 군중문학예술이 오늘과 같은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된것은 전적으로 우리 당이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문예방침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었기때문이다.

우리 당은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빛나는 문예전통을 이어받아 일관하게 대중속에서 문학예술활동을 활발하게 벌리도록 하였으며 오늘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의 요구에 맞게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지혜와 예술적재능을 적극 발양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을 다그쳐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였다. 그리하여 대중속에서 재능있는 문학통신원들이 수없이 자라나 작가대렬을 끊임없이 보충해나가게 되었으며 군중문학예술활동을 보다 활발히 진행할수 있는 정연한 조직체계가 세워짐으로써 이 사업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조직화, 체계화할수 있게 되었다.

또한 문학소조를 단위로 하여 생활속에서 문학과 예술이 활짝 꽃피어나도록 온갖 가능성과 조건을 다 마련하여놓았다.

이것은 우리 당이 군중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 데서 이룩한 더없이 귀중한 성과의 하나이다.

오늘 전국각지에 문학소조가 조직되어 군중문학예술창작을 끝없이 추동하고 정연한 조직체계와 함께 지도체계가 세워져 대중의 창조적 재능과 지혜를 끝없이 발양시킬수있게 된것은 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둘째로

우리 당이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은 군중문학예술활동을 적극 벌려 현실속에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이 나오도록 적극 조장하고 계발시키는 문학작품현상모집사업을 대중적으로 광범히 벌리도록 함으로써 창작사업을 능동적으로 끌고나간것이다. 그것은 대중의 양양된 창작열의에 맞게 군중문학예술활동을 적극화하는 중요한 현실적인 방도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군중문학창작을 적극 장려하며 계발시키기 위하여 문학작품현상모집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현상모집에 당선된 작품들에 대해서는 평가도 잘하고 널리 발표하도록 하였다.

전국적인 문학작품현상모집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것은 대중속에서 문학창작을 적극 조장하고 계발시키며 그들의 창작열의를 비상이 높여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대중의 창작적 열의와 재능을 계발시키고 조장

시키며 그것을 조직화할수 있는 정연한 체계를 세우는것과 함께 일정한 계기를 통하여 발표할수 있도록 지면을 제공해주는것은 대중창작을 목적의식화하고 높은 창작적열의를 발휘하여 작품창작에 달라붙게 하는 실제적인 조치로 되며 대중의 재능을 평가하고 총화하게 하는 능동적인 공간으로 된다. 어떤 사업이든지 그에 대한 평가와 총화가 없이는 그 다음 사업의 성과와 발전을 기대할수없다.

우리 당은 문학작품현상모집사업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대중의 창작적열의를 비상히 높여주는 한편 그 성과와 경험을 전국적으로 일반화하도록 함으로써 군중문학창작사업이 실제적인 은을 내도록 하였다.

우리 당에서는 군중문학창작을 활발하게 벌리며 이 사업을 목적의식화하고 적극 조장시키며 그 성과를 공고화하기 위하여 《6월4일문학상》을 제정하는 획기적인 조치까지 취해주었다. 그리하여 해마다 문학통신원들 가운데서는 생활을 독창적으로 탐구하여 의의있는 사회정치적문제들을 인간성적에 구현한 참신한 작품들을 들고나오는 문학상수상자들의 대렬이 늘어나고 광범한 범위에서 문학작품현상모집에 참가하여 당선된 우수한 작품들이 수없이 배출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0돛기념 전국문학작품현상모집에는 14,000여명의 근로자들이 무려 15,000여편의 우수한 문학작품을 가지고 참가하였으며 사상예술성에 있어서나 내용과 형식의 다양성과 독창성에 있어서 일찌기 찾아볼수 없었던 이채를 띠었다.

군중들이 생활하는 다양한 초소들에서 자기들이 체험한 독특한 생활세계를 높은 시대정신을 구현하여 참신하게 엮어간 단편소설로부터 시작하여 장중편소설에 이르는 소설작품이 수없이 창작되었으며 시문학에서도 서정시를 비롯한 시조들과 서정서사시들이 수없이 응모되었다. 아동문학과 희곡 작품들도 더욱 왕성하게 창작되었다.

매해 문학작품현상모집사업을 기념일과 명절을 계기로 하여 다양하게 조직하는것과 함께 또한 지면을 통하여 창작경기를 널리 벌임으로써 대중의 창작적열의는 비상히 높아지게 되었으며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문예작품들이 수없이 창작되게 되었다.

문학작품이 대중속에서 왕성하게 창작되고 그것이 지면과 영화화면을 통하여 널리 실험됨으로써 주체의 문학예술은 군중적지반우에서 더욱 높이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 땅에는 군중문학예술의 일대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었다.

셋째로 우리 당이 군중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은 대중의 재능을 끝없이 계발시켜 광범한 군중속에서 새싹들을 찾아내고 후비들을 키워 전문작가의 대렬을 부단히

보충해간것이다.

군중문학활동을 대중적으로 벌리는 과정에 문학통신원대렬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대중속에서 재능있고 전도유망한 작가후비가 수없이 자라나게 되었다.

우리 당에서는 군중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문학통신원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깊이 통찰한데 기초하여 문학통신원대렬을 끊임없이 늘어나갔으며 그들이 군중문학활동을 주동적으로 이끌고나갈수 있도록 자질과 기량을 높여주는 사업을 정연한 체계속에서 진행하였다. 또한 문학통신원들에 대한 전문작가들의 개별담당제를 강화하였다.

문학통신원들은 문학예술활동의 대중화, 온 나라의 예술화방침을 관철하는 선구자이며 주체의 문학예술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이다.

문학통신원들이 온 나라의 예술화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선구자로 되는것은 그들이 바로 군중문학예술활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뿐아니라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하는데서 앞장서나가는 기본담당자들이기때문이다. 문학통신원들이야말로 자기들의 실제 창작을 통하여 군중문학활동을 이끌고나가며 대중예술을 발전시켜나가는 핵심력량이다.

모든 사회적현상이 그러한것처럼 군중문학예술활동도 일정한 사회적력량, 핵심들에 의하여 추동되며 발전하게 된다.

문학통신원들은 대중속에서 나왔을뿐아니라 대중과 함께 문예활동을 벌리면서 자기의 실천적모범으로 군중문학을 이끌고나가는 기수들이다. 특히는 문학은 모든 예술형태들에 앞세워야 하는 문학발전의 합법칙성으로부터 문학통신원들의 선구자적인 역할은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문학통신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들끓는 현실속에서 살며 매일 매시각 벅찬 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과정에 심오한 문제성을 가진 작품들을 써냄으로써 우리의 주체적문학발전을 끊임없이 추동한다

여기로부터 또한 문학통신원들은 주체의 문학예술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된다.

주체의 문학예술은 우리 당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혁명적문학예술의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하고 완성해나가는 과정에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되여나가는 혁명적문학예술이다. 주체위업의 완성에 이바지하는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주체의 문학예술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창작력량을 마련하여야 하며 새세대작가들을 수없이 키워내야 한다.

문학통신원들은 대중속에서 발견된 재능있는 선진력량으로서 주체문학예술을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후비들이다. 문학예술도 다른 모든 사업에

서와 마찬가지로 현존력량과 후비력량을 옹게 결합시키고 후비력량을 전망성있게 꾸려나갈 때 주체문학예술의 미래도 확신성있게 담보되게 된다.

주체의 문학예술은 문학통신원들로부터 자라난 신진작가들, 새세대의 작가들로 기성작가대렬을 끊임없이 보충해나감으로써 우리 문학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수 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온 나라의 예술화를 힘있게 실현하여 공산주의문학예술건설을 확신성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된다.

오늘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은 전문작가들의 창작활동과 인민대중의 군중적창작활동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고있으며 주체예술의 대전성기를 더욱 빛내여가고있다. 또한 우리의 작가, 예술인대렬은 경험있고 능력있는 중견작가들과 패기있고 재능있는 새세대의 작가들로 튼튼히 꾸려지게 되었으며 근로인민대중속에 이 창작력량을 받아들일수 있는 무진장한 원천과 저수지를 가지게 되었다.

실로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하는 과정에서 이룩한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은 주체적문학예술발전의 새로운 현실적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온 나라의 예술화를 힘있게 실현해나갈수 있는 더없이 귀중한 재부로 된다.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하는 과정에서 이룩한 우리 당의 업적을 고수하고 발전시켜 온 나라의 예술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우리 문학통신원들과 작가, 예술인들, 전체 근로자들앞에 나선 가장 신성한 임무이며 영예로운 전투적과업이다.

우리는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가슴깊이 새기고 우리 시대의 참된 인간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려낸 참신하고 깊이 있는 문학예술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해냄으로써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하여 온 나라의 예술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관철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소조원 그대와 함께

한원희

이른새벽 노을이 비껴와도
불타는 그대의 마음같고
농장벌에 둥근달이 솟아도
언제나 웃는 그대 모습 같네

우리 농장 작업반에
새로 온 소조원동무
머나먼 공장 정든 일터를 떠나
따사로운 당의 빛발 안고온 사람

제품의 치수를 눈여겨채듯
뿌려가는 씨앗의 깊이를 재며
그는 알뜰히도 심어주었네
모판엔 풍년씨앗
내 가슴엔 그 일숨씨
말없는 땅을
말없이 길들이며
그는 한껏 키워주었네
모판엔 줄대같이 실한 모
내 가슴엔 샘처럼 솟는 기쁨

그래서 동녘이 밝아오면
그 새벽이 반가웠네
또 하루 마음껏 그와 함께
농장벌 가꾸며 땀 흘리기 즐거워

해지고 별이 돌아도
별많은 그 밤이 고마왔네
그가 배워주는 주체농법 익혀가며
별보다 더 많은 꿈을 키웠네

앞서간 그의 발자국따라
들에 나가면
곡식이 하는 말도 들을줄 알고
땅의 속깊은 성미도 나는 알아
내 가꾸는 농장벌이 더더욱 소중해지네

소조원 그대와 함께 일하면
내 가슴엔 언제나 화창한 봄날
아버이수령님께 기쁨드려 갈
간절한 소원이 무르익는 가을날
농사를 잘 지우라고 하신
수령님의 그 말씀 그 뜻
사람들의 마음에 먼저 심어

아름답게 꽃피우는 소조원
아, 우리 당이 보내준 혁명전위
그대는 따사로운 당의 빛발로
땅을 가꾸기전에
농장원의 마음을 가꾸어
이 땅에 만풍년을 불러오네!

첫 생활에서

백남룡

1

3대혁명소조원 리정수는 직장사무실앞에 이르자 작업모를 벗어 어깨와 옷자락을 툭툭 털었다. 보이라직장사무실을 늘 알뜰알뜰하게 거두는 통계원처녀의 말없는 수고가 생각났던것이다.

정수는 문을 열고 들어섰다.

가위다리를 하고 앉은 직장장 우병만은 무슨 말을 하겠는지 소조원을 보자 마른침을 꿀꺽 삼키었다. 그의 넓다란 이마에서 두마리의 갈매기가 날아오르려다가 금시 어데론가 사라졌다.

《아무렇든간에...》

우병만의 결결한 음성은 크지 않은 사무실안에서 저으기 위풍있게 울렸다. 그는 콕콕같은 손바닥으로 책상을 장단치기 시작했다. 시원스레 열린 이마에 다시금 두마리의 갈매기가 살아 꿈틀거렸다.

《기관장동무는 요새 안일해졌단말이요!...》

직장참모성원들이 앉은 긴 의자끝에 엉덩이를 붙인 보이라기관장 심상준은 더부룩한 머리를 짓속이고 우울해서 앉아있었다. 천정이 무너져도 움쩍할것 같지 않았다.

《사실이 그렇지 않소? 응... 엇그제 보이라에 배치된 애송이들도 한시간전에 출근해서들 쓸구담구 정비하는데 동문 뭘요? 조회가 끝날 때 가서야 슬렁슬렁 나오구...》

《난 ... 뭐다싶이 걸었지요.》

기관장의 석침한 음성은 태연스러웠다.

《아무렇든간에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단말이요. 그래 기관장이 직장의 보이라설비들을 책임졌다는걸 모른단말이요?》

《.....》

정수는 이런 때 방에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어쩐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출근은 그렇다치구...》

우병만의 음성은 아량을 띤 타협조로 울렸다.

《오전중에 급개콘베아를 제대루 돌리지 못한건 뭘루 굶뻐졌소? 불판에 재가 메서 보이라까지 뭉출뻬한걸말이요.》

《글쎄, 편이 빠진걸 난들 어찌겠소.》

《편이라니? ... 걸터편말이요?》

《손가락만한 그게 빠져 달아나서 채무지속에 박혔는데 찾을수 있어야지요.》

《아무렇든간에 그제 다 안일해진 표현이란말이

요. 결함을 걸터편같은데서 찾으려 하지 말구... 정신을 버쩍 차려야겠소. 마음속에 편이 빠지지 않게스리...》

드디어 기관장은 더 참기어려웠는지 의자끝에서 움쭉 몸을 일으켰다.

《이젠 가봐도 되겠지요.》

《?...》

우병만의 눈섭꼬리가 관자노리로 뻗어났다.

(이런 불손하다구야... 사람이 아직 말하는데 어디다 대구서...)

그러나 기관장은 그만큼 들었으면 과분하다는 듯 태연스레 서서 직장장을 마주보았다. 잘못된 일에 대한 미안한 감이나 죄스러운 표정은 조금도 없었다, 다만 눈가에는 아까의 그 울적한 그림자가 여전히 비껴있을뿐이었다.

방안의 공기는 더질듯 부풀어올랐다.

정수는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은 자신을 다행으로 여겼다. 그는 옷주머니에서 배가 훌죽해진 담배갑을 꺼내었다. 아침에 새갑을 넣고 나온것이였다.

《직장장동문 아예 욕설로 점심대접을 할셈인게로군요.》

정수는 될수록 명랑하게 말하면서 우병만에게 담배를 권했다. 그 음성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들려서 방안의 무거운 공기를 활짝 가셔버렸다.

우병만직장장의 이마에 그려졌던 갈매기는 사라졌다. 눈가에 패인 실주름속에는 평온한 미소가 깃들었다. 그는 굵직한 손가락으로 담배갑 구리를 헤집으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히, 이거 두대뿐인데... 우리 열관리공들이 또 소조원의 담배갑을 비웠군.》

그는 담배를 거의나 피우지 않는 소조원을 두들어서 말하는것이였다.

《열관리공들이 신통히 두가치는 남겼습니다. 직장장동무와 기관장동무의 몫으루...》

《허허...》

우병만의 얼굴에 떠오른 웃음이 심상준의 얼굴에 옮겨가지는 못했다. 기관장은 소조원이 주는 담배갑에 손을 내밀지 않았다.

《막대야 주인이 피워야지요.》

부드럽게 사양하는 상준기관장의 얼굴에는 알릴듯말듯 잔미소가 돌았다. 그는 손에 쥐고있던 모자를 꼭 눌러 썼다.

《가보겠습니다.》

누구에게라 없이 짙막히 한마디 던지고는 문을 열고 훌쩍 나가버렸다. 평- 하고 문이 닫혔다. 통계원처녀가 문설주에 고무를 대지 않았던들 아마 쿵- 하는 소리가 났을것이다.

《아무렇든 휘어잡기 힘든 사람이지요. 기분이 나면 물불을 모르구 일을 해대다가도 좀 맞갖지 않으면... 내 참, 후-》

우병만은 담배연기를 길게 내뿜며 탄식하듯 말했다.

정수는 창가로 다가가서 배구장이 있는 보이라마당쪽을 내다보았다. 영양제식당으로 가려면 그리로 지나가야 하는것이다. 한참이 지나도록 상준기관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덧 영양제식당의 풀빛 출입문을 열고 열관리공들이 하나 둘 나오자 배구장우에 하얀 공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기관장동무한테 너무 과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

정수는 창가에서 물러서지 않은채 나직이 물었다.

《소조원동무는 온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를겁니다. 기관장 그 사람이야 내가 얼굴만 보구두 속집까지 환히 꿰뚫게요. 전달생산총화때 지배인동무가 공장에서 부채생산을 백칠십프로로 넘쳐한건 보이라들이 아무 말없이 만가동했기때문이라구 부쩍 칭찬을 해줬지요. 아무렇든 그건 응당한 평가긴 하지요. 그랬더니 이달에 들어와선 허리띠를 띠 풀어놔단말입니다. 걸음새부터 달라졌지요. 열관리공들까지 그를 닮아가는데 어디 참을 수 있어야지요. 그래 며칠전에 한마디 했지요. ... 더 엇나간단말입니다.》

《직장장동무네 앞집이 기관장동무네 집이지요?》

《언제 벌써 와봤습니까?》

《전 그쪽으로 다닙니다.》

《그럼 합숙에서 아주 멀겠는데...》

《직장사람들을 하루라도. 빨리 사귄다 해서요. 기관장동무한테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을가요? ...혹시 아주머니하구 싸웠다면가...》

《원앙새부릅니다.》

우병만은 부러운듯 말하고나서 담배꽂초를 재떨이에 비벼졌다.

《난 심상준이 그 사람하구 스무해 가까이 앞뒤집에서 얼굴 맞대구 살아옵니다. 그 집에서 누가 감기만 와두 우리 집에 기침소리가 들리지요. 나하구 거의 같이 장가를 들었는데... 내가 아이셋을 거느리도록 어찌된 일인지 상준이 그 사람은 아이가 하나도 없었었지요.》

《.....》

《아무렇든 것처럼 딱한 일이 없습디다. 아침에 공장으루 출근할 땐 우리야 요란하지요. 내 처

가 막내를 업구 가운데놓은 내가 안구 큰놈은 앞으로 걸리구 해서 나가는데... 상준이넌 신혼부부같이 둘이 나란히 서서 조용히 걸군하지요. 한번도 언쟁하는걸 보지 못했습니다. 안해를 끔찍히 사랑해주더니 그게 복이 돼서 십년만에 호박통같은 아들을 하나 봤지요.》

배구장에서는 열관리공청년들이 흥성거렸다.

상준기관장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화집에 점심을 건넬 모양인가.)

정수는 무거운 낮빛으로 책상에 다가와 앉았다.

《소조원동무, 너무 걱정마시오. 소조원동무가 오기전에도 뭐 이런 일이 한두번 있을줄 아시우.》

우병만은 작업복을 벗어 바닥에다 《먼지》를 후룩후룩 털어서 옷걸이에 걸고는 회색양복저고리를 펼치었다.

《아무렇든간에 큰일은 아니지요. 사람의 생활인데 기계같은수야 있나요. 간혹 출근이야 늦을 수 있는거구... 굵게큰베아 고장은 사실말이지 편이야 편때문이지요. 내 그사람 정신차리라 해서 요란스레 말해준겁니다. 어서 점심이나 합시다. 그런 쇠쇠한 일은 이 직장장에게 맡겨버려야지 새파란 나이에 머리가 썩니다. 허허...》

《.....》

사무실을 나선 두 사람은 좁은 층계를 따라 내려갔다.

《먼저 가서 식사를 하십시오.》

정수는 멈춰서서 미안스레 말했다.

《소조원동문?...》

《보이라에 좀 가보겠습니다.》

《하, 이러다간 앞으로 직장장이 소조원앞에선 아래사람들에게 욕두 제대루 못하겠군요... 마음을 놓으라는데 그러누만요. 상준동무의 기본주의는 내가 력사적으루 알지요. 난 그 사람과 집에서뿐아니라 현장에서두 코를 맞대구 살아왔지요.》

늘 한고뿌에 탄산수를 떠마셨구, 보이라불길에 몸이 익었다오. 그가 1작업반장을 할 때 난 3작업반장을 했지요. 지금은 보다싶이 그는 기관장이구 난... 스무해란 세월이 흘렀지만 우린 서로 사업위치나 변했지 여전히 한집안식구란말입니다.》

《.....》

《아무렇든 깊이 생각할거 없수다. 인츰 그 사람얼굴이 밝은 날처럼 개일테니까요.》

우병만은 정수의 옷자락을 잡았다.

《직장장동무는 그를 잘 아니까 대수롭지 않지만 저야 아직...》

정수가 보이라쪽으로 굳이 몸을 돌리자 우병만은 옷자락을 놓고 당부하듯 말했다,

《제격 같이 오시우. 두사람분을 따루 내놓게

할테니까요.》

우병만은 영양제식당쪽으로 걸어갔다.

2

(사람을 잘 알아야 한다. 모르고서는 한걸음도 사업할수 없을것이다... 사람을 안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할가?... 직장장동무는 기관장에 대해 잘 안다. 경력도, 취미도, 기분도, 성격도... 그런데 기관장의 얼굴에 비겼던 우울한 표정은?)

정수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생각을 더듬었다.

보이라들은 조용했다.

송풍기와 배풍기들은 한숨 돌리느라 잠잠했고 파열기에서는 단 증기가 술술 피어올랐다.

조종반이 들어앉은 유리집안에도 상준기관장은 보이지 않았다.

화구앞에서 서성거리던 정수는 갑자기 딥고선 철판을 짹짹 울리두드리는 소리에 흠칫해졌다.

《여- 거기 누가 없어?》

밑에서 찾는 소리가 가늘게 들려왔다.

《있소-》

정수는 두꺼운 철판이음짚에 허리를 굽히고 소리쳤다.

《뽕프장에 가서 호스를 가져오라구-》

명령의 목소리였다.

《누구요-》

《기관장이야-》

철판짚에서 별걸 다 묻는다는듯 통명스런 대답이 울려나왔다.

정수는 뽕프장에 바삐 뛰어가서 사려놓은 팔뚝같은 호스를 안고 왔다.

《물관에 련결하라구-》

철판밑에서도 정확히 지시했다. 아마 발자국소리와 철판에 호스를 내려놓는 소리를 듣고도 흰히 꿔뚫어보는 모양이었다.

정수가 철사다리를 올라가서 물관에 호스를 꽂기 바쁘게 재처리장속에서 또다시 조급히 지령을 주었다.

《한쪽끝을 달라구-》

호스의 한끝을 철판짚으로 내려보낸 정수는 일부러 목소리를 바꾸어 나직이 물었다.

《뭘할려구 그래요?》

《한번 시험해보자구그래, 제길 숨이 찬데 문긴... 발브나 열게.》

철판짚이 벌어져 기관장의 목소리는 한결 크게 들렸다.

정수가 발브를 힘껏 돌리자 재처리장속에서 췌- 하는 물소리가 났다. 한참후에는 《막게!》, 《열게!》... 하는 구령이 동안을 두고 반복되었다.

《그만! 됐어, 수고했네... 가만 자네 누구나?》

밑에서 그제야 호기심을 가지고 물었다,

정수는 빙그레 웃음을 짓고나서 애된 소리로 말했다.

《응필입니다.》

얼마전 그가 공장에 배치되어오던 날 보이라직장에 입직한 열관리공의 이름이었다.

《음 자네였군그래... 눈치가 빨라졌는데... 좋아 자네한테 담배 없나?》

《.....》

《음... 자네 아직 안피우지. 구수하게 딱 한모금만 들이켰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비상용이 있어요.》

정수는 한가치 남은 담배갑을 철판짚으로 내려보냈다.

《허 이런 엉큼한 친구 봐라. 담배대만한게 담배를 피운다?...좌우간 고맙네. 이크 또 막대로군. 오늘은 운수나쁘게 막대가진 사람과만 맞다들린다.》

《불을 달라요?》

《재불덩어린 여기두 있어.》

이윽고 삽으로 탄재를 해집는 소리, 망치로 철근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인차 나올 잡도리가 아니었다.

정수는 허리를 바싹 굽히고 두개의 철기둥을 받쳐 세운 열관리공들이 《재굴》이라고 하는 탄재처리장 출입구로 들어갔다.

어둡시그레한 《재굴》속에는 엄청나게 큰 굵개콘베아가 너대의 보이라 밑굽을 지나 길게 뻗어 있었다.

성큼성큼 걸음을 옮기던 정수는 갑자기 둔중한 가름대같은것에 이마를 쾅고 잠시 주저앉았다.

저앞에서 희미한 불빛이 흘러나왔다.

《거 누구요?》

상준기관장의 석싯한 물음이었다.

불빛을 등지고 앉은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이쪽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다가오는 사람이 소조원임을 알아보자 기관장은 놀라서 손에 들었던 망치와 삽을 놓고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목에 걸쳤던 수건을 소조원에게 내밀며 저으기 갈린 소리로 말했다.

《여기가 어디라구... 소조원동무두... 다친데는 없습니까?》

《이마에 혹을 얻었습니다.》

《?!》

《보이라직장에 와서 아직 <재굴>안에 들어와 보지도 않은 대가인것 같습니다.》

정수는 기관장의 수건으로 얼굴의 땀먼지를 훔치며 넋지지 웃었다.

《<재굴>을 만들고 굵개콘베아를 놓은지 십년이 넘지만 들어와 본 사람은 몇이 안되지요. 탄재처리공들도 굵개콘베아가 고장이나 나면 들어오

니까요.》

《어두워서 편인들 어디 찾겠습니까?》

아무래도 혼자 들어온 품이 직장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이 가슴에 뻗혀 내려가지 않은 모양이라고 소조원은 생각하였다.

소조원의 목소리가 무거워짐을 깨달은 기관장이 그를 안심시키려는듯 손세를 써가며 설명했다.

《<재굴>속에 물을 뿌려 재를 다 가라앉히고 불만 밝게 켜놓으면 기계수리는 문제가 아니지요.》

《혼자서야 여기서 일을 해내겠습니까?》

《사실은 그런게 아니라... 생각되는바가 있어서...》

기관장은 주뭉쳐릴뿐 마지막 말을 잊지 못하였다.

《아무튼 굵개콘베아를 개조해야 할것 같구만요. 이게 돌아갈 때 탄면지가 보이아에도 퍼지는것 같습니다.》

정수의 말에 기관장은 대변에 얼굴이 밝아져 바투 다가앉으며 은근히 물었다.

《소조원동무, 정말 개조하십니까?》

《이런줄 뻔히 알면서 그냥 놔두어서야 안되지요.》

《난 이걸 대담하게 들어내구서... 몰루...》

기관장은 손등으로 코밑을 쓱 훑었다.

《수압으로 말이지요?》

《예, 될것 같습니다.》

소조원동문... 어쩌면 내 생각과 꼭 같습니다!》 상준기관장은 정수의 손을 덥석 그러잡았다.

《우린 방금전에 같이 시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소조원의 말에 기관장은 무안한듯 수건으로 벌어진 얼굴을 쓱쓱 문대었다.

《그랬었군요. 그 막내가 이상하다 했더니... 능청스러운데요. 그렇게 시침을 뺄 따다니.》

《하하...》

두사람은 먼지와 열기도 잊고 시원히 웃어댔다.

《기관장동무, 우리 래일부터 재처리공들이랑 공장기술과 동무들이랑 합심해서 수압재처리장을 멋있게 꾸려봅시다. 우선 직장장동무와...》

상준기관장은 머리를 가로 흔들었다.

《글쎄... 아직은 직장장동무에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

《굵개콘베아는 직장장동무의 창안품입니다.》

《...》

《십년전에 직장장동무가 보이라작업반장을 할때 창안한거지요. 핑장했었습니다. 신문에 사진까지 크게 났었으니까요...》

《.....》

《직장장동문 지금두 이걸 살불이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도내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우리 보이라를 자주 견학오는데 그때마다 직장장동문 꼭 손님들에게 굵개콘베아 역사를 말해줍니다. 모두들 열심히 듣구 쓰구 하지요. 오늘 와서야 굵개콘베아의 구조나 기술적원리가 별게 아니지만 그보다 곤난을 이겨내고 만들던 과정이 더 흥미있기때문입니다.》

《그렇다구 반대야 하겠습니까?》

《소조원동문 우리 직장장동무를 몰라서 그렇니다. 언젠가 통계원처녀가 직장장이 있는데서 나보고 굵개콘베아에서 나는 보이지 않는 재면지가 사무실에까지 들어온다고 불만스레 말했다가 되게 경을 쳤습니다. 재가루를 싫어하든 보이라직장에서 일을 못한다구요...》

《.....》

(그러면서두 직장장동무는 작업복에 묻은 재면지를 사무실바닥에 꺼리낌없이 털어놓는구나, 열관리공으로서 몸에 땀 습관일가. 그렇지만 어쨌든 탄재가루는 싫어하지 않는가, 자기도 모르게...)

외뿔오로만 생각할수 없다고 다잡고 난 정수는 기관장을 타일렀다.

《지나친 생각입니다. 수압으로 성공해서 먼지까지 말끔히 씻어내면 누구보다도 직장장동무가 제일 먼저 기뻐할겁니다.》

《글쎄 그야 그럴테지만... 그 일이 쉽게야 되겠습니까.》

(기관장동무는 공연히 걱정하는구나. 두사람이 왜 얼굴을 맞대고서도 서로 마음을 나누려 하지 않을가.)

《참, 기관장동무는 집에 무슨 일이 있는게 아십니까?》

《아...니요.》

우에서 누군가 철판을 두드렸다.

《기관장동무 그 안에 있소-?》

직장장의 성이 난 웅글은 목소리였다.

《예...》

《소조원동무두?-》

《나가겠습니다.》

정수는 쾌활히 소리치고나서 말을 이었다.

《기관장동무, 어서 갑시다. 직장장동무가 점심을 타놓는지 오랫동안입니다.》

얼마후 그들이 《재굴》에서 나오니 출구앞에는 우병만직장장이 버티고 서있었다.

《기관장동무, 빨리 가보게. 똥똥보아주머니가 식당문을 채우겠다고 야단이네.》

우병만은 눈섭을 찌프린채 화를 내어 말하고는 정수에게도 부드럽지 못한 눈길을 던지었다.

《소조원동무두 참, 얼굴이구 웃이구 그제 뵈니까.》

《일없습니다.》

정수는 우병만의 불만스런 눈길을 피하지 않으며 소탈히 말했다.

《우리 재처리공들에겐 <재굴>속에 들어가는 작업복이 따로 있다오.》

《…………》

《휴게실 두 있는데 하필 그속에서 만나야 됩니까.》

우병만은 정수의 잔등을 털어주며 나무랐다.

상준기관장은 고개를 수긋한채 배구장쪽으로 걸어가고있었다.

그의 뒤모습에 이윽히 시선을 주던 정수는 뭉썩인 은근한 어조로 말했다.

《괜한 걱정입니다. 기관장동무의 마음속에는 편이 튼튼히 박혀있는것 같습니다.》

《…………》

우병만은 말이 없었다.

3

점심식사후에 소조실에 돌아온 정수는 자신이 경술했음을 깨달았다.

(내가 무엇때문에 직장장에게 룡말로라도 마음속 핀소리를 했을가. 그런다고 직장장이 기관장과 흥금을 터놓을가.)

정수는 자기가 그 말을 웃으며 했는데도 직장장이 입에 문을 걸고 미간을 찌프리던것과 널찍한 이마에 살아오르던 갈매기나래를 잊을수 없었다.

(학급에서 허물없는 동무들에게 때로 은연중 빗대서 결함을 말해주던 그런식으로 탄물이 폭든 우람한 직장장과 사업해서는 안될것이다. 내가 직장장을 얼마나 아는가. 과연 직장장을 학급동무들만큼 친하게 사귀었는가. 그와 인간적으로 사나이답게 심장을 맞대고 마음속을 나누기라도 했단말인가. 그런데도 직장장동무는…)

정수는 직장장이 《재굴》속에 들어갔다는 자기를 마치 동생을 대하듯 책망하며 탄면지를 털어주던 그 아끼는 마음을 가슴뿌듯이 느끼고있었다.

책상에 다가와 앉은 정수는 흰 종이말이를 꺼놓았다. 상준기관장이 착상한 수압재처리장치를 그려볼 결심이었다. 현실에 나와서 처음으로 해보는 구상설계이다. … 녀대의 보이라에서 떨어지는 탄재의 무게와 용적을 타산하고 힘을 계산해야 한다. 물을 쏘면 김이 솟아서 불판밀굽에 어떤 영향을 줄것인지… 불판의 온도변화가 화실의 탄연소에 지장이 없을까? 탄재수로는 세멘트로? 판으로?…

정수는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시험해보고싶었다. 아니 단순한 시험으로, 성적이나 채점되면 그만인 그런 도면으로 돼서는 안될것이다. 실용성

이 있어야 한다. 번듯한 그림으로가 아니라 보이라현장에 맑은 공기를 가져오고 탄재처리공들이 《재굴》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수 있는 훌륭한 도면으로 그려져야 할것이다.…”

정수의 사색은 끝없이 번져갔고 손에 쥔 연필은 생명을 가진듯 종이우에서 살아움직이었다. 탐구의 시간은 흘렀다.…”

전화종이 울렸다.

정수는 원탁으로 가서 송수화기를 들었다.

《리정수입니다. 직장장동무니까. … 공장유치원에서 <경제선동>을? … 꼬마들이 기특한데요… 예, 곧 가겠습니다.》

정수는 책상을 거두고 밖으로 나갔다.

…보이라직장선전실엔 사람들이 꼭 차있었다. 담배연기가 자욱했다.

보이라조작공들, 수리공들, 뿔프공들, 전공들은 의자를 차지했는데 재처리공 몇사람은 뒤줄에 서있었다. 그들의 얼굴과 작업복은 탄재가 뽀얗게 울랐다. 아마 《재굴》속에 들어갔다 나온 모양이었다. 재처리공들이 그런 차림을 하고 아이들의 공연을 본다고 나무람하는 사람은 없었다. 목욕을 하고 외출복을 입고 오느라면 시간이 늦을것이었다.

연락을 치워놓은 《무대》앞으로 어린 소녀애가 치마귀를 붙잡고 쏜르르 나왔다.

《부재생산현장에 더 많은 증기를 보내기 위해 투쟁하고있는 보이라직장의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공장유치원어린이들이 준비한…》

소녀애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길다란 소개문을 용케 번지자 선전실안에서 비둘기떼가 일시에 날아오르듯 박수가 터졌다.

앞줄에 앉아 목을 빼들고 뒤쪽을 바라보던 직장장이 소조원을 보자 자리가 있으니 나오라고 손짓을 하였다.

정수는 미안스런 표정으로 손을 가로 흔들고나서 재처리공들의 곁에 가 섰다.

아이들의 공연종목은 다양했다. 노래가 많았다. 처음에 안삼불이 잘 맞지 않아 무용이 이따금 사람들의 가벼운 웃음을 자아냈다. 옆에서 손풍금반주를 하는 처녀선생이 눈짓. 고개짓을 분주히 해서야 두불이 무르익은 사파알같은 총각애가 두눈이 또릿또릿해서 찻싸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자 그 애가 직장장동무의 막내아들이야…》

《불이 익어 떨어질것 같은데…》

정수의 옆에서 재처리공들이 웃음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선전실안은 흥성거렸다.

이때 창문쪽에 앉아있던 상준기관장이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뒤쪽으로 나왔다.

순간, 정수는 기관장의 그늘진 얼굴을 보았다.
직장사무실에서 보았던 그 울적한 표정을...

심상준기관장은 사람들을 비집고 밖으로 나가 버렸다. 무대에 열중하느라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은 없었다.

(왜 그럴까? 어데 아픈가? 아니, 정말 무슨 일이 있는게구나.)

즐거운 기분은 어데론가 사라졌다,

정수는 문득 며칠전 퇴근길에서 본일이 생각났다. 창문에 불빛이 환한 상준기관장네 집에서 손풍금소리가 울려나왔다. 폭신한 실내의자에 몸을 잠근 기관장과 안해인듯한 짧은 녀인이 방북관에서 서서 열심히 손풍금을 타는 어린 소년을 행복스레 지켜보고있었다. 아늑한 가정의 향취가 떠도는 순간이었다...

그때 일이 생각키워 정수는 옆에 선 채처리공에게 조용히 물었다.

《기관장동무의 아들은 어느 앤가요?》

채처리공은 발돋움을 하고 찾아보았다.

《보이지 않는데요. 손풍금을 기가 막히게 잘 타는데 오늘은 어쩐지 녀선생이...》

필경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듯 싶었다.

정수는 유치원애들의 공연이 끝나기를 가까스로 기다리었다. 그는 교양원선생을 조용히 만나 사연을 물었다. 그러자 처녀선생은 기관장의 아들 순철이가 어제부터 아파서 유치원에 나오지 않는데 자기가 바빠서 가보지 못했다고 걱정을 했다.

(그래서 출근이 늦었겠구나. 외아들인데 얼마나 걱정될가.)

정수는 직장사무실에 올라와서도 골똘히 생각에 잠기었다. 아무일도 없다고 태연스레 말하던 상준기관장의 얼굴이 떠나지 않는다.

(내가 기관장을 찾아 <재굴>속에는 들어갔어도 기관장의 가슴속 깊이까지는 들어가보지 못했구나. 내가 혁명소조원으로 가슴을 뜨겁게 열어젖히고 대하지 못했기때문이다. 소조원의 심장이 뜨겁게 느껴지면 기관장도 아들이 앓는 일만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사소한 생활적사말사라도 서슴없이 의견을 나누고 조언을 바랄것이다. 그레난 아직 3대혁명의 전위라는 위치에서 살지 못하는구나.)

정수는 자기를 질책하면서도 상준기관장이 야속스럽게 여겨졌다.

(아들때문에 늦었다고 한마디 하면 될 일을 가지고 꼭 앉아서 직장장의 책망을 듣다니, 성미두참.) 하긴 그런 생활적인 말을 할 분위기도 아니였지. 아들때문에 직장장한테서 동정을 받고싶지 않았을거야. 그 자존심에...사람을 점 찍어놓고 다루는 직장장에 대한 은근한 반발심에서 더 그랬는지 모르지.)

사무실문이 벌컥 열리며 모서리가 닳은 사업노트를 옆구리에 낀 우병만직장장이 들어왔다. 차기책상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간 그는 의자가 무너질듯싶게 몸을 싣고서 버릇대로 책상우의 《먼지》를 훑 불고는 팔굽기등을 세웠다. 넓은 이마에는 실주름 하나 없이 다리미질한것처럼 반반하였다. 갈매기 한마리 없는 잔잔한 바다와도 같다. 우묵히 들어간 눈가에는 그 어떤 즐거운 장난을 꾸미는 아이들마냥 지긋은 미소가 떠돈다. 기분이 좋았다. 공장참모회의에서 평가를 받은 모양이었다.

《래일은 공장적으로 휴식입니다.》

우병만은 이날을 몹시 기다리고있었던듯 흡족스레 말했다.

《소조원동문 래일 하루를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글쎄요...》

정수는 자기 기분에서 깨나지 못한채 말꼬리를 흐렸다.

(뭘 할가? 동무들에게 편지나 쓸가? 매 동무들에게 보내자면 하루종일 써야 할것이다. 그레 써보내자. 나의 첫 생활에 대해서... 나와 같이 혁명소조원의 첫걸음을 내디딘 학급동무들이니 나의 심정을 리해하여 줄것이다. 열흘이 넘도록 보이라사람들과 친숙해지지 못했고 매일 얼굴을 마주 대하는 직장장이나 기관장조차 깊이 알지 못한채 당황해서 허둥거리는 나의 고충을... 아니, 편지를 쓸게 아니라 기관장동무의 그 수압재처리장설계를 해야 한다. 그렇지, 그게 중요하지, 그리고 기관장동무네 집에도 찾아가보고...)

《소조원동문 꼭 대학강의실에 앉아있는것 같구려.》

직장장의 웃음 띤 말에 정수는 눈을 슴벅이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어만지었다.

우병만은 상반신을 정수쪽으로 내밀며 은근히 물었다.

《저 소조원동무, 래일은 내 계획대로 하지 않겠소?》

《?...》

《주동무와 사귀어봤지요?》

《누구라고요?》

《모르는군그래, 거 있잖소.》

우병만은 손가락을 오그리더니 팔을 쭉 뻗쳐 반원을 그려서 두툼한 입가에 가져갔다.

《맥주는 좀 마셔봤습니까.》

《그건 사촌이지요. 청량음료니... 아무렇든간에 좋수다. 래일 일찌감치 우리 집에 오시우.》

《아침부터 하겠습니까?》

정수는 놀라서 물었다.

우병만은 몸을 등받이에 제치며 만사를 다 예견한다는 너그러운 표정을 지었다.

《낚시대를 들구 늪에 가잔말입니다. 머리도 쉬 올겸, 안주감도 마련할겸 어떻소?》

《…………》

《저녁에 풍로를 방가운데 놓구서 남비에 잉어를 끓인단말입니다. 양념을 얼벌벌하게 치구선 둘이 마주앉아 보글보글 끓는걸 떠마시면서 한잔 하기란 기막히다오. 얼굴에 노율이 확 피여오르지요. 대학시절에야 언제 그런 생활을 맛보았겠소.》

《…………》

《침묵이란 좋은거지요. 사람에게 분별을 가르치니까. 아무렇든간에 좋을대로 하시오. 난 강요하지는 않겠소.》

정수는 친절하고 다심한 직장장의 호의를 거절하는것이 진심으로 미안스러웠다.

《후날에… 꼭 가겠습니다.》

《그러시우, 바쁜 일이 있으문… 나두 안가겠소.》

우병만은 서운한듯 뜨직이 말했다.

… 밤이 이슬할무렵,

우병만직장장과 정수소조원은 현장을 한바퀴 돌아보고서 가지런히 퇴근길에 올랐다.

비방울이 후두둑 가로수잎사귀에 떨어지더니 잠잠해진다. 무덤지는 않았다. 서늘한 바람이 나무잎새들을 설레설레 어루만진다. 밤구름은 느직이 흘러가고 검푸른 하늘속에서 별들이 하나, 둘… 조용히 웃는다.

《기관장 그 사람이 또 일찌감치 집으루 갔는데… 아침엔 늦게 나오구 저녁엔 열관리공들과 같이 가구…》

우병만은 불만스러운듯 중얼거린다.

《아들애가… 앓는것 같습디다.》

정수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기관장이 그러니까?》

《아니…》

《그렇리 없지요. 떡돌같은 녀석인데… 낮에 유치원공연때두 순철이가 없는걸 보니 또 할머니네 집에 갔을거요. 대를 물릴 녀석이라구 금이야육이야 하니까.》

《…………》

주위는 고요하였다.

저벅저벅 고즈넉한 밤대기속에서 두사람의 발자국소리만이 들린다.

오래도록 말없이 걸었다. 집은 아직 멀었다. 밤길을 이렇게 걷기는 피로운 일이다.

정수는 자기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하리라고 생각했다. 직장장의 사업과 생활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이런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다니…

(기관장동무의 창안에 대해 말해볼까? 마음속의 편이야기처럼 직장장의 기분을 잡쳐놓으면 어쩔까… 그래 그건 이르다. 아직 착상에 불과하니

까. 직장장은 여전히 끝은 눈으로 기관장을 속단하고있지 않는가. 왜 그럴까? 상준기관장을 잘 안다면서… 아니다. 직장장은 기관장의 경력도, 취미도, 가정도, 성격도 잘 알지만 그의 마음속은 모른다. 사람을 안다는건…)

정수의 생각은 점점 깊어졌다. 문득 직장선전실이 떠오른다. 탄재가 오른 얼굴로 뒤에 서서 유치원공연을 보던 사람들… 재처리공들에겐 《재굴》속에 들어갈 때 입는 작업복이 따로 있다고 레사로이 말하던 직장장…

머리우에서 밤새가 천성적인 구슬픈 소리를 내며 날아간다.

《저… 직장장동무는 보이래재처리공들의 장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렇든 다 젊은 사람들이니 발전하겠지요.》

우병만은 심드렁히 대답했다.

《어떤데로 말입니까?》

《글쎄… 발전하는 길이야 많지요. 전철기를 어떻게 제끼는가에 따라서… 탄재에 절은 사람들이니 어데 가두 제구실은 할겁니다.》

《…………》

《여기저기 승급할수두 있구, 기사루두 되구… 아무렇든간에 폼자면 많지요.》

《년로보장나이가 되도록 재처리장에서 일할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야 있지요. 아니 있어야지요. 그러찮으면 재처리장은 누가 지키겠소.》

《그 사람들은 굵게콘베아가 고장날 때마다 늘<재굴>속에 들어 가야겠구만요…》

《고장안나는 기계가 있나요. 일할 때》 좀 힘들구 어지러워두 목록을 하고나면 멀썩해진다오.》

《그것까지 없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소조원동무, 지금은 신선놀음이라우. 그전날에는 어쨌는줄 아시오? 굵게콘베아가 없어서 재처리공 매 사람이 탄재를 손밀차에 퍼담아 보이래 밖으루 내갔지요. 그러느라니 재면지가 오죽했는줄 아시오? 땀등이나 흘렸지요. 그러던걸…》

우병만은 입을 다물었다. 아마 자기 자랑을 하는것 같은 생각이 든 모양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땀배를 꺼내더니 걸음을 멈추고 성냥을 그었다. 불빛에 두툼한 입술주위와 널찍한 이마와 동그스름한 얼굴륵판이 뚜렷이 드러났다.

《굵게콘베아를 직장장동무가 창안했다지요?》

《어떻게 아우?》

《신문을 봤습디다.》

정수는 룡조로 말하고나서 웃었다.

《누가 말했는지 아무렇든간에 인젠 소조원동무두 아는구려.》

우병만은 흡족스레 말하고나서 담배를 빨았다. 빨간 담배불이 허공에서 홍보석처럼 빛났다.

《후- 참 세월이 빠르기도 하군, 열관리공으로

일을 시작하던 때가 어제같더니 벌써 스무해가 돼오는구려... 그때는 일이 힘들구 어려웠지만 생활은 재미있었지... 열관리작업반이 한식구들 같았으니까. 로임을 타면 네돈 내돈이 따로 없이 썼다오. 장난들은 얼마나 세쨌다구. 아찔한 보이 라굴뚝뚝뚝까지 오르내릴내기도 하구... 겨울철엔 점심시간이면 얼음판에 나가서 팍삽으루 <호케이>를 했지요. 스케트를 신구 진짜 호케이채를 가지구 하는것보담 훨씬 재미있었다오. 아차하면 미끄러져 궁둥방아를 찢었지요. 힘든줄 모르구 보이라에 불을 땀소. 굵개콘베아두 만들구... 그때 동무들이 인제는 다 발전을 하구 판데루 가구 남은 사람이란 기관장하구 수리반장. 나... 정말 몇이 안되는군.》

《직장장동무는 열관리공시절을 잊지 않고 있군요.》

정수는 직장장이 가슴에 지니고있는 소중한 추억을 진심으로 귀중히 여기고싶었다.

《어떻게 잊을수 있겠소. 열관리공들과 늘 얼굴을 마주대구있으면서...》

《지난 일을 잊지 않는다는건 중요한것 같습니 다. 그 시절을 즐거이 회고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일군이 된 오늘에도 그 어려웠던 열관리공시 절의 눈으로 직장사람들을 본다는것이 아닙니 까.》

《.....》

우병만은 말이 없었다. 그의 입술에서 담배불 이 더는 빨강게 타오르지 않았다.

묵묵히 걸어갔다.

갈림길이 나졌다. 공장사택지구로 가는 길과 합숙쪽으로 가는 길이었다.

《왜 저쪽으로 안가우? 사택마을루 해서 가면 길이 두굽은 되겠는데...》

우병만은 침울한 어조로 물었다,

《직장장동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밤길을 걷고 싶습니다.》

《.....》

우병만은 무슨 깊은 생각에 잠겼는지 소조원이 이따금 말을 꺼내도 짤막히 대답할뿐이었다. 화 제는 더 이루어지지 못했다.

얼마후 그들은 사택지구에 들어섰다. 불빛이 흐르는 집집의 창문들이 밤의 눈동자들마냥 다정 스레 반기였다.

4

바람한점 불지 않는 늪의 수면은 물유리를 바 린듯싶다.

늪가에 선 수양버들은 물속에 비낀 자기의 푸 른 얼굴을 상냥스레 굽어본다.

밀짚모자를 깊숙이 눌러쓴 우병만은 개버들과

창포들이 어우거진 기슭의 돌밭에 쭈그리고앉아 있었다. 감부기를 바라보는 그의 눈길에는 어떤 고기가 물리였을가 하는 기대와 긴장이 조금도 어려있지 않았다. 낚시질의 쾌감과 흥분보다도 더 심중한 그 무엇이 불빛이 어린 그의 우묵한 눈에 비끼었다.

아침에 뜻밖에도 소조원이 찾아와서 가자고 하지 않았던들 우병만은 늪에 나오지 않았을것이 다.

어제밤 소조원이 한 말들이 아직도 가슴속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다.

(그래, 내가 굵개콘베아를 만들 때와 같은 그런 맘으루 재처리공들을 생각하지는 못해. 아무렇 든 직장장이 된후로는 그들의 앞날이란 문제에 대해선 한번도 생각한적이 없지 않은가. 비록 이 따금씩이라도 재처리공들이 <재굴>속에 나들어야 하는것두, 그때마다 목욕을 하는것두... 소조원 보다두 직장의 호주인 내가 더 가슴아프게 여겨 야 할일이 아닌가. 매일 얼굴을 마주대구 살면서 두 보통일로 여겼겠지...)

우병만은 머리를 돌려 수양버들쪽에 낚시대 를 드리우고 앉아있는 소조원을 신뢰의 눈길로 넘겨 다보았다. 일이 바쁘다던 소조원이 수리반장의 낚시대를 빌려가지고 찾아온걸 보면 정말 한대포 할생각이 있는 모양인가? 아닌게아니라 합숙에 있는 소조원인데 집에 한번 청하려던것이 마침 잘된것 같았다.

대학모표가 붙은 모자를 단정히 쓰고 청곤색교 복을 입은채 엉거주춤 앉아서 늪우에 뜬 감부기 를 심중히 들여다보는 소조원의 사색적인 모습은 낚시대기낚시꾼이라는걸 말해주고도 남음이 있었 다.

(그런데 려행가방은 왜 가지구 왔을가? 빨래감 을 넣었나? 그렇다면 진작 집에다 두고 왔을걸, 마누라가 빨게스리...)

소조원은 슬그머니 몸을 일으키더니 낚시대를 거머쥐었다. 앞으로 구부린 두다리는 긴장해졌다. 그가 번쩍 팔을 휘둘자 낚시대는 허공에서 반원 을 그리더니 손바닥만한 붕어가 풀밭에 나가 털 썩 떨어졌다.

《저런! ... 그렇게 급히 당겨선 안되우. 약간 채놓고는 천천히...》

우병만은 더 말을 할 사이가 없었다. 그의 감 부기가 세차게 오르내리더니 등등 떠가다가 물속 에 쏙 들어갔다. 우병만은 일어나지도 않은채 낚 시대를 슬며시 당기었다. 큼직한 잉어가 물우에 서 미끄러지듯 구불뻑거리며 끌려나왔다. 흡족해 서 담배를 입귀에 끼나들고 고기를 따 넣는 그보 다도 소조원의 얼굴에 더 밝은 미소가 피여났다.

물고기는 연방 물려나왔다. 붕어, 메기, 잉어... 한참 그렇게 잡히더니 해가 높이 뜨자 즈믄해진

다.

우병만은 소조원쪽을 바라보았다.

몇번 빈 낚시대만 들었다 놓은 소조원이 풀발 위에 종이를 퍼놓고서 무엇인가 열심히 그리고있었다.

우병만은 호기심에 끌려 다가갔다.

《소조원동무, 그건 웬 도면이요?》

《탄재처리를 수압으루 해보자구 해서 좀 그려 보는중입니다.》

《수압으루?!》

《정광수송하듯이 보이라밑에서 탄재를 끌어내자는것입니다.》

《!》

우병만은 풀발에 퍼더왔더니 종이를 자기 앞에 끌어당기였다.

《소조원동무, 거 눈이 번쩍 뜨이는 생각이구만요! 재먼지는 다 물속에 씻기겠구, 고장날 일두 없겠구... 이걸 소조원동무가 생각해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착안했습니다.》

《누굽니까?》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무르익을 때까지 직장장동무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정수는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어째서요?》

우병만의 넓은 이마에서 대뜸 갈매기가 살아올랐다.

《직장장동무가 굵개큰베아를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

우병만은 피로운듯 나직이 한숨을 쉬었다.

《직장장동무, 사람마다 자기 창조물에 대한 애착심은 다 가지고있습니다.》

《아무러문 있지요... 허지만 그런 애착심은 보수주의뿌리라오.》

우병만은 눈시울을 찢프리고 준절히 말했다. 그의 이마에서 갈매기는 성이 난듯 나래를 푸둑 거렸다.

《소조원동무, 이 우병만이는 그런 서푼짜리 애착심때문에 굵개큰베아를 들어낸다구 눈물을 흘리지는 않을겁니다. 나를 그렇게 보는 사람이 누구요? 어느 작업반이요, 보이라 조작공이요, 재처리공이요? 내 당장 가서 속을 터놓고 말할테요!》

정수의 가슴속에서 후두두 기쁨이 끓어올랐다. 허심하고 대범하게 나오는 직장장이 더없이 고마웠다. 상준기관장도 직장장의 이런 마음을 알면 얼마나 반가와할것인가.

《직장장동무, 기관장동무를 찾아가보십시오.》

《그사람을?!...》

《기관장동무는 어제 점심시간에 <재굴>안에서 이걸 시험해보구있었습니다.》

낚시질은 더 흥미가 없었다.

두사람이 잡은 물고기는 그물주머니에 거의나 찼다.

늘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은 말이 적었다.

갈림길목에 이르자 정수는 걸음을 멈추었다.

《소조원동무, 왜 그러시우? 우리 집엔 안가겠소?》

《직장장동무, 전 합숙에 가겠습니다. 일이 있어서...》

《휴일인데 일은 무슨?...》

《독신생활인데 왜 일이 없겠습니까.》

《빨래는 우리 집에 맡기우.》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요. 참 직장장동무는 이제 기관장동무를 만나지요?》

《만나... 보겠습니다.》

정수는 우병만에게 묵직한 가방을 내밀었다.

《이걸 가지구 가십시오.》

《?...》

《순철이가 아파서 사흘째나 누워 변변히 먹지 두 못한답니다.》

《?!》

《...별루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

《그리구 참, 가셨던김에 이 도면을 함께 보구 토론해주시시오.》

《소조원동무!...》

우병만은 랑손에 낚시대와 도면, 가방 그리고 물고기가 든 그물주머니를 나누어쥔채 멍하니 서서 저만치 바삐 걸어가는 소조원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기만 했다.

소조원은 가로수길 저쪽으로 멀어졌다.

그제야 우병만은 기관장의 집에 어떻게 갈가하는 걱정이 덜컥 들었다.

(그렇게 훌륭한 창안을 하는 사람을 마음속의 편이 빠졌다고 꾸짖구선 무슨 낮으루 만나보랴. 떡돌같은 순철이녀석이 앓는데 빈손으루?... 왜 몰랐단말인가. 어제밤 소조원이 말했을 때조차 믿지 않으려고 했지...)

우병만은 가슴이 쓰리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일을 잊지 않는다는건 그 시절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는것이라던 소조원의 말이 귀가에 쟁쟁히 울려왔다.

(그래, 나는 그때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려고 안했어. 기관장도 재처리공들도... 그러니 얼굴을 맞대고 살아도 마음속을 모르고... 심장은 차졌됐구나.)

그물주머니에서 잉어가 풀떡 뛰었다.

순간 우병만의 머리속에는 환희와도 같은 기쁨이 솟구쳐올랐다.

(잉어, 잉어가 있구나! 입맛이 없구 몸이 약해졌을 때야 아무렇든 잉어탕이 제일이지... 소조원동무, 고맙소. 소조원동문 그래서 낚시질을 가져구왔됐구려...!)

당을 따르는 마음 외 1편

구희철

내 가슴엔
언제나 넘치는
사랑의 샘,

내 머리우엔
한없이 따사로운
은정의 해빛,

그 사랑
내 삶을 꽃피워주고
그 해빛
내 가는 앞길에 찬란해

아,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어머니당의 은정이어!
내 사는 행복의 집
설계의 작은 점으로부터
해 잘 드는 창문까지
먼저 당이 다 보아준것이어서

길을 가다가도
문득 울려오는 새 노래에
내 가슴 젖을 때도
그 아름다운 선률에
우리 당의 뜨거운 손길 어려있어

언제 어디서나
늘 가까이에만 있는
어머니같이 정다운 눈길
아버이같이 다정한 손길

당이어. 그대를 우러를 때면
철없는 아이처럼 서슴없어지고
인자한 그 부름엔
응석많은 아이처럼
마구 달려가 안기는 품

일만시름 혼자 다 안고도
이 아들의 작은 아픔을 두고는
피로운 마음의 천백배를 더 안아보며
온밤 잠들줄 모르고 빛나던

당중앙창가의 불빛이어!

어제날엔 내 철없어
그 사랑 다 받아안았고
다 자란 오늘은
알면서 또 받는
아, 당의 사랑은
정녕 바다같이 하늘같이 끝없는것인가

한번 안기면
한생을 받는 그 은정
알며 받는 사랑보다
모르고 받는 사랑이 더 많아
이처럼 가슴은 뜨거워지는것인가

그 사랑
이제는 내 온몸에
심장의 더운 피처럼 흐르고
내 온 가슴에
뜨거운 숨결로 차넘쳐

오. 어디서
어디까지가
나의것으로 되고
우리 당의것으로 되는지
하나로 되어 정말로 알수 없는것

천만 어머니품을
혼자 다 대신하는 그 품
우리 당의 그 사랑
언제면 참말로 다 알수 있을까

그렇더라 당이어
변함없는 이 마음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그대 준 정치적생명으로 빛내가리

나날이 번영하는 주체의 조국에
비약의 나래를 펼쳐준
그대의 손길따라
운명도, 명예도, 미래도 바쳐가리

우리 당의 사랑으로 역세진 이 어깨

우리 당의 숨결로 뿜이는 이 심장
바치리라
이 어깨로 조국의 짐을 덜며
이 심장으로 시대의 맥박을 더하며...

한자욱도 당을
한순간도 당을
머리에 흰서리 내린 투사들이

세월을 이으며 따르고
아버지 어머니들이 따르는 그 길에
나도 발자욱 덧찍으며 따르리

아, 나의 영원한 노래이고 기쁨인
당이며, 그대 주는 그 사랑 안고
한생을 받들어갈
나는 그대의 한 아들이여라.

좋은 봄 좋은 철에

기다리던 봄비
때맞춤 내리니
푸른 벌 살진 땅이
부풀어오르는가

봄비에 젖으며
마음도 젖으며
해질녘 물길은
분조장과 소조원 나란히 걸어가네

좋은 봄 좋은 철에
당의 믿음 안고온 소조원도
농장의 분조장도
가슴뜨거워지는 하나의 생각

수령님 이 벌을 지나시다
봄비를 손에 받으시며
급비가 내린다고 그리도 기뻐하시던
못잊을 그 봄날의 이야기

벌에 깃든 어버이사랑
뜨거이 새겨안으며
소조원과 분조장
농사일 꽃피워갈 생각안고 걷는
그 가슴에도 보슬보슬 봄비는 내리고...

소조원은
봄비 내리는 들길을
벌이 정들어 걸어가고
분조장은
그 마음을 읽으며
하나로 찍혀지는 두자욱

푸른 이랑 푸른 벌
봄날의 꿈조차 푸르러지니
이런 날은 마음도 서로 뜨거워
그래서 두사람이 걸어도
이제는 한길로 되는 농장길이어!

이 벌에 정을 들이고
한생을 일하고 살며
주체농법대로 땅을 가꾸고
난알을 영글려갈 속마음
주고 또 받으며 걸어서
하는 이야기도 가는 길도 끝없는것인가

봄비에 젖으며
마음도 젖으며
소조원과 분조장의 가슴 한껏 부풀어
말없이 맞잡는 손과 손

뜨거움이 오가는
그 손과 손으로
세쪽의 붉은기 휘날려갈
푸른 산 푸른 들에
봄하늘은 높이 들려오르는가

두 마음속에 설레일
억만난알의 물결소리여
봄비에 젖으며 함께 걷는
산에 들에 넘쳐날
무르익을 난알의 향기여!

아, 봄우뢰 비껴간 들 한끝으로
끝없이 걷고 또 걷는
소조원과 농장원의 머리우에
아름답게 비꼰네 쌍무지개

자랑하노라 3 대혁명소조원들을

강명복

1

성스러운 로동의 첫걸음 떼던 시절
나는 만나보았다
2월의 만수대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안고온
첫 3대혁명소조원들을

그리고 나는 또 보아왔다
한해 두해
또 한해
밤하늘의 못별과도 같이
그 많은 소조원들
위훈의 빛을 뿌려온 사람들을...

나는 모른다
이들보다 성실하고
이들보다 다정한 사람들
나를 위해 갠을 위해
다심한 어머니로
다정한 동지로
언제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

공로를 세우고도
그 영예의 자리엔 남을 세우며
묵묵히 위훈의 자욱만을 찍는
겸허한 동지들
3대혁명소조원들

내 광부들속에서
성장의 새 걸음을 익혀가던 나날
소박하고도 정열에 찬
3대혁명소조원들속에서
청춘의 큰 심장을 지녔다

2

버들숲 깊은 강변길에서
해빛 밝은 교정의 창가에서
탐구의 나래를 키워온 이들
쇠돌처럼 말이 무거운 광부들이었건만

막장에서 인차 친숙해졌다
사무실 책상과는 인연이 없었기에
주인된 마음이면
일감이 스스로 생기는 법
밤교대 마치고 돌아오는 광구길에서
홀린 쇠돌 하나 돌 좇고있는 소조원을 보았다
그리고 보았다
쇠돌을 소중히 들고 서있는 한 로광부
젖어있는 그 눈빛을

돌밭에서도
꽃밭에서 꽃을 본듯
광채를 뿌리던 눈빛
아름다운 그대 마음의 그 씨앗은
이 가슴속 깊이 뿌려졌다

나는 못잊을 그 밤을 생각하며
가슴을 적셨다
미처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막장 한끝에서
아름다운 마음의 향기를 뿜는
참다운 삶의 길동무
3대혁명소조원을 두고...

굴진의 길은 순탄만 하지 않은것
뜻하지 않은 석수에
문득 멈춰서는 순간도 있었다
그 순간에 귀중한 시간을 다 잃어버릴듯
막장이 끓어야 광산이 끓고
대건설장들도 들끓는다고
웃음 날리며 달려가던 소조원

그 뜨거운 마음의 불꽃
그 불꽃은 가슴가슴을 지퍼주었다
석수면 바위되어 막어나서고

암반이면 불물되어 녹어나갔다
신념이 확고할 때
두려움을 모르는 법
대담하고 통이 커지는 법

바로 이렇게
새 인간의 큰걸음은 시작됐더라

가는 앞길에
눈비 내려도
찬바람 세차도
오직 앞으로
자욱자욱 내짚는 소조원의 큰 자욱따라
걸음걸음 내 작은 걸음도 합쳤노라

3

흘러가는 세월따라
값없는 나날을 엮었다면
자드락길의 돌
흔하디흔한 돌과 그 무엇이 다르랴

누리는 삶을
평범하게
그저 물려만 받았다면
내 이처럼은야 환희로우랴
이처럼은야 그대들을 따르랴

정날을 밀어가는 썰녘의 한때면
말없이 정대를 받쳐주고
별많은 퇴근길에 오를 때면
새책들을 안겨주고 도면들을 익혀주고
공장대학 배움의 길로 이끌어주어

한 막장을 담당한 지휘성원으로 키워준
혁명동지들, 혁명의 전위들

언제나 앞서가며
시대의 선구자 돌격선의 기수되라고
창조와 투쟁으로
전진만을 아는 큰걸음으로
새삶의 발걸음을 띄워주었나니

그들의 열정을
그들의 숨결을
3대혁명의 진한 향기로 마시며
피어났노라
3대혁명으로 만발해가는 80년대의 화원
그 화원의 한떨기 꽃
3대혁명붉은기 깃으로...

자랑하노라
위대한 수령님의 해발로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향도따라
새시대의 역사를 창조해가는
3대혁명의 전위들
자랑하노라
영광의 그 이름들과 잇닿아
더없이 빛나는 우리의 삶
아 긍지높이 자랑하노라!

우리의 세계

김석주

하늘에 해가 있어
하나의 우주를 이루듯
이 땅우엔
당이 있어
우리의 세계를 이룬다

우리 살며 뛰노는곳
삶이 뿌리내리고
한껏 꽃피는곳
그대의 사랑 가닿는 그 끝까지
우리의 기슭없는 땅이여라

희망의 푸른 나래를 싣고
소중한 꿈
밝은 미래를 싣고
그대의 해빛 흘러가는 그 끝까지
우리의 끝없는 하늘이여라

당이여
생명의 아름다움과
삶의 은혜로움이 비끼
우리의 크나큰 세계여

사상은 빛나 머나먼 세기를 밝혀주고
향도의 빛발 천만운명을 비쳐주나니
영원무궁한 그 빛
그 사랑
그 힘

유구수천년이 흘러간 이 땅우에
새 인간
새 사회
새 자연

인류의 새세계가 그대로 하여 일어서나니

해와 별의 빛발 넘치는 세계
수령님을 위해 바치는 오늘의 삶이
영생의 빛을 뿌리고
자주와 창조의 인간들이 사는 세계

아 당이여
영원히 운명을 의탁하고 안겨사는
우리의 오늘과 래일의 세계여

그대 만민의 머리우에 비쳐든
주체의 진리
해불마냥 불타
광활한 누리에
우리 앞길 천만리로 열렸어라

이 땅의 끝에서 저 먼 끝까지
이 시대에서 저 먼 세기까지
위대한 당이 우리를 인도해
성스러운 위업으로 부르나니
영광의 그 길을 우리 걸으리

천만년 세월이 흘러
천만번 우주가 변한다 하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신념
우리의 세계인 당은 영원하리

붉은 기폭의 노을빛으로 누리를 물들이며
이 땅우에
자주의 새세계를 세우는
위대한 우리 당이여

삶을 빚내이라

정해경

뚜우-

사무실안의 아늑한 공기를 조용히 흔들며 전기기관차의 은은한 기적소리가 울려왔다.

0시 25분에 와 닿는 북행열차가 탄광지구에 들어서는데 모양이었다.

나는 창문가로 다가갔다. 땅을 구르는 전기기관차의 소음에 놀라 유리창에 송알송알 돋았던 작은 이슬방울들이 미끄러져내리며 울챙이처럼 까불거리고있었다.

바깥날씨가 여간아닌 모양이었다.

신평탄산에서 조직되는 도내 탄광부문과 립업부문 일군협의회에 참가할 토론준비에 생각을 쏟고있던 나는 이때에야 자정이 깊은줄을 느끼고 어깨박죽에서 똑똑 소리가 나게 기지개를 켜고 나서 손바닥으로 뺨 유리창을 훑치었다.

물기가 번들거리는 유리창을 통해 역구내가 희미하게 내다보였다. 구내철길이며 높은 역사처마 밑에 드문드문 달아놓은 누르끼레한 조명등들이 12월의 추위에 언뜻 꿈쩍 않고 감빔을 뿌리고있었다

방금 객차에서 쏟아져내린 길손들의 행렬이 앞을 다투어 역홀으로 쏠리고있었다.

외지에서 내린 길손들의 마음을 살뜰히 헤아려주는 역방송원처녀의 정찬 목소리가 울려왔다. 역에서 갈아타야 할 기차시간이며 려관의 위치며 철야식당의 문여는 시간이며...

정이 폭폭 쏟아지는 역방송원처녀의 목소리가 어찌나 친절한지 동지를 며칠 앞둔 차거운 겨울밤이라는 생각을 감감 잊게 하였다.

저 객들속에 아들집을 찾아오는 어머니며 사위집에 나들이오는 장모며 그리고 달같이 환한 아들을 나 업고 친절에서 돌아오는 어느 탄부의 마음씨 어진 안해도 있고 공장의 바쁜 업무일을 말아가지고오는 출장원들도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며 나의 눈길은 벽에 건 월력에 끌려였다.

(오늘이 벌써 12월 25일이니까 설날도 며칠 남지 않았구나.)

이때 나의 눈앞엔 불현듯 잊을수 없는 한 로인의 인자한 그 얼굴이 방불히 떠올랐다.

윤명제로인!

나의 마음은 가을바람처럼 설레이기 시작하였다. 설밑에 아들집을 다녀가겠다던 윤로인이 저

객들속에 꼭 끼여있을것만 같았다. 하나 로인의 모습을 헤아리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위치였다. 마지막사람이 자취를 감추고 안내원처녀들도 사라졌건만 윤로인의 모습은 찾을수 없었다.

마음이 산란하였다. 작년가을 출장길에 찾아갔던 윤명제로인의 모습이 물결우에 어린 달빛처럼 더욱 우렷이 떠올라 점점 그 환영의 폭이 커지면서 창문을 가득채웠다.

푸른 잎에 맺힌 맑은 이슬처럼 깊은 눈확에서 유순한 빛을 던져주는 사려깊은 눈길, 어깨뼈가 살아오르고 가슴이 꺼져들어 삶을 뿜어주던 힘과 열정의 불길이 이제 사그러들 나이라는 직감을 준 윤로인, 사진을 보는듯 창문에 방불히 어렸던 윤로인의 모습이 바뀌면서 그 큰 키를 꽃꽂이 펴고 사무실앞 마당으로 들어서는것만 같은 환각이 뇌리를 쳤다.

이때 복도에서 발자취소리가 났다.

숨막힐듯할 기쁨으로 하여 긴장된 나는 청각을 솟구었다. 널장판을 가깝게 울리는 그 발자취소리는 출입문가로 가까와지고있었다.

《?...》

가슴속에 쇠공이 같은것이 오르내리며 심장을 들볶았다.

나는 황황히 옷걸개로 걸어가 벗어걸었던 옷옷을 걸치었다. 순간 마음의 파도를 누르며 저머드는 생각, 그것은 나의 사무실이 윤로인의 아들집은 아니라는 서글픔이었다.

나는 순간에 일었던 마음을 잠재우며 다시 책상앞으로 걸음을 옮겨갔다.

똑똑, 출입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후둑후둑 뛰는 마음을 안고 출입문앞으로 다가가 대답대신 벌컥 문을 열어제겼다.

《아바이!》

나는 들어서는 아바이의 두손을 무작정 잡아쥐었다.

《사무실에 불이 켜있길래-》

당황해하는 목소리의 임자는 내가 마음속으로 웨쳐부른 윤로인이 아니라 탄광 열관리공 홍영순 아바이라는것을 알았을 때 정말 당황하게 된것은 나자신이였다.

《과장, 몸을 좀 돌봐야 하지 않겠소. 매일밤을 패니 그러다 몸에 좀이 들겠소.》

홍아바이는 이렇게 유정한 말을 등뒤로 넘기며 방열기가 있는곳으로 가 손을 대보고나서 온도의 수은주를 응시하더니 눈가에 안도의 빛을 담은것이였다.

그는 전화기가 수화기를 얹은채 고요히 조을고 있는 나의 책상앞으로 다가가더니 퍼놓은 문서장들을 거두는것이였다.

홍아바이를 대하고보니 이젠 나이가 있어 젊은 이들에게 착암대차를 넘겨주고 막장을 나온 몸이긴 하지만 손에서 탄사를 놓을수는 없다고 자진 열관리공이 된 홍아바이를 새해 설날에만은 폭쉬우고싶은 생각이 절절해났다.

그래 나는 홍아바이의 거동을 살피며 내 속심을 비치였다.

《홍아바이, 올해 설날엔 또 뻔대지 마시우. 이미 우리 일군들로 근무조직이 다 되어있으니 그리아시우.》

그 말을 들은 홍로인은 눈이 커져서 나를 곧바로 바라보는것이였다.

《그런 소릴 마시우. 새해 첫 <출근>을 하는 타아소, 유치원애들의 웃음을 못보구서야 될말입니까? 또 목욕탕물이랑은 누가 덥히구요? 집에서 노는 재미가 새해 첫 탄을 켜 탄부들이 후후 입김을 불며 목욕탕에서 나오는것을 보는 재미에 비기겠나요. 그런 말 또 할려면 내 아예 자재과 사무실결으로 다니지조차 않겠수다.》

홍로인의 목소리는 나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다. 꼭 또 한명의 윤로인이 삶과 생활에 대한 교훈을 주는것 같았다.

이런 생각을 하니 마음의 줄은 또다시 현악기처럼 울리며 나에게 아름답고 숭고한것을 심어준 윤로인의 생각을 불러와 벽차오르는 심장의 파동을 바이 주제할길 없었다.

홍아바이까지 대하고보니 윤로인에 대한 신뢰의 감정이 이 밤 나의 마음을 숲속으로 날라갔다.

작년 9월 출장길에 있는 일이건만 방금 그 체험하고있는것처럼 온몸에 느낌으로 떠올랐다. 아름답고 고귀한것은 먼 후날에 가서도 그것은 회상으로만이 아니라 가슴을 덥혀주는 불씨처럼 보존되면서 참된 삶을 불려주는 향수로 진하게 풍기는것이다.

×

작년 9월이였다.

협의회차로 신평림산사업소로 떠나는 나의 머리에겐 두가지의 생각이 두갈래의 물줄기처럼 흐르고있었다. 그 한 생각은 이번 협의회에서 탄생산이 례상외로 늘어나며 곱으로 높아진 갱목문제를 름산사업소들에 호소하여 탄광아구리밖에 갱

목더미를 탄더미만큼 무저놓고 광차마다 채워 들여밀어보자는 말은 임무에 대한 자각이였고 다른 한 생각은 동무의 부탁을 어떻게 하든지 리행하여 친구지간의 의리를 지키고싶은 심정이였다.

내가 신평림산으로 출장떠나다는것을 안 시공업관리소에서 일하는 경수라는 친구가 우리 집엘 찾아와 하는 말이 이번 출장길에 신평림산관내의 양수동이라는곳에 사는 자기 부친네 집에 들러 그곳을 떠 자기집으로 옮겨오도록 설복해달라는것이였다.

이젠 년로보장을 받은지 두해가 지났건만 숲속을 뜰 양을 보이지 않는다는것이였다. 작년에 우정 휴가를 받고도 갔됐고 수차 편지로도 전했으나 자기 힘으로는 숲엔 뿌리내린 거목처럼 움쩍 않는 부친을 움직일수 없다는것이였다.

친구는 나에게 자기 부친의 마음을 마음을 움직일 별다른 재간이 있기라도 한듯.

《큰 탄광의 수만자재를 척척 풀어나가는 수완 있는 자재과장이 우리 부친마음 하나 움직이지 못하겠나? 믿고 부탁하네. 늙은 부모를 모시려는 내 마음을 리해하리라 보네.》

이렇게 나에게 결정적인 기대를 거는것이였다.

부모에 대한 친구의 지극한 정성에 언제나 탄복해오던 나는 그러마고 장담하였다.

자식들은 어려서 부모의 보호를 받기마련이고 부모가 늙으면 국가와 자식의 보호를 받기마련이 아닌가? 그런데 친구의 부친은 아들, 며느리의 공대를 받으며 무릎에 앉아 목을 간지럽히는 손녀, 손자들의 애뜻한 손길이며 카득대는 웃음소리를 듣기를 원치 않는단말인가. 또 늙은 로인이 없다하여 숲을 가꿀 사람이 없을것은 아닐테니 녀려말라고 해놓고 떠났던것이다.

협의회에서는 석탄생산의 선행공정인 갱목생산을 높여 현대적혁신을 강화할 문제가 토의되였다.

림업일군들은 탄을 생각하는 자기들의 마음이라면서 이번 협의회회의 몫으로 내가 보는데서 갱목을 여섯차판이나 부치는것이였다.

기차러행에서 밀린 잠과 피로로 하여 앉으면 꿈을 꿀것만 같더니 차판이 넘쳐나게 실은 갱목차가 떠나는것을 보고나니 졸음을 청하던 잠기가 간간 사라지고 만사름이 풀린듯 온몸이 거뻐하였다.

이제 친구의 부탁만이 마음을 잡고있었다. 나는 네모방정하게 집을 샅히고 네귀가 들리게 지붕을 엮은데다 파란 뽕끼칠까지 하여 숲우에 날아에는 큰 새처럼 보이는 름철역사를 찾았다. 어제저녁부터 비를 싣고 서북쪽산뒤로 꾸역꾸역 밀려들던 구름이 금방이라도 물주머니를 터칠듯 오만상이 되어 수림우를 노려보고있었다.

나는 비가 내리면 물동으로 쏟아붓듯 한다는 산간지대의 특이한 날씨에 은근히 겁을 먹으며 비가 내리기전에 친구의 부친이 사는 마을에 당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나의 이 기대는 멀쑥하게 생긴 이곳 림철역무원처녀의 출현으로 산산이 깨여지고말았다.

내가 찾아가는 양수동쪽으로는 객차가 이틀에 한번씩 다니는데 오늘은 건늌는 날이라는것이였다. 또 양수는 올겨울부터 별목할 후계림이여서 아직은 그곳까지 가는 생산차도 없다는것이였다.

나의 마음은 비를 머금은 하늘처럼 무거워졌다. 하는수없이 나는 다림발이 선 철도제복을 단정하게 입은 말쑥하게 생긴 그 역무원처녀에게 외가닥 희망을 걸고 양수동의 운명제로인을 찾아가는 사정이야기를 하였다.

운명제로인이란 말을 듣자 《아니. 그 할아버질 말이에요?》하고 역무원처녀는 눈가위에 정기넘치는 기쁨을 담으면서도 가느다란 입술에 실난의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나의 마음은 조급하여 났다.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르는 날씨에 80리나 된다는 길을 허탕치고 떠날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그냥 돌아갈수는 더더욱 없는것이어서 참으로 진퇴양난이란 말이 이런 때를 두고 나온 말이라고 생각되기까지 하였다.

역무원실에서 대롱대롱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그 종소리는 나의 마음을 더욱 조이였다. 나는 은근히 이런 외진곳에 부모를 두고 친구에게 부탁정도로 아들의 의무를 대치하려는 친구를 나무람하며 번거로운 마음을 안고 행여나 하는 기대로 대기실에서 서성거리고있었다.

따분하고 갑갑한 아침나절이 이렇게 무료히 흘러갔다. 이제 담배팩에 두가치의 담배밖에 남지 않았다.

《아바이를 찾아가시는 손님?》

말쑥한 역무원처녀의 얼굴이 매표구의 작은 창문에 나타났다. 그런데 누구도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상냥스러운 처녀에게 누구든 대답해주기를 바라며 주위를 휘둘러보았다.

《아이, 양수동의 운아바이를 찾아가시는 손님 말예요.》

그 해맑은 얼굴로 올차게 말하면서 나를 곧바로 쳐다보는 역무원처녀는 애들처럼 두손으로 유리창을 퐁퐁 때리는것이였다.

그때에야 나는 번쩍 제정신이 들어 주위에 사람들이 있다는것도 잊고 《예.》 하고 웨치며 그 작은 창문앞으로 성큼 다가갔다.

《우리 사령원동지한테 보고했더니 양수 못미처 별목장으로 가는 생산차에 꼭 태워보낸 다음 보고하라고 지시했어요.》

꼭이라는 말을 즐겁게 번지는 역무원처녀의 눈가엔 기쁨이 가랑가랑 넘치는것이였다. 진정을 담은 마음의 반영이였다.

이윽하여 《뻑-》하는 기적소리와 함께 림철기관차가 역구내로 들어섰다.

대기실에 앉아 다른 차를 기다리던 손님들은 역무원처녀의 안내를 받으며 림철기관차의 운전칸에 오르는 나를 부러운 눈매로 바라보는것이였다. 그들의 눈길로 보아 생산차에 대우하여 태우는 일이 드문일로 생각되였다.

나는 가슴속이 들썩하도록 기뻐다. 나는 모자를 벗고 역무원처녀에게 깊은 사의를 표했다. 참고마운 처녀였다. 숲의 정기가 맑아 처녀의 마음도 저리 고운가싶기도 했다.

나는 나를 위해주는 이 정이 윤로인을 생각하는 이곳 사람들의 뜨겁고 진실한 존경의 표시라는것을 새삼스레 깨달았다. 이것만 보아도 윤로인은 이 숲을 자랑스럽게 뜰수 있는 자격을 가진 로인일것이다.

림철기관차는 제곡밑으로 뻗은 가느다랗고 좁은 철길을 따라 힘겹게 달리였다. 길게 달린 대차(원목 싣는 차)가 소란스럽게 덜커덩거리며 뒤따르고있었다.

마음이 즐거웠다. 숲에 대해서는 책이나 영화에서 본 알은 개념밖에 없어 수학적으로 말하면 0이라고 해야 할 나는 어린 사시나무 쇠스레나무들이 성냥가치처럼 뻗어선 활엽수림에 단박 현혹되어버리고말았다. 연록색, 담황갈색, 황록색의 작은 나무잎들이 물고기새끼들처럼 파닥거리는 모양이 볼수록 신기스러웠다.

가장 인상적인것은 섭조개같은 검실한 껍질로 몸을 튼튼히 두르고 일매지게 뻗어오른 분비나무 림지앞에 조용히 서있는 한그루의 붓나무였다. 방금 빨아입힌듯 몸매가 산뜻한 그 붓나무는 흰 타일처럼 빛을 뿌리며 숲의 운치를 한껏 돋우고 있었는데 어찌보면 귀한 그 뉘를 기다리는듯 정들어보였다.

이 이색적인 색채로 하여 숲은 더 정갈하고 우아하고 웅심깊어보였다.

그러나 숲은 나에게 즐거움만을 불러주지 않았다. 역무원실을 떠날적부터 비를 싣고 숲우로 꾸역꾸역 밀려들던 구름이 콩알같은 비방울을 쏟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검은 색이 된 수림이 바람에 태질하며 쭈우쭈우 무서운 소리를 터치였다.

《이거 야단났습니다. 양수로 가자면 기관차에서 내려서 산을 넘어야 하는데...》

기관사의 말이였다.

숲의 향기에 마음껏 취해보고싶던 나의 간절한 욕망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속이 덜컥 내려앉았

다.

기관차는 광란하는 자연의 횡포속을 뚫고 한시간나마 달렸건만 비는 경마장의 말발굽처럼 거세차기만 하였다. 기관차는 크지 않은 산봉우리를 마주하고 멈추어섰다. 나는 여기서 내려야 했다.

내가 우장을 갖추지 않았다는것을 안 기관사는 자기의 비옷을 내주며 길이 한가닥이니 헛갈릴 염려는 없다는것, 혹 산짐승을 만나면 놀래우지 말고 그냥 그 걸음으로 걸으면 된다는것 등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말을 해주는것이였다.

이렇게 되어 나는 난생처음 소요하는 비속을 헤치며 숲길을 걷게 되였다.

컴컴한 숲속으로 들어서자니 이름할수 없는 야릇한 감정이 온몸에 청침 감겨들었다.

가지에 떨어져 굽어진 비방울이 장단치듯 어깨며 잔등을 때릴 때면 가슴까지 선뜻선뜻해났고 소름이 끼쳤다.

갑자기 거대한 백마부대가 숲속을 달리듯 그 전폭의 넓이와 깊이를 가늠할수 없는 안개과도가 숲을 휩쌌다. 포말이 굽은 안개가 흰 싸그쟁이처럼 눈앞에서 아물거리며 눈섭이며 얼굴과 목에 축축히 젖어들었다.

나는 더럭 무섭증이 났다. 그렇지 않아도 산림림산으로 올 때 기차칸에서 어느 림산 벌목공이 새끼를 단 어미곰과 씨름을 했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였다. 그 벌목공은 곰과의 격투속에서도 리성을 잃지 않고 지혜를 짜내어 옆에 서있는 새끼곰의 배때기를 힘껏 걷어찼다는것이였다. 그바람에 랑긋 놀란 새끼곰이 배창이 찢어지는 소리를 치는 통에 새끼를 무척 아끼는 어미곰이 껴안았던 벌목공을 끌어놓고 새끼곰을 따라 뺑소니를 쳤다는것이였다.

나는 야장간의 물무처럼 험퍽이며 초긴장이 되어 숲을 쏘다니기에 전신의 지력을 소비해버렸다. 그만 그 외가닥길에서 마저 벗어나고말았다.

나는 발길에 무겁게 걸채는 진대목에 주저앉아 버리고말았다. 온몸이 힘줄이 빠진 사람처럼 맥을 잃었고 가슴은 비좁은 갑속에 든듯 답답해났다. 게다가 하루살이떼들이 눈구석과 귀구멍으로 쭈시고들며 성가스럽게 굴었다.

갑자기 친구에 대한 울화가 주먹처럼 옥 치밀었다. 생의 실꾸레미가 다 풀리도록 가도오도 힘든 외진 숲속에 부모를 떨궈놓고 말장단으로 자식된 도리를 지키려는 친구의 속내가 알은 내물처럼 뻥히 들여다보이는것 같았다.

시집가 아이낳겠다고 말하는 처녀는 없어도 망돌같은 아들을 나 업고다니는게 너자들이란 말처럼 어느 부모가 내 아들집에 가서 호강하겠소 하고 선뜻 나서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면서 어떤 일이있든지 이번엔 친구의 부친을 데려가리라.

그래서 나의 고생이 친구네 가정의 기쁨으로 되게 하리라 마음다지였다.

나는 머리속에 남아있는 군대복무때 군사상학에서 배운 기상학, 지형학의 갈피를 뒤지기 시작했다. 순간 부시치듯 반짝 떠오르는 생각. 그것은 양수라는 동네이름이 물과 이어져 생긴것이 아니겠는가 하는것이였다.

나는 귀를 기울이였다. 아닌게아니라 초간히 떨어진곳에서 골개수흐르는 소리가 석연히 울려왔다. 나는 그 골개수를 따라 내려가리라 마음먹었다.

물소리가 나는쪽으로 눈어림하여 허둥지둥 달리던 나는 무심결에 짙은 진대목이 꺾어지는바람에 그만 깊은 웅덩이에 쑥 빠져들고말았다.

《...여?》

분명 귀에 맞혀온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는 음악애호가인 이으락그치락하는 현악기의 선율이 끊어질가 귀를 모으듯이 신경의 오리오리를 팽팽히 세워가지고 그 소리가 한번 더 울려주기를 학수고대하였다. 초긴장이 흘렀건만 반응이 없었다.

그 소리가 영영 끊어질것만 같아 황급히 끊어진 나무가지를 잡아쥐고 진대목을 텅텅 때렸다.

《게 누구요?》

높고 쟁쟁한 금속성의 목소리를 들은 나는 구원자를 만난 기쁨으로 하여 가슴속의 모든것이 우로 솟구쳐올랐다.

《에-!》

나는 기쁨의 폭발로 이렇게 화답하며 온몸의 힘을 모아 웅덩이에서 뛰쳐올라 소리난쪽으로 마구 뛴다 달렸다.

웬 로인이 골개수와 싸우고있었다. 다가가 보니 비물에 성해진 골개수가 새지 못하도록 동을 막고있었다. 나는 로인 혼자 힘으로 밀리는 나무토막을 타고 앉았다.

《고답수다.》

이렇게 말하는 로인의 얼굴은 온통 흠발림이었고 옷은 뻔건 골개수와 한색으로 범벅이 되어있었다.

내가 나무토막밑에 부지런히 돌을 지질러놓자 로인은 돌이끼를 한아름 떠가지고 와 물이 산기슭으로 새지 못하도록 틈사리들을 땀질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세찬 물살은 방금 덕을 만든 나무토막과 돌을 위협하며 넘보고있었다.

나는 삽을 잡아들고 폭폭 땅을 파 뚫린 물구멍에 처넣었다.

《아, 그럼 안되지요.》

로인은 달려와 삽자루를 빼앗으며 내가 낸 삽자리를 살피는것이였다.

《?...》

나는 의아해하지 않을수 없었다.

《나무뿌리가 드러났군요.》

로인은 흙을 떠다 내가 낸 자리를 메꾸는것이였다. 나는 그제야 로인이 쥐고있는 어린 나무를 보았고 방금 막은 물동뒤로 내가 지나온 숲에 비하면 애기림지라고 해야 할 숲이 펼쳐져있는것을 보아냈다.

나는 나무 한대를 가지고 원심을 쓰는 로인의 담보가 웅중해보였으나 물을 막기에 공공 안간힘을 쓰는 로인을 돕지 않을수 없어 외부에 순종하는 사람처럼 로인의 뒤를 따랐다. 그러면서 이 로인이 인정사정이 없는 몰인정한 인간이겠다고 생각하였다.

풀개수는 더 뻔뻔 힘이 없든지 흠타기로 속여들었다.

자욱히 끼였던 안개가 무대막이 열리듯 숲에서 천천히 들리였다. 설퍼지는 안개가 실실이 나무 가지사이를 빠지는 양이 마치 숲이라는 푸른 바다에 씻기워 정갈해진 은빛 땀기오리들이 제 모양을 펼치며 정든 품을 떠나 멀리 하늘나라로 감치는것 같았다.

안개는 차차 더 높이 돌리고 숲이 싱싱한 푸른 자태를 펼치기 시작했다.

《수고했수다. 손님이 아니었던면 애기림지로 물이 썰뻔했수다. 세상 무서운게 풀개수지요.》

이렇게 말한 로인은 기세가 수그러든 물결을 바라보며 얼굴에 알릴락말락한 미소를 그리는것이였다. 풀개수를 이긴것으로 하여 나도 어지간히 마음이 흥떠있었다.

로인은 애기림지를 한량없는 눈길로 바라보는 것이였다. 나도 로인의 눈길을 따랐다. 이제야 농립모처럼 동실하게 생긴 림지에 이제 겨우 4~5년생이 됴직한 어린 나무들이 렬을 지어 촘촘히 서있는것을 확연히 새겨볼수 있었다.

로인은 애기림지가 안심되였던지 눈지방사이에 안도의 빛을 담으며 나에게로 돌아서는것이였다.

《어디서 출장을 오시우? 아니 가족구두가 아니시우, 안되겠수다, 막으로 잡시다.》

로인의 목소리는 좁은 구멍으로 빠져나오듯 음량이 적었다, 그대신 쇠되고 강렬하였다.

로인은 나의 대답도 듣지 않고 삽과 팽이를 메고 서둘러 앞장서는것이였다. 산림보호부문일군일것이였다. 로인의 뒤를 따라 걸던 나는 눈앞에 번쩍이는 작은 막을 발견하였다. 하얗게 껍질을 벗긴 굵지 않은 통나무로 네모방정하게 지은 귀틀막이였다. 문득 무대우에 장치한 가장물을 려상시키면서 호기심을 불러내였다. 하얀 못으로 지붕을 이었는데 마치 흰 양철지붕처럼 빛났다.

로인을 따라 막안에 들어서니 얼굴에 화기가 확 끼였어져왔다. 자그마한 솔을 건 아궁에서 젖은 나무가 실실대며 늘늘히 타고있었다.

부엌이라 이름해야 할 아궁이는 쪽구석에 삽, 팽이, 지레대들이 세워져있었고 구들이라 해야 할곳에는 깎개질을 하다가 놓은듯한 표쪽같은 판자들과 작은 량면통이 놓여있었다. 더 있다면 니켈도금을 한 바께쓰 한개와 비닐바가지가 한쪽에 치우쳐있었다. 보매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막이였다.

로인과 나는 들어서자바람으로 바께쓰에 옷을 행구어 널었다. 아늑한 막안은 인차 마음을 안정시켜주었다.

《그래 어딜 가시기에 산길을 탔댔소. 필경 양수가 아니면 잣꿀쪽으로 가는 걸음이었는데,》

로인의 음조에는 정이 배여있었다.

나는 그 물음을 기다렸다는듯 양수로 간다는 사연을 말하고 나서 그곳에 운명체로인이 살고있는가고 대답절반 물음절반으로 말하며 로인의 기색을 살폈다.

《아니, 어디서 오시기에? 내가 양수동의 운명체웨다.》

로인의 대답이였다.

나는 이때 자신을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어 주뭇거리다 로인의 아들인 경수와 친구지간이 된다는 말을 옮기고 뒤늦게나마 인사를 차렸다.

운로인은 여간 반가와하지 않았다. 그는 아들의 안부를 묻고나서 새집들이를 했다는데 며늘애의 직장파 유치원이 멀지 않는지, 인민학교에 다니는 손자녀석이 뒤를 대기 힘들게 연필을 깎아던진다는데 공부는 잘하는지, 이런것들을 옛일을 추억하듯 그러나 애정에 넘쳐 물었다. 그 음조속에는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애뜻한 정이 함함이 배여있었다.

운로인은 아들에 대한 정회를 불러오는듯 묵묵히 생각을 더듬고있었다. 운로인은 멀리둔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나는 운로인의 모습에서 이제 내가 수행해야 할 일의 결말이 내다보인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

나는 이때야야 깊은 눈길로 운로인을 새겨볼수 있었다. 희끗희끗해진 눈썹은 함치박처럼 우묵한 눈확우에 처마처럼 드리워있었는데 주글주글해진 눈까풀이 처져내려 좁아진 눈지방사이로 비치는 눈길은 어찌보면 줄음이 실린것 같기도 하고 못생각에 잠긴듯하기도 했다. 검실하고 누런 얼굴에 솟은 팽대뼈는 두개의 봉우리를 이루고있었다. 얼굴엔 주름살이 갔으나 근육들은 처지지 않고 긴장되어 있어 체내에 정력의 샘이 아직 바닥나지 않았다는것을 말해주고있었다.

하지만 살아오른 어깨며 꺼져든 가슴을 보면 활활 불길의 이글거리던 청장년시절이 멀리 뒤에 있었겠다는 생각을 자아내게 하였다. 나의 친구는 자기 부친이 년로보장을 받는다고 했는데 직접 그의 부친을 대하고보니 친구의 말과 현실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가슴이 가지 않았다. 하지만 자리가 자리니만치 이런 환경에서 그런 말을 꺼낼수가 없었다. 그래서 본의아닌 말로 숲에 사는 재미가 어떤가 말을 건넸었다.

《글쎄 제고장 나쁘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소만 숲에 살아본 사람이야 여기 정이 붙어 저 나무들을 한집안의 가솔처럼 생각들 하지요.》

로인의 목소리는 즐겁게 울렸다.

《이젠 숲에서 나왔어 나라의 년금을 받으며 사는지 세해가 되었수다. 그래도 산에서 물러났다는 생각이 꼬물만치도 없으니 이게 아마 숲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인가봅니다.》

윤로인의 은근하고 절절한 마디마디 말속에는 가식없는 마음씨가 그대로 배여있어 저절로 그의 심연속으로 끌려들었다. 나는 그제야 숲에 미련을 두고있는 윤로인의 마음을 읽을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 미련속에 내가 들이미는 든장이 배기게 될 때 로인은 나를 따라나서리라 생각하였다.

비닐박막을 댄 출입문이자 창문인 통문이 점점 맑아지며 막안을 환히 비쳤다.

윤로인은 깊은 생각을 불러오는듯 담배를 폐장 깊이까지 빨아들이더니 숨죽은 연기를 이사이로 실실이 내뿜는것이였다. 긴 이야기의 실머리를 찾는 표정이였다.

《전후복구건설때지요. 전쟁마당에서 돌아와보니 도처에서 부르는게 목재였수다. 내 당대 그때처럼 바쁘고 답답해보기는 처음이었지요. 숲이 나라에 것처럼 귀중한줄을 그때에야 이 맘속에 새기게 되었지요. 하지만 왜놈들이 마구 찍어내어 산을 벌거숭이로 만든데다 전쟁피해까지 받고 보니 찍어낼 나무가 뭐 변변한게 있었겠수.》

윤로인은 웅글은 숲의 설레임소리에 귀기울이며 전후의 나날을 더듬는듯 깊은 사색의 음영을 짓는것이였다.

《그런데 글쎄 예나 오늘이나 나라의 숲을 두고 것처럼 심혈을 기울여오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전후에 폭탄을 해제하는 일꾼들이 폭탄을 아무데다 마구 던져 어린 나무들이 상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시였구 산마다 한대의 나무라도 더 심어 나라의 숲을 만년대계로 꾸리자고 일깨워주셨단말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들은 우리는 이 숲에 뿌리내린 한대의 나무가 되고픈 심정이었수다. 그래 우린 큰 마음을 먹구 나무를 심기 시작했지요. 전쟁때 불을 안고 화선을 달리던 그 마음으로 말이웨다.》

나는 두세사람이 앉으면 짹 찰 숲속의 자그마한 막에 있다는 생각을 감감 잊고 큰 강당에서 무슨 력사강의를 듣는 청강생처럼 승엄해졌다. 산마다 푸른 숲을 바라보며 그저 자연이 주는 혜택처럼 대해왔던 자신의 빈곤한 정신세계를 이 숲에서 승엄하고 아름다운것으로 짹 채우고싶었다. 그러면서 이 숲에 나무 한대 보태지 못한, 지어 한시간전만 하여도 숲을 넘어오며 장애물처럼 시끄럽게 생각했던것까지 가책되어 송구스럽기 그지없었다. 이런 나의 마음을 풀어주려는듯 쭈우- 숲이 설레었다. 가만 새겨들으니 울조리는 숲의 저 설레임소리는 숲을 가꾸어가고 꽃피워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대한 송가처럼 나의 가슴을 적해주었다.

윤로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숲에 대해 전해오는 말이 있수다. 할아버지도 생각하며 나무를 베고 아들, 손자들을 생각하며 나무를 심는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겠수. 봄에 심고 가을에 열매보는 발농사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겠수. 숲을 가꾸는 일이란 대를 물려주는 일이지요. 그때 우리는 줄안에도 차지 않는 어린 나무를 심으며 우리 당대에 베어내겠는가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았지요. 허나 산마다 부르게 하시려는 수령님의 원대한 뜻을 꽃피운다는 한마음을 안고 제 피를 갈라준 자식처럼 하도 공력을 들여 키웠더니 울겨울에 찍어내게 되었지요. 바로 막이 얇은 이림지말이웨다.》

윤로인의 눈구석에 물기가 어리였다. 그것은 로인들한테서 마음의 걱정을 삭이지 못할 때 보게 되는 마음의 빗발이였다.

나도 눈곱이 젖어들었다. 목이 껍해오르는게 심장이 압박을 받는듯 뼈근하였다. 나는 진정 이 땅우에 태어난 크고작은 모든것에 대한 새로운 일식과 함께 생활에 립한 나의 지난 행로를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 나라 그 어느부문이건 다 우리 수령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보살펴주시건만 나는 윤로인과 같은 마음이 되어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어오지 못하였다.

《그렇지요.》

윤로인은 내 마음을 알아맞춘듯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 심장속에 간직한 뜨거운것을 마디마디 피여올리고있었다.

《자식을 키우는 심정으로 마음을 기울였지요. 부모들의 일생의 락이 빛이겠수. 자식을 키우는 재미구 다 큰 자식이 제구실을 하는것을 보는 재미가 아니겠수. 그래서 정도 마음도 자식에게 쏟는거지요. 그런데 향차 나라의 숲을 가꾸는 일이니 마음속 아꼈게 무엇이겠소.》

윤로인의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해움을 어찌는

수 없었다. 내 나이 40을 넘었건만 나의 부모는 아직도 세살 때 기울이던 그런 정으로 나를 위해 주고있었다. 그런데 윤로인은 자식을 생각하는 정보다 더 뜨거울것을 숲에 기울였으니 진정 그의 가슴에 참되고 아름다운것만 차넘칠것이었다. 나는 골개수가덕에서 윤로인을 인정사정없는 사람으로 보았던 자신을 깊이 반성하였다.

윤로인은 숲을 한가슴에 안아보는듯 가슴을 펴고 큰숨을 들이키더니 입을 열었다.

《글쎄 사람이 늙는게 나이로도 가겠지만 자식들에게 마음속을 다 퍼내주고야 안늙을수 있나요.

숲을 가꾸는 재미가 자식키우는 재미 못지않다 우.》

뜨거운 걱정이 봄시위처럼 내 가슴속으로 사품쳐 들었다. 목구멍을 달구며 열기가 솟구쳐올랐다.

나는 윤로인의 모습을 다시한번 눈에 담아보았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인민들의 받들림속에 당과 국가의 혜택을 부끄럽지 않는 마음으로 받을만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번엔 꼭 아들집으로 이사하도록 하자. 하여 지난 일을 삶의 기쁨으로 삼고 여생의 나날을 보내도록 하자. 내가 이런 생각에 젖어 윤로인에게 할 위로의 말을 고르고있는데로 로인이 움쭉 자리를 뜨는것이였다.

《먼저 내려가시우. 내 뒤따르테니.》

윤로인은 널려있는 표죽들을 거두어 배낭에 넣는것이였다. 그 개개에 다 수자가 새겨져있었다.

《이건 어디에 쓰는겁니까?》

나는 79426이라고 쓴 표죽 하나를 쥐여들고 의아해서 물었다.

《어린 나무에 번호를 달아주자는거지요. 대를 물려줄 나무인데 한대라도 스치면 되겠나요. 그래 이런 번호를 매겨놓구 가꾸는 사람들이 대대로 마음속에 새겨두고 키우게 하자는거지요.》

《이런 일이 로인에게 말겨졌는가요.》

나는 묻는대기보다 감격하여 이렇게 웨쳤다.

《아니지요. 그저 마음이 시켜서 하는 일이지요.》

나는 숲을 놓지 못하는 윤로인의 마음속에 숲속의 매 한대의 나무를 맘속에 담아키우는 숭고한 생활세계가 있었다는것을 가슴깊이 느꼈다.

막을 나서는 윤로인이 무척 돈우보였다. 나는 뛰어나올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윤로인의 뒤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신비경스러운 숲의 일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분비나무 침엽마다에 맺힌 비방울이 해빛에 반사되어 령롱한 빛을 뿌렸는데 그것은 사기로 만든 아름다운 세공품들처럼 생각되였다.

숲은 내 언제 바람에 뒤채인적있는가싶게 점심후 깊은 잠에 취한듯싶었다.

숲우에 드리운 운무를 곱게 물들이며 저녁노을이 고요히 시선을 던지고있었는데 그 금빛노을은 숲우에 무지개를 세워주었다. 하늘과 숲을 칠색현란한 고운 비단오리로 동여맨것같이 둥글게 비낀 무지개는 그 한끝을 윤로인이 심어키운 새 립지에 드리우고있었다.

무지개를 엮은 숲밑에서는 모독히 피어난 방울꽃이 방금 다치면 달랑소리를 낼듯 꽃살이 통통뽀뽀 실오리처럼 가는 향기를 조금씩 날리고있었다.

숲은 어린시절에 옛말에서 들은것과 같이 참으로 황홀경이였다.

찬란한 빛을 받은 숲은 장식된 무대우에 백광이 비쳐들듯 맑고 현란하였다.

숲속 특유의 냄새가 폐장을 쿵 찢렸다. 취할듯 진한 분비향냄새, 식초를 친듯 시큼한 참나무냄새, 시큼털털한 나무잎 썩는 냄새, 사시나무가 풍기는 매운 냄새며, 수박냄새와 같이 감미로운 숲밑 관목잎들이 풍기는 냄새, 각종 버섯들이 풍기는 향긋한 냄새들이 한데 어섞여 그윽한 향취를 풍기였다.

나는 입을 하 벌리고 숲을 바라보기에 여념이 없었다. 동고비, 박새, 휘파람새들이 나무가지사이를 즐기 날아이며 정아한 목소리를 돋구고있었다.

철갑처럼 든든한 껍질에 싸인 분비나무며 잔물결우에 저녁광이 비친듯 불으스름한 껍질을 두르고 근엄하게 서있는 잣나무며 시뻘건 장화를 신고 뽀내듯 싹누런 몸통이를 내대고 곧추 뻗어오른 이깔나무들이 싱싱한 자태를 마음껏 펼치고있었는데 나무가지들은 푸른 마당에 모여 놀음놀이를 시작하려는듯 가벼이 움직이고있었다.

그 장엄한 숲에 조화를 이루는것은 빨간 송이를 가득 품고 기껏 웃고있는 마가목나무였는데 마치 숲에 무늬를 놓은듯 이색적이였다. 피나무가지마다에 줄줄이 잠겨 익어가는 송이를 대롱대롱 드리운 빨간 오미자는 보기만 해도 입에 군침이 돌았다.

초가을바람에 놀라 얼굴을 붉힌듯 빨개진 단풍나무며 고로쇠나무 또한 이 숲에 더없이 귀해보였다.

음미해보면 숲은 마치 관악기에 현악기가 배합된 미묘한 음의 조화를 이루어 숲의 역사를 노래하는 대교향곡을 연주하는것 같았다.

숲은 나의 가슴에서 일체 개인적인 감정을 밀어내주었다.

노을끼긴 수림속을 걷고있는 윤로인의 얼굴은 한결 인정깊어보이고 유순하여 보였다. 그래서인지 말소리조차 부드럽게 울리는것 같았다.

《물끓을 따라 내려가시우. 예서 고대지요. 집에

로친이 있을거우다.》

윤로인의 권유하는 목소리가 그렇게도 정다움에도 나의 발걸음은 도리어 윤로인을 따라 무성한숲과 기슭을 맞대고있는 애기림지로 향하였다.

윤로인은 나의 걸음을 막지 않았을뿐만아니라 나에게 쇠꼬치를 달구어 수자를 새긴 표쪽을 수히 갈라주기까지 하였다.

나는 윤로인이 하는 본을 따서 나무마다에 표쪽을 달아매기 시작하였다. 물론 윤로인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어린 나무가 자라는데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였다.

일손을 잡은 윤로인은 손기가 어찌나 빠르지 말을 건넌 겨를이 없었다. 얼마쯤 나가다 돌이 가지런히 서게 되었을 때였다. 어린 나무밑에 주저앉은 윤로인이 나를 기다렸다는듯 입을 열었다.

《입에 단 음식도 과하면 병으로 되는것처럼 숲도 매한가지지요. 일이 노래서 비를 그리워하다가도 조금만 과하게 내리면 뿌리를 드러내놓고 손길을 기다리기도 하고 제 자세를 잃고 새새거리며 보호자를 목놓아 부르기도 한답니다.》

보니 로인은 드러난 뿌리에 흙을 얹어주고있었다...

우리 손에서 표쪽이 다 떨어졌을 때는 해가 하루길을 다 간 때였다.

멀리 숲밀에는 희뿌연 물안개가 뿔고 해빛은 수림뒤로 갈았으며 마지막 여광을 나무우듬지들에 끼얹고있었다.

참으로 일생을 두고 잊지 못할 하루였다.

이슬을 털며 내리던 윤로인이 가시투성이인 열매를 한줌 따서 내앞에 내밀었다. 나는 고산지대에 가시열매가 있다는 말은 들은적 있지만 먹어본적이 없어 이 가시투성이를 어떻게 입에 넣어야 할지 몰라서 반아권채 뒤따라 걸기만 하였다.

《산에서들 모두 가시포도라고 부르지요. 보긴 험해도 맛은 팬치 않답니다.》

로인은 멀경게 익은 가시열매를 입에 넣더니 이마살을 치며올리는것이였다. 그제야 나는 가시채로 먹는 산과실이라는것을 알아두며 한알 입에 넣었다. 참으로 꿀맛처럼 달고 후맛이 향기로왔다. 벌은 쓰지만 꿀은 달다는 말이 생각나서 가시투성이를 씹으며 나는 제김에 픽 웃었다.

우단처럼 보드라운 풀송이(일명 돌이게라고함)들이 발목까지 포근히 감싸주어 안정감을 주었는데 숲속을 걷는것이 아니라 대자연의 진렬장이라도 걷는듯한 기분이였다. 이제 후대들이 이 나무를 베기전에 이 숲에 산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리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후터워올랐다.

《참, 사람의 마음이란게 이상한거지요.》

로인의 목소리는 즐겁게 울렸다.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숲속을 걸을 때면 평양의 어느 거리를 걷는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 절로 주위를 휘둘러보곤한답니다. 그럼 우쭐우쭐 치솟은 나무들이 고층건물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이 짙나무, 잣나무마다에 가득 달린 이깔송이, 잣송이들이 큰 길가에 늘어선 가로등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가만 새겨들으면 이 숲에서 나는 소리가 어느 극장에서 쏟아지는 노래소리처럼 들리는게 내 평양에 산다는 생각을 갖군하지요. 웃지 마시우, 평양도 못가본게 그런 소릴 한다구, 허나 이게 뜬소리가 아니웁니다.》

윤로인은 날 보고 웃지 말라고 해놓고는 자기가 먼저 웃음을 짓더니 다시 정색해지는것이였다.

《이 땅에 넘치는 천만의 노래가 무엇이겠수. 다 우리 수령님에 대한 감사의 노래가 아니겠수.》

숲도 윤로인의 이런 마음과 한뜻이라는듯 즐겁게 춤추며 일렁이고있었다.

아! 수령님의 손길아래 만민이 행복을 누리고 도시와 마을이 키를 솟구치며 산천초목이 무성하고 이 땅에 뿌리내린 천만의 꽃들이 만발하여 향기를 날리는 내 나라! 숲도 그 사랑의 품에서 태여났음을 온 세상에 자랑하는지 쭈아-쭈아- 뻗쳐대고있었다.

그것은 수령님께서 꽃피워주신 자연의 삶과 숨결을 노래하는 숲의 장엄한 메아리였다.

우리가 얼마나 걸었던지... 애기림지가 멀리뒤에 서있었다. 무성한 숲은 검은 보자기에 싸인듯 검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그륵팍만 알릴뿐이였다.

갑자기 신성한 공기가 폐장에 미쳐왔다. 다림질한 검은 비단처럼 번들거리는 수면이 눈길을 끌었다. 크지 않은 호수가 검은 유리처럼 반듯이 누워있었다. 별들이 호수에 내려앉아 물속깊이 뿌리를 박고 새물거리며 애뜻한 빛을 던지고있었다. 이 숲속에 호수가 있다면인가, 로인은 나의 마음을 점치기라도 한듯.

《호수지요, 이 호수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요.》

하더니 두갈래의 물줄기가 합수되어 호수로 흘러드는 물목으로 가는것이였다. 그곳에 통사리나무를 빗살처럼 세워만든 수문이 있었다. 나는 그제야 골재수가 쏟아 내리는 나무뿌리며 나무아지들을 것처럼 극성스레 끌어내면 일이 바로 이 호수와도 이어져있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나는 윤로인과 같이 수문에 걸린것들을 추어내었다.

《이제 시월 초순이 지나면 제일 먼저 평양에서

찾아오지요. 대동강반에서 뽀트놀이를 한다고 할때 이 호수엔 벌써 얼음이 지니까요. 줄이 간 모자를 쓴 스케트선수들이며 길다란 <눈배>를 멘 스키선수들이 올 땐 볼만하지요. 작년 그러게 평양에서 온 선수들이 여기 와서 초겨울을 낫는데 올초경기에서 우리 나라 새기록을 세웠다고 편지가 왔습디다. 글썄 1등상으로 받은 금메달을 그려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래년초에 세계무대에 진출한다고 썼습니다. 올겨울에도 또들 올겁니다.》

호수를 바라보니 스케트날에 딱딱 얼음안개를 일쿠며 꼬리를 물고 원을 지어드는 스케트선수들이 보이는데만 같았다. 윤로인은 나에게 너무 무관심 했다는 생각을 했던지.

《이거 안됐수다. 온종일 수고만 끼쳐서...》 하며 앞장서 씨엉씨엉 걷는것이였다.

나는 온밤을 이 숲에서 보낸다 해도 그저 벽치게 기쁠것만 같았다.

나는 지난 생활을 윤로인의 숭고한 세계에 비추어 보고싶었다. 캐내는 탄의 무게에 마음의 추를 달지 못하던 정신적충격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였다.

양수동은 애기킴지를 마주한 산기슭에 자리잡고 있었다. 전등빛이 빛나고 경경 개짚는 소리가 울렸다. 고향마을 동구라도 들어서는데 마을이 뒤설레였다.

집은 모두 합해 세채였다. 한마당을 두고 서로 마주 둘러앉아있어 껍 오붓하고 다정해보였다.

《여보, 애있는데서 손님이 왔소!》

윤로인이 마당에 들어서며 하는 말에 세집의 문이 일시에 열렸다.

《아니 경수있는데서요?》

풍신중은 안로인이 부엌차림새 그대로 두팔을 벌리고 달려나왔다. 나는 한마당에 다 모인 세집 식구의 인정배인 눈길, 손길에 떠밀려 윤로인의 집으로 들어 섰다.

《우리 정수의 친구되는 분이래요.》

윤로인이 다시한번 나를 소개하였다. 어머니는 내 손을 친채 놓을줄을 몰랐다. 중키에 몸집이 좋고 얼굴이 유하게 생긴 어머니였다. 생김생김처럼 목소리도 결결하고 행동이 활달하여 친어머니를 만난것 같았다.

이날저녁 상머리에는 온화한 가정적분위기에 넘친 깨끗한 정이 녹아떨어지였다. 손을 대고 떠내게 쌓아올린 밥그릇이며 죽먹갈은 감자알이 담긴 감자그릇에서도 흰김이 물물 피어오르며 따듯한 분위기를 애무해주고있었다.

윤로인은 반들거리는 홍성재옷게안에서 비닐보자기로 뽕뽕 동인 자그마한 단지를 꺼내는것이였다. 친구의 어머니는 썩 일어나 부엌으로 나가더

니 셋노란 비닐소랭이와 가재보자기를 들고 들어왔다.

말없이 통하는게 늙은 내외간이였다. 윤로인이 비닐보자기를 풀자 술냄새가 물씬 풍기였다. 나는 두손을 내흔들었다. 맥주 한조끼에도 얼굴이 빨개지는 나였으므로 아예 못한다고 딱 잘라매었다.

《그런게 아니지요. 불개미술이라고 이게 인삼, 룡용과 같이 예로부터 불로약으로 일러오지요. 재작년에 왔던 중앙선수 한사람이 독감에 걸렸는데 이 술에 툇 떨어져 돌아갔수다. 편지마다 그 얘기지요.》

이렇게 말하며 윤로인은 안로인이 전 가재천에 다 술을 받았다.

나는 불로약이라는 바람에 바싹 마음이 동해서 사양하지 않았고 윤로인에게도 권하였다. 윤로인도 나도 기분이 어지간히 좋았다.

나는 친구의 부탁을 생각하였다. 지금이 윤로인의 마음을 움직일수 있는 더없는 기회가 아닌가... 나는 버르고 버리며 윤로인의 기색만을 살폈다. 윤로인도 어째서인지 나와 눈길이 자주 마주치군했는데 그때마다 눈가에 서그러운 빛을 지으며 내 눈길을 피하군하였다.

보매 윤로인의 얼굴에는 내가 자기를 데리러 온것을 알면서도 그 말을 꺼내지 못하고있는것이 확연히 그려졌다.

그 모습에는 자기의 귀중한것을 누가 빼앗지나 않을가 하는 우려심도 깃들어있었다.

나는 친구의 부탁을 더는 실행할 용기가 없어졌다.

그처럼 숲에 마음을 두고 사는 로인이 어떻게 숲에서 정을 뽐수 있겠는가. 이것은 조국과 이어진 귀중한 마음인데야...

이것을 잊으라고 하는것은 윤로인에 대한 더없는 모욕으로 될것이다. 아니 그보다 나의 생활에서 크나큰 오점을 남기는것으로 될것이였다.

하지만 나는 윤로인에게 자식들이 멀리든 늙은 부모를 그리워한다는 점만은 심어주고싶었다.

《아들이 세칸짜리 방이 달린 새집을 받았지요. 내 집구경을 갔더니 손녀애가 비어있는 방문을 열며 하는 말이 <이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방이야요.>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말하며 윤로인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윤로인의 눈가에 이슬같이 빛나는것이 뽐얗게 피어올랐다. 늙은 부부가 자식의 정에 목메이게 될 때 보게 되는 정희의 빛발이였다.

윤로인은 이슬이 한돌기 핑 돈 두눈을 습쩍이며 허허 허구뽕 웃음을 짓더니 입을 여는것이였다.

《가거들랑 애들 사진을 기다리더라고 꼭 전해

주시우, 개들사진이 있겠건만...》

순간 나는 목을 꺾 잡힌것 같아 더 말을 할수가 없었다. 윤로인을 통하여 자식에 대한 부모들의 영원한 정을 느끼게 되었다.

윤로인의 목소리는 또 조용히 울렸다.

《혹 이젠 여길 뜨자꾸나 하구 맘속으로 버르면 저 숲이 슬퍼우는듯 별로 우우거리며 온밤 잠들지 못하질 않습니까. 애기림지가 따라서며 품에 안기는것 같기도 하고 숲이 소리쳐 부르는것 같기도 하구, 아직 나라에 목재걱정을 끼치고있다는 생각을 하면...》

윤로인은 흥분된 마음을 갈았히느라 잠시 말을 끊더니 가슴속 깊은곳에 틀고앉은 진정의 마음을 말 마디마디에 담아올리는것이였다.

《사람이 제 마음과 로력이 나라를 위해 움직인다고 생각할 때 그제 크건 작건간에 진정 마음이 편한게 아니겠수. 그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숲에서 살아가지요. 내 이제 나무들이 잠자는 매년 설밑에나 아들 집에 다녀올가 합니다. 그렇게 전해주시우.》

나는 뜨거운것을 꿀꺽꿀꺽 삼키고있었다. 아! 가슴속에 깊이 품은 저 정하고 아름다운 맘보를, 저 숭고하고 정결한 맘보를 내 어찌 감히 건드릴수 있으랴!

둘은 가지런히 자리에 누웠다. 시간이 퍼그나 흘러 자정이 깊었지만 윤로인은 뒤척락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있었다. 나를 대하고보니 이밤따라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더 강렬히 가슴속으로 파고드는 모양이였다.

나 역시 생활이 뽀여주는 거센 숨결에 반응되어 도무지 잠을 청할수가 없었다. 나는 그 무엇으로써도 꺼버릴수 없는 윤로인의 아름답고 강렬한 마음에 마음껏 취해보고싶었다. 이 한밤을 무한한 사색과 충동속에 자신을 깨끗이 씻고싶었다. 거센 두 숨결소리가 온화한 방안의 공기를 흔들었다. 이 두 숨결소리와 경쟁이라도 하듯 어둠속에서 시계의 추가 야무지게 똑딱거리며 새벽을 불러오고있었다.

나는 그려보았다. 숲속에 자리잡은 한그루의 애기나무도, 한덩어리의 작은 석탄도, 강물에 뛰노는 한마리의 물고기도, 지어 가물에 말라든 산촌의 작은 개울에 깔린 볼품 없는 하나의 조약돌이라도 내것, 우리의것, 조국과 이어진 귀중한것이라는 생각을 이때처럼 깊게 해본적이 없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조국을 받드는 충실성은 누가 부어줄수도, 어디서 얻을수도. 돈주고 살수도 없는것이다. 또 그것은 순간에 피고 지는 꽃과 같은것도 아니며 기

압제의 바늘처럼 오르내리는것도 아니다. 그것은 영원히 마음속에서 한순간도 뗄수 없으며 그것을 놓고서는 살아도 생을 느끼지 못하는것이다. 바로 이것이 조국을 받들고 사는 우리 인민의 청렴한 마음이며 인민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는가!...

나는 이 세상에 공기가 하도 흔하여 사람들이 공기 그리운줄을 모르듯이 조국이 주는 행복이 하도 커 그 행복을 가꾸려는 마음을 기울이지 못한 자신을 깊이 뉘우치며 밝아오는 새날과 같이 넓고 광휘로우며 아름답고 깨끗한것을 가슴속에 다지고 또 다지였다....

그 이튿날 아침은 유난히도 맑았다. 나는 그곳을 떠날 때까지 친구가 간절히 한 부탁을 리행할수 없었으나 마음은 더없이 기뻐다. 행복하였다.

나는 나를 배려하는 주름잡힌 윤로인의 얼굴에서, 무성한 숲과 대를 물려줄 애기림지에서, 숲속의 작은 호수에서 수령님을 모시고 사는 조국의 밝은 모습을 보았고 조국과 이어진 우리 인민들의 옥같이 정갈한 마음을 보았다.

×

나의 회상을 깨우듯 밖에서 하늘이 푸름푸름 열리고있었다. 탄광열관리공 홍아바이가 유치원 앞마당을 나서고있었다. 이 아침 나라의 새 세대들을 맞을 유치원의 칸칸을 애뜻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았으리라.

남행열차가 기적을 울리며 떠났다. 역방송원처녀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윤로인의 모습이 다시 한번 우렷이 떠올랐다.

아직은 본적이 없는 역방송원처녀의 얼굴도 비치오고 홍아바이의 얼굴도, 저 숲속 산간역의 말쑥하게 생긴 역무원처녀의 얼굴도 떠오른다. 이들이 다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기여 삶의 희열을 노래하는 그리운 사람들, 정든 길동무들이였다.

이런 마음들에 받들리운 내 조국은 영원히 번창할것이다.

나는 사무실을 나서 막장으로 향하였다. 삶을 꽃피워주는 벽찬 조국의 하루가 또 시작되는것이였다.

멀리 앞을 바라보니 그 앞장에 윤로인이 걸어가고 홍로인이 걸어가고, 그뒤를 따라 내가 걷는것만 같았다.

삶을 빛내이라! 이것은 나자신에게 주는 말이기도 하였다.

또한 그 말의 여운은 바로 그들의 뒤를 따라 끝없이 걸게 하는 거센 부름이기도 하였다.

랭글에 핀 꽃

김영선

비뿌리는 밤이다.

농업과학연구소 연구사 박정민은 암흑의 장막이 짙게 드리운 강가에 마주 서있었다.

비방울들은 창유리를 마구 두드린다. 그러다가는 기운이 진한듯 증축해지면 창유리를 타고 비물이 끈적끈적한 기름처럼 줄줄이 흘러내린다.

깊은 생각에 잠겨 꼼짝하지 않고 서있던 정민은 《후-》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곳 군에 내려와 찬물피해를 극복할수 있는 찰벼종자를 연구하느라 밤낮을 가림없이 실험포전에서 살았다. 그러나 탐구와 열정으로 이어지던 나날은 비물에 씻겨 흘러가버린듯 추억으로만 남아있을뿐이었다.

실험은 결국 실패를 거듭하던 뒤끝에 난국에 부닥쳐 더 전진할수 없게 되었다.

이런 실패를 료해한 연구소에서는 여러번 심증히 토의하던 뒤에 정민을 소환하였다.

연구소에 올라가면 물론 새 과제를 받게 될것이었지만 랭습지를 타고있지 못하고 패배자의 행각을 하게 된 자신을 돌이켜보면 수치와 불명예로 하여 얼굴을 들수가 없었다. 뿐만아니라 막대한 자재와 자금, 아까운 시간을 헛되이 논판에 뿌려던진것을 생각하면 심장을 무딘 칼로 우벼내는듯하였다.

그는 자기의 땀과 열정이 습배인 실험포전쪽을 밤새도록 걷고 또 걸었다. 한두해에 성공을 보기는 힘들겠지만 딱히 《불가능》이라 낙인찍을수도 없는 이상 끝까지 내밀어보고싶은 마음이 불쑥 솟구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리성이 아니라 반발에 가까운것이였다.

《진공적으로 내밀어보라구. 앞으로는 나도 무관심하진 않겠네.》

간석지에서 새로운 벼재배법을 연구하여 학계에 파문을 던진 철우가 올해 정초때 정민의 고민을 듣고 한 말이였다.

동창생이며 친우인 철우앞에서까지 궁한 처지에 빠졌던 자신을 놓고 그는 씩씩게 웃었다.

연구소에서 올라오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동안이나 고민에 싸여있던 정민은 랭습지를 잊어버리기로 결심하고 떠날 준비를 하였다.

정민은 떠날 준비를 끝낸 뒤에도 정방형으로 규모있게 꾸려진 실험포전쪽에 발자국을 꺾꺾 찍으며 걷기도 하고 지치러진 벼그루를 들여다보며

오래동안 한자리에 서있기도 하였다. 이제는 아무 쓸모도 없게 된 랭습지이지만 열정의 분화구가 솟구치던 이곳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마을 한 귀퉁이가 평 뿔린듯 허전해지였다.

아침부터 찌푸둥하던 하늘에선 끝내 비발이 드리우기 시작하였다. 정민은 메달렸던 논판이 물기를 훌쩍 빨아들여 쥔 호박처럼 물렁물렁해진 뒤에야 리합숙방으로 돌아왔다.

옷을 갈아입고 담배 한대를 붙여무니 어느새 창가엔 칠혹의 장막이 짙게 드리웠다.

이때 조심히 그러면서도 초조히 울리는 손기척 소리가 났다. 정민은 출입문쪽으로 얼굴을 돌리며 《예.》 하고 대답하였다.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문이 덜컥 열리였다. 뒤미처 비에 함뻑 젖은 웬 처녀가 문앞에 나타났다.

(…?)

정민은 대번에 눈이 휘둥그래지였다. 비에 젖어 목뒤에 착 녹아붙은 단발, 억실억실한 눈… 어디서 뒹굴었는지 물에 당귀넋것처럼 축 처진 작업복웃도리까지 훑이 게발리였다.

《아- 동무가 어떻게? 어서 들어오우.》

정민은 처녀앞으로 다가서며 재촉했다. 그는 작년봄에 자기한테서 찰벼종자를 얻어가며 좋은 종자로 완성시켜달라고 부탁하던 처녀라는것을 인차 알아보았다. 그러나 이름을 어떻게 부르며 어디서 산다고 했던지 종시 떠오르지 않아 눈살을 쪼프리며 처녀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선뜻 한발을 들어놓던 처녀는 인차 문턱뒤로 발을 감추었다.

《떠나신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사실이나요?》

《래일… 왜? 무슨 일이 있소?》

《정말이였군요. 어쩔…》

처녀는 파랗게 얼어든 입술을 꼭 깨물며 오열을 삼키였다.

정민은 가슴이 섬찍했다. 혹시 자기가 일거리를 잘못된것이 있지 않는가.

《선생님, 왜 떠나십니까. 네? 가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전 선생님을 믿고있었습니다.》

처녀의 눈에는 간절한 빛이 어리였다.

어두운데 주먹이라고 무슨 영문인지 몰라 몰주머니가 된 처녀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던 정민은 그가 내보이는 벼모를 조심히 받아들였다. 벼모는 관리자의 정성을 그대로 말해주는듯 줄

대처럼 실했다. 그러나 속대가 굴지 못한 벼모는 이지방의 특수한 일기조건과 찬물샘으로 하여 어느 순간에 쓰러질지 알수 없는 일이었다.

정민은 측은한 눈길로 처녀를 바라보았다.

《처녀동무, 어찌겠소. 과학탐구의 길엔 헛된 길을 걸을수도 있는거요.》

정민은 푹 꺼진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아래입술을 잘근잘근 씹고있던 처녀는 《선생님, 우리 있는데 한번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꼭 될것 같은데...》 하며 물기어린 눈을 들어 정민을 마주 보았다.

《새 종자가 그렇게 쉽게 얻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소. 처녀동무, 그러지 말구 내 주소를 대출해니 후에 편지로 이야길 하지요. 응? 지금이야 어디...》

정민이가 몹시 난감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자 처녀의 얼굴은 대번에 싸늘하게 식었다. 처녀는 뜻밖에도 매서운 눈길로 정민을 쏘아보더니 선풍 방에 올라섰다.

《그럼 가세요. 어서... 어서 가세요. 찬물샘이 많은 우리고장에서야 선생님같은 분이 어떻게 건디겠나요. 하지만... 하지만 선생님은 후에라도 우리고장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다 저버렸다는 것을 알게 될겁니다.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처녀는 뒤번저지는 마음을 수습할길이 없는듯 손가락만 비틀어찼다. 손가락끝에서는 피방울 같은 비물이 푹푹 떨어졌다.

억이 막혀버린 정민은 더 말을 하지 못했다.

처녀는 돌아서 나갔다. 정민은 한동안 멍청히 처녀가 사라진 출입문만 바라보았다.

《음-》

정민은 자기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냈다. 처녀 한데서 받은 모욕으로 하여 속에서는 무죄주먹같은것이 꿈틀거리며 목덜미를 치받치었다...

《파르릉-》

하늘을 두쪽으로 갈라놓는듯한 우뢰소리에 정민은 흠칫 몸을 떨었다. 세차게 날아들다가 창우리에 부딪쳐서 맥없이 줄줄 흘러내리는 비물을 이윽히 지켜보던 정민은 눈을 국 감았다.

비발과 함께 날아들었다 사라진 처녀, 제가 뭐라고 남의 아픈 심장에 칼질을 한단말인가. 떠나지 말라고? 자기만을 생각하며 이고장사람들의 마음을 저버린다고? 외아들처럼 귀한것을 물어버리고 떠나지 않으면 안될 인간의 심정을 제가 감히 짐작이나 하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한단말인가. 아, 어찌된 이렇게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 처녀한테서까지 못매를 맞아야 하는가.

실패자의 쓰디쓴 눈물이 온몸에 젖어들었다.

문소리가 났다.

정민은 출입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내참, 비도 세판겐 퍼붓는군.》

하루라도 면도칼을 대지 않으면 온통 털보송이가 되고 만다고 아침마다 투덜거리곤 하던 도생 약관리소 인수원이었다. 그는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물에 푹 젖은 모자를 꺾꺾 쥐어짜며 흥흥 코노래를 부르는것이였다.

정민은 얼굴을 찡그리며 창가로 돌아섰다. 꼭도 맞지 않는 코소리가 정민의 신경을 거칠게 자극했던것이다.

《옷을 입은채 천연사와를 맞는 맛도 꽤찮군그래.》

인수원은 정민을 돌아보며 싱긋 웃었다.

《사실은 오던도중 비가 너무 쏟아지길래 월성리려관집에서 쉴가 했다가 호두알같은 처녀때문에 내쳐 건구말았수다. 벼락이 와지곤 하자 악-소리를 치며 처마밑으로 뛰어드는 처녀가 있질 않겠소. 방으로 끌어들었더니 심분도 못참고 일어나며 이 비에 모가 상할수 있다, 자기는 편안히 앉아있을수가 없다, 제발 붙잡지 말아달라, 자긴 어디든 다 갈수 있다고 하며 비발이 채찍질하는 어둠속으로 달려가고말드란말이요. 내참, 호두알두 그렇게 탕탕 여문 호두알은 처음 본다니까.》

그바람에 나두 처녀와 마음속으로나마 길동무를 하면서 내쳐 걸었수다. 와놓고 보니 개선장군만큼이나 마음이 흐뭇하군그래.》

옷을 갈아입고 창가로 다가온 인수원은 부시덕 부시덕 담배를 붙여문다.

《내참, 오늘이야 산꿀을 한짐 구했구만. 백번 짚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 없다구 무슨 일이나 마음먹구 달라붙을 탓이라니까. 연구사동무, 내 그래서 이렇게 인수원노릇을 못놓지 않소.》

어제까지만 해도 산꿀을 구하지 못해 우는 소리를 치며 지청구를 늘어놓던 그였다.

그는 속이 후련해지도록 담배연기를 깊숙이 빨아들였다가 천천히 내보내며 정민의 얼굴을 슬쩍 곁눈질해보는것이였다. 자기의 말동무가 되어달라는 눈치다.

인수원으로 말하면 국내국제정세로부터 어느 마을 누구네 가정사말사까지 모르는것이 없었다. 일단 말을 시작하면 누에가 명주실을 뽑듯 입귀에서 말이 슬슬 흘러나오는 그로서 출장목적을 실행한 오늘 입을 다물고있기란 참으로 고통스러운 노릇이 아닐수 없었다.

정민은 그와 한주일정도 함께 있는 사이 몸살이날 지경으로 피로운 밤을 보내군하였다. 그래서 정민은 아예 그에게 눈길도 돌리지 않았다.

정민의 낮색이 범상치 않음을 깨달은 인수원은 창가에서 물러나 흥흥 코노래를 부르며 가방을 챙기기 시작하였다. 그도 래일 떠나려는 모양이다.

정민은 상대방의 아픈 마음췌는 전혀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인수원이 패씹하게 생각되였다.

《내 참, 깜박 잊을뻔했군. 연구사동무, 찰벼가 꽤찮게 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괜히 떠나려구 하는게 아니요?》

뜻밖의 말해 정민은 그를 돌아보았다. 면도자리가 푸릿한 주걱턱을 쳐들고 병글병글 웃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던 정민은 인차 외면하였다. 고민이라는것을 모르고 사는 저런 인간을 탐탁히 믿을수 없는것이였다.

《정말이라니까. 나한테 산꿀을 넘겨준 그 구두쇠령감이 내 턱밑에 주먹을 내두르며 맹세했수다. 그런 꼬장꼬장한 령감이 거짓말이야 하겠소?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들랑 래일 서창의 랭꿀엘 찾아가보구래. 구두쇠령감이 산꿀을 내놓는 바람에 너무좋아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가 연구사동무말두 했더니… 내 참, 잘못하다간 산꿀까지 찢릴뻔했수다.》

흥분해서 한참 연설을 하던 인수원은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도 없자 입맛을 췌 다시며 돌아앉았다.

《내 참, 그놈의 빠스를 놓치고 네키로 모자라는 백리를 걸었더니 팔다리가 녹시군해지느군.》

인수원은 혼자 중얼거리며 잠자리를 보기 시작했다. 자리에 누워 두눈을 더부러거리던 그는 무슨 생각이 들어서인지 모포를 걷어붙이고 다시 일어나 앉았다.

《사실말이지 내 엇그제만해두 산꿀이구 뭐구 다집어던지고 돌아가려했수다. 그까짓 생약관리소인수원직업이 타구난것두 아닌거구. 그렇지만 막상 빈손으로 떠나자고 하니 랑심이 찢리더란 말이요. 생각해보슈, 주락아소에서 특별히, 그것두 날 믿구 부탁한건데 그냥 가면 얼마나 원망하겠소. 제가 필요한것이라면 하늘끝에 가서라도 구해가지고 왔을거라구 하면서말이요. 솔직히 말해서 내거라면 난 떠난지가 오래했수다. 그까짓 제거야 구하다 힘들면 그만두던가 산꿀대신에 다른걸 쓸수도있지요. 그렇지만 사람의 랑심을 가지고서야 그냥 돌아갈수가 있어야지요. 아이들을 위한것인데…내가 못구해가면 보약을 해먹이려던 계획이 다 틀러지고말테니까요. 그래서 구두쇠령감을 닷새나 따라다니며 사정을 했더니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구 산꿀을 내놓습디다. 산에서 방금 따온거지요. 허허…》

인수원은 흐뭇해서 혼자 중얼거리더니 인차 푸푸 입김을 내뿜며 깊은 잠에 폴아떨어지였다.

정민은 밤송이같은 주걱턱을 쳐들고 태평하게 자고있는 인수원을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어째서 자기에게는 저렇듯 하찮은 기쁨마저도 차례지지 않는지. 자기 목적을 달성한 기쁨을 안고 입가에 흐트한 미소를 지으며 자고있는 인수원이 부럽기까지 하였다.

다음날 아침 정민은 출발을 하루 미루고 서창

으로 가는 빠스에 몸을 실었다. 인수원의 말을 믿고 랭꿀을 찾아떠난것은 아니였다.

아침에 작별인사를 하려고 관리위원장을 찾아갔더니 그는 몹시 서운해하면서 서창농장관리위원장한테서 부탁이 왔는데 떠나기전에 서창의 랭꿀에 들러볼수 없겠는가고 물었다. 정민이가 별로 씨원히 대답을 하지 않자 그는 정민의 팔을 꼭 틀어쥐며 나이든것들의 부탁인데 들어달라고 간절히 하소하는것이였다.

그전에도 정민은 서창농장관리위원장이 랭꿀이라는데다 찰벼를 심어보려고 애쓰는 기술원을 복덩이라고 자랑하며 적극적으로 밀받침해주고있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었다.

과학탐구는 열성 하나만 가지고 되는것이 아닌지라 정민은 별로 관심을 돌리지 않았었다.

그러나 자기 일을 성심성의로 도와주고 고무해주던 관리위원장의 마지막부탁을 마다할수도 없었거니와 옆에 앉아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고있던 회계원처녀까지 거들어나서는 바람에 더 피할수 없었던것이다.

빠스는 어느덧 아스라한 산발들이 이마를 맞댄 깊은 골짜기로 빨려들어가기 시작하였다.

맨뒤 구석자리에 앉은 그는 차장으로 얼굴을 돌린채 꼼짝하지 않았다. 밤새 내린 비로 깨끗이 목욕을 한 산발들은 안개를 허리에 휘여감고 자기의 수려한 자태를 마음껏 자랑하고있다.

정민은 그림처럼 아름답고 청신한 자연을 무심히 흘러보내며 자기 생각에만 몰혀있었다.

《여보게, 우리고장이 침인가?》

정민이와 한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무릎을 흔들며 묻는 말이였다. 차창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정민이를 보고 이고장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예.》

정민은 짧게 대답했다.

《그런거 같다니까. 정들면 떠나지 못하는곳이 여기라네. 우리 큰 아들이 날 데려가겠다구 그리 못살게 굴지만 난 아예 딱 잘라메고말았네. 나날이 좋아만지는 제고장을 버리구 가진 어딜 가겠나.》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에 홍조를 띠우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아들이 어디서 뭘 하길래요?》

앞자리에 앉은 제대군인청년이 몸을 반쯤 돌리며 묻는 말이였다.

《도농촌경리위원회 기사장을 하지.》

《그래요? 거 대단하구만요.》

청년은 부러움에 찬 눈길로 할머니를 바라본다.

《대단하긴 쯔쯔, 보아하니 자네도 마음이 등떠있는것 같구만. 그럼 못췌. 어디서나 자기하는

일에 정들면 되는거야.》

할머니는 제법 생활의 선배답게 훈시를 하였다.

《하하하… 할머니두, 이제 두고보십시오. 한두 해만 지나면 아드님이 농사경험을 듣자구 저를 찾아왔던길에 할머니를 모셔가고말걸요.》

《어디 두고보자구, 그렇지 않아두 우리 작업반 기술원때문에 큰아들한테 갔다오는길이야. 우리 기술원이 랭골에 찰벼를 심는다는 말을 못들었나? 소문이 짜 하겠는데.》

할머니는 자기 작업반 기술원을 누구나 다 알고있으리라 생각했던지 주위사람들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다.

정민은 할머니의 얼굴을 새삼스럽게 돌아보았다. 랭골과 기술원에 대해서 묻고싶었다. 그러나 자신을 드러내고싶지 않아 입을 열지 않았다.

《홍 찰벼요? 괜한 고생을 하누만요. 랭수골에서 실험을 하던 연구사도 걸어가지고 떠난답디다. 전망이 없다는거지요.》

청년의 얼굴은 심드렁해지었다.

정민은 속이 띵끔하여 청년을 얼핏 바라보았다. 뺨스칸에서까지 자기 말이 오갈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것이였다.

《뭐라구? 그게 정말인가? 우리고장이야 찬물샘이 많아 놓고있는 땅이 수대 되는데두?》

할머니는 펄쩍 뛰었다.

《그러니 어찌겠습니까. 전망이 없으니까 떠나는거겠지요. 아까운 땅만 계속 썩밭이 될수밖에…》

정민은 바늘방석에 앉은것 같았다. 목밀이 훗 훗 돌아올랐다.

《나라밥을 먹구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그만한것두 못해서 쪼쪼, 연구사야 갈테면 가라지. 우리 기술원은 랭골에 벼꽃을 피웠어. 작년가을에 내눈으로 직접 봤다니까. 우리 큰아들두 된다고 했어. 그래서 밭벼등치는 손주녀석을 떼놓구 부랴부랴 떠나오는 길이야.》

할머니의 말이 어찌나 확정적이었던지 청년의 얼굴엔 화기가 확 피어났다.

《난 우리고장의 놓고있는 땅을 몽땅 조사해서 도면을 그리다가 연구사가 간다는 바람에 맥이 풀렸었는데 다시 해야겠구만요.》

《다시 하게. 그러구 우리 서창농장 7반에두 한번 놀러 오라구. 벼꽃이 피는 계절에 말이야.》

정민은 제대군인청년이 언제 내렸으며 뺨스가 어느새 종착점인 서창에 다달았는지 몰랐다.

뺨스에서 사린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웃고 떠들 때 정민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

프락포르바퀴에 움푹 패인 거치른 길을 홀로 걷는 그는 쓸쓸하기 그지없었다. 자기의 연구과제가 성공되었다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저 사

람들을 대할수 있으랴.

그의 눈앞에는 창조와 열정으로 밤을 패던 지난날들이 선히 안겨왔다.

감자알을 모닥불에 구워내며 함께 밤을 지켜주던 배수골관리위원장, 불별이 등가죽을 지질 때 시원한 꿀물을 타가지고 달려와 흠투성이가 된 손을 뒤로 돌리게 하고 고뿌를 입에 대주며 깔깔거리던 회계원처녀… 흘러간 추억만이 새록새록 가슴에 파고들어 자기의 정다운 길동무들이었던 그 사람들에게 대한 미안한 생각이 앞섰다. 그러나 어찌하랴. 과학의 세계란 그 어떤 한두사람의 욕망으로 해결되는것이 아니지 않는가.

정민의 눈앞에는 흠탕에 뒤범벅이 된 자그마한 처녀의 자태가 마주 다가섰다. 칼날같이 내쏘던 처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가에 쟁쟁히 울리었다.

(처녀야, 너는 하나의 새로운 종자가 얼마나 피라는 탐구를 거쳐 산생되는것인지 다는 모를것이다. 너도 생활의 바다를 헤쳐나가느라 이 인간의 마음이 어떠하였겠는지 리해하게 될것이다.)

정민은 어제밤 불시에 달려들었던 처녀에게뿐 아니라 관리위원장과 회계원, 그리고 뺨스칸에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자기의 심정을 하소하였다.

정민은 모판관리원이 가리켜준 길을 따라 랭골로 통한 오솔길에 접어들었다.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키돋움하며 하늘을 가리운 산속에 피처럼 늘어진 오솔길에 들어서니 별세계에라도 온듯하였다.

그는 막대기를 지렁이삼아 구불구불 뻗어나간 산길을 더듬듯 걸었다. 땅이 축축하였다. 이끼에 뒤덮인 바위는 김이 흐르듯 물기가 번들거리고 락엽이 무드기 쌓인곳에는 신발등에까지 물이 꿀쩍꿀쩍 솟구쳐올랐다. 정민은 그런것엔 하나도 개의치 않고 할머니가 것처럼 열렬히 긍정하던 서창농장 7작업반 기술원에 대해서만 생각하였다.

전문가인 자기도 물려서고만 일을 한갖 작업반 기술원이 무슨 신념을 안고 랭골에서 벼꽃을 피워보려고 하는지, 혹시 어떤 욕망의 홀림수에 이끌려 금시 큰일이라도 치를듯 해덤버치고있는것이 아니냐.

정민은 자신의 경험과 교훈에 비추어볼 때 랭습지를 타고갔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있다.

그는 천천히 산속길을 속내었다.

랑골에 들어서니 씨늘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다. 속이 으시시해났다.

키를 넘는 잠관목들이 뒤엎킨 사이로 비집고 빠져나간 오솔길을 따라 걷던 정민은 내물이 앞을 막아서는바람에 무춤 섰다. 내물주변에는 태

풍이 지나간 뒤처럼 스산하였다. 뿌리를 하늘로 쳐들고 꾸겨박힌 나무등걸들, 뒤엎긴 잡관목과 풀뿌리들... 수천수만년 땅속에 묻혀 잠자던 바위가 통나무를 베고 누워 해빛을 쬌고있다. 눈에 보이는 모든것이 그대로 살풍경이었다. 밤사이 불어난 물이 골짜기를 휩쓸고 지나간 모양이다.

과학의 무기를 들고 자연과 싸우는 정민이도 이처럼 황포한 장난질에는 진저리를 치지 않을수 없었다.

정민은 뿌리내린 나무처럼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자연이란 인간이 쌓아놓은 공적을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휩쓸어버릴수도 있다. 그런데 서창농장7만 기술원이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한들 이렇게 살벌한 골짜기에서 견디어낼수 있단말인가.

정민은 여기까지 허덕허덕 찾아온 자신이 맹랑하기 그지없었다. 다리맥이 풀렸다.

나무그루터기에 걸터앉은 그는 담배를 꺼내 붙여물었다. 담배맛도 쓰겁지만 하였다. 몇모금 빨던 담배를 집어던지고 일어서려는데 어디선가 이름모를 산새가 날아와 정답게 우짖기 시작하였다.

정민은 은구슬을 굴리듯 맑은 목소리로 우짖는 산새를 찾으려고 고개를 젖혔으나 어느 나무가지에 앉았는지 보이지 않았다. 아름다운 노래소리만이 살벌한 내가에도 생의 희열이 있다는듯 쟁쟁히 울릴뿐이었다.

산새의 정다운 노래소리에 이끌려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진 정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왕 여기까지 찾아온바치고는 땀골의 주인은 못만나더라도 벼를 심었던 흔적만이라도 보고가리라 생각하였다. 벼그루 몇개만 보아도 벼의 생육상태를 대체로 짐작할수 있었기때문이다.

내물을 건너 둔덕진곳으로 올라서던 그는 오리나무옆으로 에돌아간 물길이 눈에 띄어 그쪽으로 다가갔다. 방금 가서낸듯 잡자리가 또렷했다. 고적한 이 골짜기에도 사람의 흔적이 있는것이 무척 반가웠다. 자연의 황포성앞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억척같은 인간의 숨결이 모래알을 씻으며 흐르는 물우에 어려있는듯하였다.

그는 물길을 따라 걷기 시작하였다. 곧게 뻗어나가던 물길은 다시 오리나무쪽으로 머리를 돌리었다. 그의 앞에는 퍼그나 넓직한 물웅덩이가 나타났다. 깊이는 겨우 무릎마디에나 찰가말가한데 흐르던 물이 그곳에 와서는 잠시 숨을 돌리며 쉬다가 다시 새 물길을 따라 흐르고있었다.

웅덩이주변에는 물론 물길주변에도 늘어진 나무가지나 잡관목이 한대도 없었다. 잔잔한 물우에는 해별이 통채로 쏟아져내린다. 땀골의 주인은 웅덩이를 파고 물길의 길이를 연장하여 물을 조금이라도 덜쳐보려고 하였다는것을 첫눈에 알

수 있었다.

정민은 이런 방법이 찰벼육종에서 크게 은을 낼수는 없지만 땀골을 타고앉아보려는 소박한 한 인간의 진지한 노력앞에 감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웅덩이우에 떨어진 나무코챙이를 건져낸 정민은 다시 걷기 시작하였다.

물길을 따라 서너고개 감돌아지나자 자그마한 논판이 하나 나졌다. 논에는 아직도 묵은 벼그루가 그대로 있었다. 그는 이 벼가 자기의 찰벼라는것을 인차 알아보았다.

정민은 벼그루를 한줄 뽑아쥐고 살피었다. 원대에서 겨우 한두대의 아지를 쳤지만 그건 구실을 못하고 스러진것이 분명하다. 뿌리도 병해충에 걸렸던것처럼 왕성하게 뻗지 못했다. 찬물은 벼의 생육에 이처럼 혹심한 피해를 주는것이다.

뽑아쥐었던 벼그루를 논판에 쥔뿌리고 다시 걸던 정민은 방축이 앞을 막아서는 바람에 우뚝 섰다. 방축 한모둥이가 뭉쳐 끊어져 없어졌다. 어제밤에 밀려내려간 모양이다.

방축너머에 있는 모판과 논배미들이 절반나마 흙모래에 덮여있다.

파릿한 벼모가 보이는 모판머리에는 머리수건을 내려쓴 웬 녀인이 쪼그리고앉아있었다. 정민은 그쪽으로 다가갔다. 땃밭자국앞에까지 갔으나 녀인은 전혀 기척을 느끼지 못한듯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어떻게 불렀으면 좋을지 몰라 궁식거리던 정민은 모판으로 눈길을 돌리었다. 황달에 걸린 사람의 얼굴처럼 잎이 누렇게 뜬 벼모를 본 뒤에야 이 녀인이 왜 이렇게 락심해서 앉아있는지 알수 있었다. 자기도 이런 논배미앞에서 얼마나 애라는 가슴을 쥐어뜯었던가.

정민은 헛기침으로 기척을 냈다. 깜짝 놀라 일어난 녀인은 고개를 돌렸다.

《...??》

정민은 눈이 휘둥그레지였다. 분명 어제밤에 찾아왔던 그 처녀였다.

《어마나, 선생님이 어떻게...!》

놀람과 의문이 실린 눈으로 정민을 바라보던 처녀는 얼굴을 화짝 붉히며 고개를 떨구었다.

정민은 너무나도 뜻밖에 이런곳에서 처녀를 대하게 되자 무슨 말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그는 담배를 꺼내어 주무르다가 성냥을 두가지나 부러뜨리고야 겨우 불을 붙여었다.

《선생님, 어젠 제가...》

처녀는 고개도 들지 못한채 더듬더듬 말을 번지였다. 얼굴은 물론 상큼한 목에까지 불화로를 뒤집어쓴듯 빨갛게 익었다.

처녀는 자신을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몰라 손

바닥으로 옷자락을 내려썰기도 하고 수건귀를 손가락에 톳톳 말기도 하면서 안절부절을 못하였다.

《허, 동무가...》

정민은 어제밤 흙투성이가 되어가지고 뛰어 들었던 때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처녀를 대하게 되자 그만 말문이 막히고말았다. 이 처녀가 과연 어제 그 처녀란말인가. 지금 정민이앞에 마주선 처녀는 어질고 소박하며 연약해보이기만 하였다.

하긴 어제밤만 하여도 도고한 신념을 안고 90리왕복길을 단숨에 걸었을것이나 밤사이 사태가지고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 찬울샘이 많은 이곳에서 벼모가 견디지 못하고 시들어들기 시작했으니 한가닥 이어졌던 신념마저도 몽땅 끊어져버렸을게 아닌가.

처녀는 얼핏 눈을 들어 정민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어떤 추궁이든 고스란히 받아안을 그런 마음이 그대로 내비치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서있던 정민은 모판에서 잎이 누렇게 뜬 벼모를 뽑아들었다. 정민이 자신의 운명을 이곳에서 다시 보는것 같아 가슴이 알알하였다. 처녀가 애처롭게 생각되었다.

전문가인 자기도 결국 땀습지에서 물러나고말았는데 이 애어린 처녀가 무엇때문에 이런 일을 말아나섰단말인가.

하긴 희망과 포부가 날개돋친 새처럼 푸른 창공에 한껏 날아올 때이니 과학의 깊이가 얼마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금시 모든 일이 성사될것 같아 쓸데 없는 정열을 쏟아붓고있었을것이다. 그러나 종당엔 쓰디쓴 후회만이 가슴에 멍처럼 들어안고 말것이 아닌가.

《동문 무엇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면서 속을 태우고있소. 웡?》

정민은 측은한 눈길로 처녀를 돌아보았다.

《네?》

처녀는 정민의 말뜻을 깨닫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전혀 뜻밖의 질문이어서인지 눈살을 찌프리며 정민을 바라본다.

《육종사업이 쉬운게 아니요.》

정민은 속이 꼭 꺼지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이 땀골을 이대루 버려야 한단말입니까? 예?》

처녀는 수건이 물위에 떨어져 떠내려가는것도 모르고 애원조로 묻고 또 물었다.

정민은 어리둥절해지었다. 시드는 벼모를 놓고 상심하고있는줄 알았는데 처녀는 도리어 땀골을 살려낼 마음을 안고 몸부림 치는것이 아닌가.

《선생님, 이젠 제가 잘 돌보지 못해서 이렇게 된거야요. 지난해엔 벼꽃이 피었었어요. 벼알이 여물기두 하구. 그래서 우리 관리위원장동지랑

모두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우리 관리위원장동지는 어제밤에두 꼬박 밝히면서 모판을 지켜냈어요. 오늘아침엔 제가 락심할가봐 고무해주면서 땀골을 꼭 살려낼수 있대구 했습니다. 저두...

그런데 야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선생님, 좀 가르쳐주세요. 네? 이 땀골을 영영 살려낼수 없단말입니까. 이 아까운 땅을 그럼, 그럼...》

처녀는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모다잡은 두손으로 가슴이 터지게 꼭 눌러대었다. 정민이가 한마디만 더 부정하면 처녀는 그 자리에 쓰러져 다시는 일어설것 같지 않았다.

정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수가 없었다. 이런 처녀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한단말인가.

한동안 지나서 마음을 진정한 처녀는 조용하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무슨 일이나 사람이 마음먹구 달라붙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걸 학생때두 배웠구 우리 관리위원장동지두 늘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모두 거짓말인가요? 아무리 애를 써두 쓸데없다는거겠지요?》

뜻밖의 질문에 정민은 속을 흠칫 떨며 처녀를 바라보았다. 처녀는 진지한 얼굴로 정민의 대답을 기다리었다.

정민은 어떻게 말해주어야 할지 몰라 옷에 묻은 흙을 리는체 하며 고개를 숙이었다.

대답을 기다리며 초조히 서있던 처녀는 무엇때문인지 급하면서도 조심히 모판으로 내려서는것이였다.

(...?)

정민은 눈이 둥그래서 처녀를 지켜보았다.

처녀는 잠자리를 잡으러 가는 소년처럼 허리를 약간 굽히고 논둑 한곳을 바라보며 조심조심 걸었다.

처녀의 눈길을 따라 논둑을 더듬던 정민은 두꺼비처럼 넓적한 개구리 한마리가 금시 모판에 뛰어들려고 두눈을 데룩거리고있는것을 보았다. 그놈이 뛰어내리면 벼모가 손바닥만큼 풀썩 주저앉고 말것이다.

정민은 무의식중에 한발작 앞으로 나섰다.

개구리를 멀리 쫓아버린 뒤에야 처녀는 흘러내린 머리칼을 귀뒤로 감춰넣으며 논둑에 올라섰다. 그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지 다시 뒤를 돌아본다.

정민은 잠결에도 아기의 숨결을 감득하는 다심한 어머니의 마음처럼 모든 정성을 모판에 쏟아붓고있는 처녀한테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기술원. 어디 있나?》

이때 저쪽 잠관목뒤에서 석싹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뒤미처 물날은 농립모를 머리에 올려놓은 로인이 삽으로 잠관목을 헤치며 논둑으로 나섰다. 그의 한쪽 어깨에는 큼직한 물통이 매

달려있었다.

《뭘 하려 또 나오시나요. 어제 밤새껏 고생을 하시구…》

처녀는 로인앞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내야 뭐… 현대 기술원 치신이 말이 아니구만.

음- 이놈의 날거리두 참…》

로인은 허를 끝끝 차며 어깨에 메었던 물통을 벗어 처녀에게 넘겨주었다.

《산꿀이 아니나요?》

《어제 인수원에게 넘겨주다 조금 남겼던거야. 어서 마시라구. 그래야 기운을 써.》

로인은 손바닥으로 물통밀을 받치며 재촉했다.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정민의 눈앞에는 꿀물을 타가지고 실험포전으로 찾아나와 깔깔거리곤 하던 회계원처녀가 선히 떠올랐다. 얼마나 행복한 때였던가.

정다운 사람들과 맺어졌던 인연을 다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속이 텅 빈것 같았다.

《기술원, 모가 이 지경 됐으니 이제 어쩌면 좋은가 응?》

로인은 모관을 둘러보며 근심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처녀는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정민은 어깨가 처진 처녀를 그대로 볼수 없어 슬그머니 외면했다. 침묵이 흘렀다.

어디선가 갑자기 기관총런발사격소리같은 딱따구리소리가 들리었다.

처녀는 머리를 번쩍 들었다.

《버모를 살려야 합니다. 꼭…》

처녀의 말이 어쩌나 확고하였던지 정민은 놀란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음. 그래야지. 그래야 하구말구.》

로인은 연방 고개를 끄덕이였다.

《보세요. 비록 보잘것없긴 하지만 미량비료처리와 물순환방법을 달리한곳엔 피해를 덜 본것도 있지 않나요.》

정민은 처녀가 가리킨곳을 바라보았다. 물고열의 모판은 확실히 달랐다. 아직 과학적으로 담보된것이 아닌 이상 확정적으로 믿을수는 없었지만 무엇인가 머리속에 피곳 스치는것이 있었다.

(나는 어쩌서 저걸 보지 못했단말인가.)

정민은 처녀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실패에 짓눌려 허덕이는것이 아니라 실패를 디디고 일어나 새로운 출로를 모색하는 처녀, 자기고장의 놓고있는 땅을 부여안고 몸부림치며 자기를 짊그리 바쳐가는 처녀… 저 뜨거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지향은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정민의 귀가에는 이 순간 밤송이같은 주걱턱을 쳐들고 꾸념처럼 하던 도생약관리소 인수원의 말이 쟁쟁히 울리었다.

《…솔직히 말해서 내거라면 난 떠난지가 오랫동안수다. 그까짓 제거야 구하다 힘들면 그만두면가 산꿀대신에 다른걸 쓸수도 있지요. 그러나 사람의 량심을 가지고서야 그냥 돌아갈수가 있어야

지요. 아이들을 위한건데…》

이 말은 인수원자신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이 땅의 소생을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을 버리고 떠나려는 나를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우리 시대 사람들은 스스로 자각한 인간의 티없이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 사회와 인민앞에 세는것이다.

이 저녁만 보아도 자기 고장 사람들의 절절한 념원을 그대로 체험하고 실현해나가려고 청춘의 정열을 다 바치고있지 않는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 떠받들려있는 그는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이 막아서도 기어이 성공의 열쇠를 찾아쥐고야 말것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나의 명예와 체면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던가. 이런 정신세계에 묻혀있다보니 현실에 내려오긴 하였지만 주위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며 무엇을 지향하는가를 알고고도 하지 않고 오직 땅과 땀습지, 찰벼에만 묻혀있지 않았는가.

정민은 좀더 일찍 이고장사람들에게 관심을 돌리고 그들과 같이 호흡을 하였다면 이 처녀를 벌써 전에 알게 되었을것이며 이제는 성공의 실머리를 찾았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정민은 자그마한 이 처녀가 더없이 귀중한 생활의 길동무로 느껴졌다. 정민은 처녀의 자그마한 손을 힘있게 그러쥐었다.

《처녀동무, 동무를 알게 되어 기쁘오. 정말 고맙소!》

영문을 몰라 정민을 마주보던 처녀는 수줍게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떨구었다.

《아이참, 제가 뭐…》

《동문 훌륭한 처녀요. 앞으로 함께 손잡구 땀골에도 베풀을 피우자구.》

정민은 자기가 당장 떠나야 한다는것을 잊고 처녀와 이런 약속을 한데 놀랐다. 하지만 마음만은 더 편안해지였다.

정민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으나 배수골관리위원장과 회계원처녀가 기다릴것을 생각하니 처녀와 헤어지지 않을수 없었다.

처녀는 이런 골짜기에 흔치 않은 빨간 들꽃 한송이를 꺾어들고 뱅글뱅글 돌리면서 멀리까지 보내주었다.

고개마루에 올라선 정민은 처녀의 이름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다는 생각에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까지도 처녀는 발돋음을 하며 손저어주고 있었다. 이미 소리쳐부르기에는 거리가 멀었다.

(이름을 모르면 어쩌랴. 수경같이 깨끗한 처녀의 마음이 모래알을 씻으며 흐르는 보물처럼 이 가슴에 흘러들고있는데야…)

정민은 처녀를 영원히 새겨두려는듯 오래도록 한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검덕의 광부들

조 빈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
검덕의 광부들
쾌활한 그 웃음처럼
가슴속을 드러내고 사는
그렇듯 소탈하고 검박한 사람들
한번 마음먹으면
도화선에 불이 당기듯
타번지는 열정에 가슴맞대이고 나아가는
투지와 랑만에 찬 광부들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
함흥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유색금속 150 만톤고지를 점령할
불타는 심장을 화불에 비껴들고
화불행진의 발걸음 높이 올렸거니

오, 이들이 아니었더냐
영광스러운 당의 해빛이
막장에도 한끝까지 비쳐갔을 때
앞벽을 떠밀며
드놀줄 모르던 그 가슴
감사에 젖어 들먹인것은...

쇠돌을 캐내며 틀어진 주머
불덩이처럼 뜨겁고도 억세고
착암기의 정끝에 눈뿌리를 박은
광부의 저 눈빛을 보라
펼 펼 불이 이는것이다

고마운 당의 사랑
가슴에 넘치고
아버이 믿음과 크나큰 기대
계급의 어깨우에 억세게 얹은
검덕의 광부들이기에
황홀토록
가슴에 안아보는 은금보화로 하여
오늘은 모든것 신성하고

불수록 새로워
수령님 부르심을 받드는 길에서
광부의 긍지는 가슴에 소중하고
당의 뜻을 빛내이는 길에서
지심 깊은 이 갱 이 막장이
땅우에도 높은곳에 열린듯 느껴거니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
불밝은 행복의 창문들이 불려도
시대의 자작으로 가슴 더웁히며
성큼성큼 막장의 석수밑으로 들어서고...

한치 앞을 칸데라불빛으로 밝혀가도
가슴 가득 안고사는
땅우의 아름다운 밤 황홀경
서늘한 나무숲 아이들의 노래소리에
시대의 기쁨을 한껏 누리는데...

그때문에 더없이 사랑한다
번영하는 조국을 은금보화로 더욱 빛내이시려
위대한 수령님 검덕을 먼저 불려주신
그 사랑 그 믿음에
쇠돌로 보답하고
쇠돌의 무게로
충성의 마음 다진 그 고결함을-

이 사람들이 바로
조국의 높은 존엄을
억년 주춧돌되어 땅속에서 받드는 광부들
우리 당의 위대한 구상을
땅속의 은금보화로 빛내이는 광부들
마천령 넘어 멀리
갈래 많은 막장길 수백리 지심속에 있어도
검덕의 이 사람들은
당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영광의 초소를 지켜가고있는것이여라

다시 만난 관리위원장

박병주

나는 얼마전에 3대혁명붉은기농장의 영예를 지닌 옥도협동농장을 찾았다.

아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해빛아래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꽃피난 이곳 농장은 바라보는 모든것이 새롭게만 느껴졌고 감회 또한 컸다.

한것은 10여년전에 취재차로 이곳을 찾은 일이 있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에 계속되며 세대는 끊임없이 바뀌어집니다. 혁명의 과녁은 변하지 않았는데 세대는 바뀌어 벌써 해방후 자라난 새로운 세대들이 우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하고있습니다.》

나는 10여년전 립근상영웅을 취재하러 왔던 잊지 못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그의 뒤를 이어 관리위원장으로 일하고있는 영웅의 아들을 만나보려고 농장관리위원회에 들렀다.

그런데 관리위원장은 사무실에 있지않았다.

《우리 관리위원장동진 시에 출장가셨었는데 지금 6작업반에 계신답니다.》

관리위원회 회계원처녀가 량볼에 귀염성스런 불우물을 지으며 관리위원장의 행처를 알려주었다. 나는 곧장 6작업반으로 나갔다. 10여년전 립근상영웅관리위원장을 취재할 때 만났던 이곳 작업반장은 나를 대뜸 알아보며 무척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런데 작업반장은 출장갔던 관리위원장이 돌아왔는지조차 모르고있었다.

우리는 농장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풍년이야기를 들려주던 작업반장이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사람들의 눈길이 덜 미치는 인황천옆 막바지 논머리에서 누군가가 비바람에 넘어진듯싶은 벼 포기들을 정성스레 일으켜세우고있었던것이다.

눈여겨 살펴보니 어디선가 꼭 본사람 같았다.

(누굴까? 약간 구불사한 등이며 남달리 큰 뒤통수기 그리고 보통키의 회색옷차림... 어디서 보았던가?)

바라볼수록 몹시 낯이 익었다.

생각을 더듬어보니 10여년전 강냉이밭머리에서

만났던 립근상영웅관리위원장의 모습과 너무도 신통했다.

아니, 아까 읍에서 버스를 타고 오다가 정류소가 아닌 이곳 6작업반어귀에서 내린 눈매 서글서글한 그 사람이 분명했다. 옳았다. 그 사람이였다.

이윽고 작업반장이 나를 마주보며 싱긋 웃고나서 낮익은 사람에게로 달려갔다.

《위원장동지, 출장길에 돌아오는 첫참부터 이젠 너무 호된 비판입니다.》

이렇게 말한 작업반장은 나를 소개했다.

나는 관리위원장의 흠문은 손을 무릅없이 덥석 잡았다. 순간 장알진 그의 손바닥은 땅을 다루는 진짜 농군의 진미를 그대로 나의 온몸에 확 안겨주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동지, 풍년장훈은 또 문제없겠지요?》

황금벌 한밀으로 금파를 일구는 벼바다를 흐뭇이 바라보며 내가 이렇게 묻자 관리위원장은 노상 웃는 얼굴로 이렇게 대답하는것이였다.

《옛날부터 농민의 기쁨은 가을에 있다고 했습니다. 봄내 여름내 온 한해 벌에 쏟아부은 우리 농장원들의 땀방울이 이렇게 풍년이삭으로 넘쳐날때처럼 더 기쁜 때는 없습니다.》

이때 작업반장이 기쁨에 넘친 어조로 한술 더 보태는것이였다.

《내 룡손이 가까워오도록 농사를 지어오지만 작황이 올해처럼 좋기는 처음인가봅니다.》

하더니 글썽 로동화 한짝을 벗어 다짜고짜로 논판에 훌 던지는것이였다.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어 나의 의혹은 웃음속에 풀렸다.

《자, 보십시오. 우리 농장의 벼가 이만하면 괜찮지요?》

바라보니 작업반장이 던진 41문짜리 로동화는 벼이삭들우에 둥둥 실려있었다.

나는 작업반장의 멋진 《확증》에 그만 소리내어 웃었다. 관리위원장도 껄껄 웃었다.

《땅에 뿌려내린 곡식이란 곡식은 모두 하나같지요. 이렇게 벼작황도 좋지만 강냉이 더 불만하

지요. 강냉이 한대에 팔뚝같은 이삭이 두개씩은 어김없이 달렸지요. 이제 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농법이 가져다 준 열매이지요.》

관리위원장도 한껏 기쁨에 넘쳐났다.

《우리 농장 강냉이농사는 정말 자랑할만하지요. 관리위원장애기대로 미국놈의 목대를 꺾을만도 하지요.》

손세를 써가며 미국놈목대를 꺾는 시늉을 해보이는 작업반장의 행동거지는 참으로 흥미있었다.

강냉이농사에서 미국놈의 목대를 꺾는다는 말을 듣느라니 강냉이농사에서 전국적으로 최고기록을 내어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옥도리사람들이 미국놈의 코대를 꺾어놓았다는 과분한 치하를 받았다고 감격에 겨워 이야기하던 영웅관리위원장의 모습이 간절히 떠올랐다.

아버지대에는 미국놈의 코대를 꺾고 아들대에 와서는 미국놈의 목대를 꺾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나의 가슴에 세찬 격정의 파문을 일으켰다.

《위원장동무, 이렇게 풍년포전에서 만나고보니 10여년전 아버지를 만나던 때가 어제런듯 눈앞에 선합니다. 그때는 저 강냉이밭머리에서였습니

다.》

선들바람에 싸-아 설레이는 강냉이밭은 10여년전 그날을 불러오는듯싶었다.

그때 영웅관리위원장은 말매등강냉이포전 한귀에서 비바람에 넘어진 강냉이대를 하나하나 일으켜 세워 새끼줄에 지지해주고있었다.

풍년바람에 한이삭정도의 강냉이에 대하여서는 관심을 덜 돌리고있는 그것이 가슴아파 말없는 실천으로 농장원들을 이끌어주던 영웅관리위원장의 모습은 지금도 나의 기억속에 또렷이 남아있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갔지만 나는 그 모습을 논머리에서 지금도 그대로 보고있다. 신통히도 한 일본새다. 그 아버지애 그 아들이란 말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한것이 아니겠는지?

그렇다. 안해와 아이들이 기다릴 집으로가 아니라 먼저 포전부터, 그것도 빠세정류소도 아닌 농장의 첫어귀에서 내려 한포기한포기의 곡식을 보살펴주는 관리위원장의 모습은 사람들이 스쳐버린 강냉이포전 한귀통이에서 강냉이대를 소중히 일으켜 세우던 10여년전 영웅관리위원장의 그 모습과 너무도 방불했다.

나는 일손을 거들어주며 진정을 터놓았다.

《관리위원장동무, 전 오늘 위원장동무의 모습에서 아버지를 다시 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전 겨우 아버지의 입내나 피우고있습니다. 아버지처럼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들자면 아직 멀었습니다. 한가지 생각을 하고 한마디의 말을 해도 언제나 어버이수령님의 뜻대로 하자고 하지만 수령님께서 농촌혁명가라고 불러주신 아버지가 되자면 전 너무도 한일이 적고 할일이 또한 너무도 많습니다.》

순간 나의 가슴은 세차게 뛴뛰었다.

한마음 어버이수령님께 충직한 참된 혁명전사만이 지닐수 있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그 정신적 높이를 대번에 체득할수 있었기때문이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을 실현하는 혁명의 한길에서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혁명가의 본분을 다해온 그였기에 수령님의 따사로운 사랑의 한품속에서 림근상영웅관리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대의원이라는 그리고 농촌혁명가라는 그리도 높은 영예를 지닐수 있었다.

하기에 림기환관리위원장은 신심과 용기에 넘쳐서 아버지가 앞서간 보람찬 혁명의 한길을 드팀없이 이어가고있는것이다. 끝없이 믿어주시고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혁명의 대는 미덥게 이어지고 관리위원장이 아닌 충성의 심장들이 쏟아붓는 그 뜨거운 마음들에 받들리며 농업전선에 혁명의 북소리 높이 울리고 만풍년은 언제나 약속된 기쁨으로 넘쳐나는것이다.

나는 관리위원장과 나란히 풍년든 농장길을 걸었다. 나의 마음은 언제나 벌에서 논비를 맞으며 농장원들의 앞장에서 달려가던 림근상영웅관리위원장을 꼭 다시 만난듯싶었다. 아니. 은혜로운 사랑속에서 충성의 한길은 드팀없이 달려가며 어버이수령님께 보람있는 한생을 바쳐가는 영웅관리위원장을 나는 다시 만났다.

몸은 비록 갚으나 충성의 한길을 함께 걷는 영웅관리위원장!

그를 다시 만난 나의 마음은 무등 기쁘기만 했다.

해는 어느덧 고구려옛성을 띠처럼 두르고 거연히 솟은 오석산마루에 걸렸다.

미구에 하늘가득 붉은 노을이 기폭처럼 펼쳐졌다. 마치도 옥도벌에 날리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붉은 기발처럼...

그 기발아래 우리의 농촌진지는 또 얼마나 굳건히 다져질것인가!

빛나는 래일을 그려보며 풍년벌을 다시 걷는 나의 가슴은 마냥 벅차올랐다.

앞장서가는 사람들

장동일

학창시절에 100미터달리기에서 앞장에 서는것도 쉬운 일이 아니며 병사시절에 돌격전의 앞장에 서는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하물며 강철과 강재를 생산해내는 일터에서 남보다 먼저 출근하고 남보다 더 많은 일을 함으로써 앞장에 서는것이 어찌 쉬운 일일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 김책제철소는 불도가니마냥 들끓고 있다.

전국에 《80년대속도》창조운동을 호소하고 거세찬 불바람을 일으키며 전국의 앞장에서 힘차게 달려나아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각급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은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모든 일을 책임적으로 조직집행하며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킴으로써 올해전투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여야 하겠습니까.》

아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크나큰 믿음을 안고 혁명과 건설의 맨 앞장에서 달려나갈수있는 우리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이 물음에 대답하기전에 나는 내가 알고있는 한 당일군에 대하여 말하고싶다.

그는 열간압연직장의 분초급당비서 류영국동무이다. 그는 첫눈에 매우 건장해 보이는 사람이다.

불жит한 넓은 얼굴에서 언제나 빛을 뿌리는 큰 눈동자와 진한 눈썹, 그리고 두툼한 입술은 날카로운가 하면 호방스러운 감을 주며 실한 폭이며 버그러진 어깨와 가슴은 대번에 억세인 사나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가 어느 제강소에서 여러해동안 용해공을 했다는것을 뒤늦게야 안 사람들은 그제야 머리를 끄덕이며 《글쎄 원래 몸집이 일에 단련된 사람이야, 성격두 시원시원하겠어...》 하고 말하는것이였다. 대체로 이런 형의 사람들은 과묵하고 말주변이 없는것으로 짐작될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얼마전에 그가 얼마나 열정적인 웅변가인가 하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우리 김책제철소 로동계급이 전국에 《80년대속도》를 호소할 때 일이었다.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다시 한번 비약을 일으키자는 당의 호소를 벌써 무척가슴들에 받아안은 강철전사들이 소나무가 무성한 사봉경기장으로 물결처럼 밀려들었다. 진정으로 가슴을 두

드리며 하는 목소리들이 전국에 울리어갔다. 그것은 미구에 작성될 호소문에 함축되어 밝혀질 귀중한 말들이였다.

열간압연직장 분초급당비서도 토론을 했다.

《...동무들! 당중앙의 이 크나큰 믿음에 보답하자면 누구나 다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어 열번 쓰러지면 열번 다시 일어나 싸우는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발휘해야 합니다.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있는것은 최대한으로 리용하면서 오직 제힘만을 믿고 싸워나갈 때 우리 앞에 못해낼 일이란 없습니다.》 그는 쇠소리가 나는 목소리로 이렇게 격조높이 부르짖었다.

토론원고를 들여다보지 않고 그대신 바다처럼 설레이는 종업원들을 휘둘러보는 그의 눈동자에서는 불이 이는상 싶었다.

《이복세, 류영국이 그새 말이 늘었어.》 하고 아마도 친지들인듯한 같은 급의 일군들이 서로 나지막하게 귀속말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나는 그 이튿날부터 그 《친지》들의 말을 부정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말재간보다 《일재간》이 더 늘어났었다.

사실 전국에 《80년대속도》창조를 호소한 지난해 7월은 우리 김철의 강철로동계급에게 있어서 그 어느해, 그 어느날보다 책임적인 달이었다. 일약 138.9프로 장성된 압연강재를 밀어내야만 하였으니 이것은 지난해에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놀라운것이였다.

누구나 잘 아는것이지만 불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7월과 8월이 제일 어려운 달이다. 게다가 윤달까지 든 레년에 없이 무더운 지난해의 삼복지경이다.

바로 이러한 어느날 뜻하지 않게 우리가 일하는 가열로의 천정에 구멍이 났다. 아마 전번 보수를 할때 축조를 하면서 잘 맞물려놓지 못했던 요소의 벽돌이 한두장 빠진 모양이였다. 이 상태로 생산을 계속한다면 수천키로카로리의 귀중한 열이 허실될것이며 시간마다 생산량이 떨어질것이다.

우리는 지체없이 내화벽돌과 몰탈을 준비해가지고 화염이 이글거리는 로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벌써 누군가가 화염을 맞받아 싸우고있었다.

그는 바로 분초급당비서 류영국동무였다.

《아! 마침들 왔군. 자 빨리 벽돌을 이리 주우. 어서 빨리!》 하고 그는 놀렘과 감동으로 굳어진

채 서있는 우리들에게 꿇었다.

우리는 순간 그에게서 받아안은 커다란 충동으로부터 솟아나는 힘을 느끼며 아직도 붉은 화염이 널름거리는 거기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서로 한덩어리가 되어 10분도 못되는 짧은 시간에 가열로의 천정을 완전히 보수할수 있었다.

《...글쎄 순회를 하다가 보니 어쩐지 동무네 가열로천정에서 수상한 연기가 오르지 않겠어.》하고 그는 땀을 씻었다.

사실 그는 수백명 종업원들중에서 제일 먼저 출근하여 벌써 작업장들을 돌아보는것을 하나의 《법칙》으로 삼고있었다. 가열로의 1조종소로부터 시작하여 만능압연기 5조종소로 해서 완성압연기들과 8조종소의 권관기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돌아보면서 밤교대작업에서 이상이 없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으며 연마장과 설비작업반의 수리장이며 지어는 천정기중기꼭대기까지 올라가 보고서야 사무실에 돌아오는것이였다.

로동자들은 전야근교대를 마치고 퇴근하는 밤 12시가 훨씬 넘은 때에도 그는 어느 압연공과 무슨 말인지 손세를 써가며 하고있었으며 (아마도 압연강재생산과정에 나타났던 교혼을 놓고 이야기를 했으리라고 본다.) 후야근교대를 인계받으러 현장에 나왔을 때에도 어느 압연공과 작업장의 밝은 형광등 아래에서 도면을 들여다보고있었다.

실로 그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것이였다.

남보다 일을 많이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남을 먼저 생각할줄 아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것이다.

보름전의 일이라고 기억된다.

우리 작업반의 정동무는 뜻하지 않은 외부동원으로 하여 하마트면 전당적으로 진행되는 중요한 행사에 빠질번한적이 있었다. 물론 후에 개별적 절차에 따라 해도 되는 일이였지만 정동무의 경우에는 자기 위치에서 이 중요한 행사에 선참으로 참가하면 더없이 좋은 일이였다.

때마침 정동무는 작업반에 돌아왔다.

교대별로, 세포별로, 작업조별로 휴가중에 있거나 출장중에 있는 모든 당원들에 대한 연락이 조직되였었다.

그런데 정동무는 이때 행사에 참가하라는 한가지 연락을 스물네시간동안에 네사람한테서 받았다.

처음에는 후야근교대에 나가는데 압연강재더미우에 서있던 분초급당비서자신이 직접 아침에 분초급당에 들려 참가증번호를 알아가지고 가야 된다고 알려주는것이였다. 정동무의 말에 의하면 집에 퇴근해가니 저녁 5시까지 문화회관앞마당에 도착하라는 쪽지편지가 편지함속에 있더라는 것이였는데 이것이 두번째 연락이였다. 세번째로는

승호봉조장동무가 가지고 갔고 네번째로는 교대세포비서인 남광민동무가 가지고 갔는데 혹시 잠에서 깨지 못할가봐 정동무와 함께 자기 위해서였다. 이 모든것은 분초급당비서동무자신이 직접 조직한것이였다.

이날 나는 비를 맞으며 자전거를 타고나온 분초급당비서 류영국동무한테서 참가증을 받으면서 눈시울을 공연히 습벅거리는 정동무를 지켜보며 생각이 깊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조직이 아니다. 한시바삐 대오로 돌아가야 될 정동무의 정치적 생명에 대하여 얼마나 귀중히 여기었으면 그 한 사람에게 한가지내용의 연락을 가지고 네사람씩이나 불었겠는가. 당중앙의 의도대로 당원들의 진정한 어머니가 되고 벗이 되지 않고서야 어찌 그처럼 사려가 깊을수가 있겠는가...)

언젠가 한번은 류영국비서동무가 직접 직장종업원 전체를 인솔하고 영화감상을 위해 문화회관으로 나간 일이 있었다. 그때 압연작업반의 압연공인 코끝이 몽텅하고 살결이 희멀쭙한 박동무가 발가락에 무좀이 도쳐서 대오를 따라가기 몹시 힘들어 했다. 이것을 알게 된 류영국비서동무가 말없이 자전거를 박동무의 앞에 돌아다 세웠다.

《자. 올라타우.》

박동무는 놀람과 의혹으로 커진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면서 뒤로 한발자국 물러섰다.

《자, 어서 올라앉으라는데두.》

이렇게 되자 박동무는 하는수 없이 60키로가 넘는 몸집을 분초급당비서의 자전거뒤꽂무니에 올려놓았다.

《아. 아 저거 빵구가 나겠군...》

누군가 근심스러운 어조로 참견했다. 그러나 류영국비서동무는 그런 목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힘차게 자전거를 몰아갔다.

그러나 자전거는 문화회관의 마당을 서너발자국 앞에 두고 멎어서고야말았다. 끝내 뒤바퀴의 《내장》이 터져나오고야만것이였다.

우리들은 모두가 자전거뒤꽂무니에서 툭기적거리며 내리는 박동무를 민망하게 쳐다보며 한마디씩 했다.

《사람두, 올라앉으란다구 그 크다만 엉치를 어디다 올려놓아.》

《그러기말야, 지평이 하나면 알아볼건데.》

그러나 류영국비서동무는 이 말 역시 못들었는지 하늘을 쳐다보며 웃는것이였다.

《그래두 이놈의 뒤바퀴가 <목적지>까지 용케 견디여 주었군, 허허...》

그러나 그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처럼 대범하게 웃어버리는것이 아니였다. 바늘끝만치 사소한 것이라 해도 그것이 당의 방침을 무조건 집행하는데서 저해로 된다면 즉시 문제를 세우는 그러

한 칼날같은 결단성이 그에게 있었다.

바로 사흘에 나는 그가 우리 가열작업반교대에서 전투결의목표 (정말 십여톤도 안되는 적은 수자였지만)를 미달했을 때 달려올라와서 하던 절절한 목소리를 잊을수 없다.

《...그러구두 휴계실로 올라와서 목욕을 할 차비요? 량심이 없소. 도대체 강철로동계급의 량심이 없단말이요. <80년대속도>의 앞장에 선다는 것이 무슨 의미요?! 예?! 중간운데가 아니라 맨 앞장이란 말이요. 맨 앞장!...

생각 좀 해보우. 조국이 해방된 이듬해 봄인 1946년 4월 21일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항일전에 입으시던 그 군복차림 그대로 여기 천리북변땅에 몸소 찾아오시였소. 그때 벌써 조국의 대야금기치로서 우리 제철소를 일떠세우실 웅대한 구상을 하시었던것이요.

바로 그로부터 열흘후에 청진시에서는 해방된 조국땅에서 처음으로 력사적인 5.1절시위행사가 있었는데 이 시위행사의 준비를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보아주시였소. 그때 시위대렬의 순서에는 맨 앞에 시와 도급간부들이 백말을 타고 나가게 되어있었고 그 뒤에는 농악대가 따르고 그 뒤로는 시민대렬이 그리고 그뒤에는 로동자대렬, 농민대렬, 학생대렬이 가장물들과 구호판들을 들고 따라 나가게 되어있었소.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오래도록 시위대렬의 순서를 보고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 로동계급은 과거부터 일본놈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받아왔으므로 험벗고 굶주린 사람들이라고 하시면서 해방된 오늘에 와서는 로동자, 농민이 제일 귀중한 사람들이며 나라의 기둥이라고 하시였소. 그러시면서 장군님께서는 로동자, 농민을 시위대렬의 선두에 서게 하라고 간곡히 말씀하시였습니다.

동무들. 이것이 어찌 5.1절시위대렬의 순서에 대한 말씀만이겠소. 아니요. 그것이 아니요.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강철로동계급을 시위대렬의 앞장에만 세운것이 아니라 혁명의 앞자리에 세워주시였던것이요. 해방된 5월의 광장에서 광채덩어리처럼 짓밟히우고 버림받던 더벅머

리 용해공들이 눈물을 삼키며 맨 앞장에 나와섰던 그자리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서있는것이요!

력사에 빛나는 그 앞자리를 대를 이어 지켜가라고 오늘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는 우리 김철의 강철로동계급을 또다시 <80년대속도>창조의 맨 앞장에 세워주시였소!

생산계획이 아니고 결의계획이라 해서 단 한기로라도 미달한다면 그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것처럼 믿고 내세워주신 로동계급의 앞자리를 지키지 못하는것이요.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는것이란말이요! 그래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구서두 로앞에서 그리도 쉽사리 발길이 떨어집제? 예?!... 자, 다시 로앞으로 갑시다. 내려가서 오늘 미달한 생산량을 당장 보충합시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들의 앞장에 서서 로앞으로 가는것이였다.

그렇다!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대오의 기수가 되어 앞장에 서있기때문에 오늘도 력사에 빛나는 그 앞자리를 지켜나가고있는것이다. 비단

열간압연직장의 분초급당비서동무만이 아닌 김철의 수많은 직장과 작업반의 세포비서와 초급당일군들이 어머니가 되고 벗이 되어 우리가 로동계급의 앞자리를 더욱 튼튼히 지켜나가도록 떠밀어주고있는것이다.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용광로직장의 공훈용해공이며 로력영웅인 김홍일아바이도, 용광로 직장 직장장이며 로력영웅인 함대영동무도, 강철 직장의 공훈용해공인 김학철동무도, 2강철직장의 축로작업반장이며 로력영웅인 김동수동무도, 그리고 우리 열간압연직장의 말없는 혁신자들인 가열공 송호봉, 김만준, 홍명선동무들도 걸어가고있다. 아니 이들만이 아닌 수백, 수천, 수만의 우리

김책제철소의 로동계급들은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보람찬 혁명의 진군길에서 오늘도, 래일도, 먼 미래도 그 언제나 혁명의 앞자리를 지켜갈것이다.